

제국의 태양

Prologue

위도 아래도 희디 흰 별판 아래 선 남자는 유일하게 색을 가지고 있었다.
타오르는 붉은 색.
북풍에 흩날리는 머리칼도, 그 머리칼 사이로 비치는 유리구슬 같은 눈동자도, 그
리고 검 날을 따라 흐르는 피도 모두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선택해주세요.”

아스펠은 남자에게서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다.
흰 캔버스에 붉은 점을 찍어 놓아도 그보다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영영 이 나라를 떠나 죽은 듯이 살아갈지.”

시선을 아스펠에게 둔 남자는 몸도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검을 휘둘렀다.
눈도 코도 귀도 없는, 사람의 형태만 간신히 띠고 있던 마지막 마법 병사가 단말
마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그녀를 향해 덤벼들던 위협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연
약하고 허망한 최후였다.

“그도 아니면 저와 함께 에틸렌으로 가 황좌에 오르실지.”

그녀의 적을 향해 겨냥했던 검 끝이 어느새 아스펠을 향했다.

“선택해 주세요.”

빛을 받아 번뜩이는 검은 피에 젖어 있어도 그 날이 서늘하고 섬뜩했다.

“폐하.”

조각 같은 얼굴에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건 남자가 아스펠에게 대답을 종용했다.

웃음기 한 조각 없는 남자의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한 아스펠은 입 안이 절로 바짝 말라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협박이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보기보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남자는 뻔뻔한 사람이었다.

“.....좋아요, 황제가 될게요.”

게다가 은근슬쩍 그녀를 ‘폐하’ 라고 부르는 모양새가 정말이지 알뜰기 그지없었다.

반반한 얼굴과 가면을 쓴 듯한 그림 같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스펠은 입안을 한번 꼭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국에 남은 유일한 비네시스의 혈통이 저뿐이라니, 어쩔 수 없죠.”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감추며 그녀가 대답했다.

“대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폐하.”

아스펠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남자가 환히 웃었다.

아까의 눈을 마주하면 피가 얼어붙을 것 같던 차가운 미소가 아닌 봄날의 꽃망을

이 피어날 듯이 눈부신, 빛나는 얼굴이었다.

눈꼬리마저 부드럽게 휘어진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스펠은 웃는 얼굴 하나로 사람의 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었다.

“그럼 폐하,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꿈어요.”

“네?”

물론 아스펠은 그 예쁜 얼굴에 속지 않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미 남자의 뻔뻔스런 면모와 냉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후였다.

겉모습이 반짝거린다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기엔 전생과 현생을 합쳐 아스펠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 길었다.

아스펠은 손가락으로 제 아래를 가리켰다.

“꿈으라고요. 저, 황족이잖아요?”

“.....”

“그리고 검도 내리세요. 앞으로 당신 상사가 될 사람한테 대체 언제까지 흥기를 들이대고 있을 생각인 건가요?”

평민으로 살아왔을 아스펠의 고압적인 명령에 놀랐는지 남자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뜨였다.

굳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배부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환생한지 21년, 전생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생에서 세운 아스펠의 좌우명은 ‘당하고 살지 말자.’ 였다.

1.

아스펠 레이덴트가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건 그 해 겨울이었다.
그녀에게 그 소식을 전한건 아스펠의 상사이자 가일라프 상단의 장(將), 하센이었다.

“아스펠,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으니 분명 오펜하임께서 굶어 살피.....아니, 젠장. 사람이 죽었는데 빌어먹을 신이 다 무슨 소용이람.”

하센은 그 솔뚜껑마냥 두껍고 커다란 손으로 수염 가득한 덩수룩한 얼굴을 쓸어 내렸다.

손가락사이로 보이는 검은 눈에는 깊은 슬픔과 저항할 수 없는 순리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기랄, 로웰은 아직 한창 때였는데.....”

“.....”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했는데.....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빨리.....젠장, 젠장!”

하센은 아스펠의 아버지, 로웰과 친분이 깊었다.

곰 같은 그의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보고도 편견을 갖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라 나.

그 덕에 아스펠은 3년 전 가일라프 상단에 회계사로 취직하기 전부터 알게 모르게 하센의 보호와 편애를 톡톡히 받았다.

그가 로웰의 죽음에 이토록 서글퍼하고 화를 내는 건 그만큼 하센이 아스펠의 아버지를 좋아했다는 뜻이다.

하긴 누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아스펠, 그녀도 있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전생의 기억 때문에 더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그녀의 세상을 뒤집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로웰이었기 때문이다.

로웰이 곁에 있었기에 아스펠은 두 생애를 통틀어 처음으로 가족이 주는 신뢰의 든든함과 애정의 달콤함을 맛봤다.

편부모 가정이었지만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로웰의 사랑으로 인해 아스펠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로웰은 아스펠에게 있어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럴 리 없어.’

‘로웰이 죽었다.’ 라는 하센의 말은 어쩐지 먼 세계의 이야기 같았다.

이런 일은 일어날 리 없었다. 아니, 일어나선 안됐다.

아스펠은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의 축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과 동시에 발이 땅에서 붕 뜬 듯한 부유감을 느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단 하나만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럴 리 없어.’

“아스펠.”

“그럴, 리, 없어요.....”

두터운 장부 위로 방울방울,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트리고 있던 아스펠이 고개를 들어 하센을 바라보았다.

“아빠, 가.....돌아가셨을 리 없어요.....”

“.....”

“제, 제 연말 보너스도 기대하고.....내, 내년 해돋이도.....가, 같이 으, 보겠다고.....약속 했단, 말이에요.....”

“.....”

“새, 생일도 축하해야하고.....보, 봄엔 꽃놀이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약속, 했는데.....”

아스펠의 어깨를 붙든 하센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아스펠은 아팠지만 그와 동시에 아프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가슴의 구멍이 너무나 커서 그 외에 느껴지는 다른 고통은 너무나 사소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때 아스펠만큼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트린 하센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주 힘껏, 강하게.

그렇게 안지 않으면 그녀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듯이.

“마지막에 봤을 땐,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 단단하고 널찍한 품에 숨이 막힐 듯이 안기고 나서야 아스펠은 겨우 소리 내어 울음을 터트렸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은 눈물에 잉크가 번지고 손 안에서 구겨져 엉망이 된 지 오래였지만 둘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때 짙은 회색빛 하늘 아래로 하나 둘, 작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의 첫 눈이었다.

크고 작은 지붕 위로 소리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들은 이질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

우연히 하센의 어깨 너머로 그 광경을 눈에 담게 된 아스펠은 로웰과 이 감상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로웰은 이제 더는 아스펠과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않았다.

아스펠은 그 사실이 숨 막힐 정도로 외롭고 슬펐다.

* * *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스펠은 축 늘어진 하센의 어깨를 다독였다.

얼마 후 있을 큰 거래 때문에 하센을 비롯한 가일라프 상단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눈코 뜰 새 없는 이 바쁜 시기 아스펠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다 하센 덕분이었다.

“내년에 방문하시면 되죠.”

“그치만.....”

“어차피 지금 시기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를 텐데요, 뭐.”

로웰이 죽기 바로 며칠 전, 열성(烈性)왕 다일레프 3세가 서거했다.

이에 비네시스 제국 국민들은 집 지붕마다 검은 천을 매달고 국화(國華) 화이트 블라섬을 엮어 만든 화관을 문 앞에 걸었다.

국법에 따라 근 한 달간 축제와 장례식은 모두 금지되었으며 국경과 대도시로의 통행 역시 제한되었다.

하센은 홀로 여행길에 오른 아스펠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짐을 챙겨주었다.

두둑한 여비와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보증서, 상단의 권한까지 끌어와 만든 긴급 통행증은 물론이고 로웰의 무덤에 바칠 비싼 꽃다발까지 준비해주었다.

예상보다 이것저것 늘어난 짐에 아스펠은 말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꽤나 진땀 빼야 했다.

“조심해야 한다, 아스펠.”

밤에 보면 영락없이 산에서 내려온 곰처럼 보이는 하센이 더없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아스펠에게 당부를 거듭했다.

그토록 많은 물건을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센의 눈엔 여전히 먼 길 떠날 아스펠의 짐이 부실해 보이는 듯 했다.

“되도록 큰 길로 다니고 노숙은 웬만하면 하지 마렴.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그리고.....”

“나 참, 그만 좀 걱정해요 대장.”

걱정 어린 하센의 잔소리를 얄전히 듣고 있던 아스펠을 대신해 유일하게 잠을 마다하고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던 고향 친구, 데미안이 진저리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 해 지고 나서야 출발하겠어요.”

“뭐? 그건 안 되지!”

아직 해가 머리꼭지를 보이기도 전인 새벽이건만 데미안의 과장된 지적에 하센은 호들갑을 떨며 아스펠의 등을 떠밀었다.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잔뜩 남았는지 떨쳐내지 못한 미련이 얼굴에 한가득 있었지만 겨우 참고 있는지 하센은 입술을 꼭 앙다물고 있었다.

데미안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우리 대장이 그렇지 뭐.’ 라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한 편의 코미디 극을 보는 것 같아 아스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트렸다.

“어서 가라, 아스펠. 이제 더는 붙잡지 않으마.”

“다녀올게요, 대장.”

하센이 엄선한 특별히 다리가 튼튼하고 순한 말 위에 능숙하게 올라탄 아스펠이 아직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리만 하고 돌아올 거니 그리 오래 자리를 비우진 않을 거예요.”

“아스펠, 이거 가져가.”

그 때 고삐를 잡은 아스펠에게 다가온 데미안이 보자기에 싸인 무언가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받아보니 따끈따끈한 열기와 고소한 냄새가 천 너머를 통해 느껴졌다.
위장을 자극하는 온기와 향에 아스펠이 반색하며 데미안을 돌아보았다.

“이거 내 밥이야?”

“응. 널 위해 어제 저녁에 레일리아가 준비한 거야.”

“.....”

하지만 벅차오르던 기쁨도 잠시, 준비한 인물의 이름에 아스펠은 숨을 들이켰다.
레일리아의 음식은 마비된 미각과 제멋대로인 레시피 때문에 상단 내에선 겉모습만 예쁜 괴식(壞食)으로 유명했다.

재밌는 건 레일리아 본인은 자신의 음식이 괴식이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이다.

“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배웅은 무리일 테니 음식으로 대신하겠데.”

“.....”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와.....정말 기쁘다.....”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아스펠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본 데미안은 생일 선물을 한 달은 당겨 받은 어린아이 마냥 환하게 웃었는데 아스펠은 그제서야 왜 그가 이 꼭두새벽에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건지 깨달았다.

그는 레일리아의 음식을 전해주며 지을 아스펠의 표정을 감상하기 위해 아침잠을 포기한 것이다.

정말이지 참된 친구였다.

“레일리아한테 정말.....고맙다고 전해줘.....”

“물론이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란 호칭이 아깝지 않은 데미안이 커다란 미소와 함께 답했다.

“네가 음식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면 레일리아도 좋아할 거야.”

“.....”

“어쩌면 또 네게 음식을 만들어 줄지도?”

나긋나긋한 그 목소리에 아스펠은 잡고 있던 말고삐를 콕 틀어쥐었다.

시간이 있었다면 데미안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출발해야 하는 게 아쉬웠다.

“너, 다녀오면 두고 보자.”

이를 갈며 속삭이는 아스펠을 향해 데미안은 하센에겐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몰래 혀를 날름 내밀었다.

‘저런 유치한 애가 나랑 동갑이라니!’

분한 마음에 마주 혀를 내밀던 아스펠은 어린애 같은 제 행동에 볼을 붉혔다.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녀가 종종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건 분명 데미안 때문이었다.

틀림없었다.

모두가 '정말 그런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 사실을 아스펠은 진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2.

아스펠의 고향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 산 속의 작은 시골 마을로 지도에도 표시 되지 않은 이름 없는 촌락이었다.

밭농사나 산에서 나는 나물과 열매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가구가 적어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 간의 정은 깊었고 서로 간에 신뢰가 두터웠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스펠도 옆집 아주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랐을 정도였다.

차별 없는 그녀의 애정 덕에 아스펠은 데미안과 성인이 되어서도 얼굴을 마주하는 징글징글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아스펠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라우라 아주머니의 무한한 사랑엔 감사했지만 피가 이어지지 않은 형제로 데미안을 준 건 하나도 안 감사했다.

어쨌거나 그만큼 혈연이라는 울타리의 개념이 흐릿한 이 마을에서 로웰이 죽었을 때 제 가족이 죽은 것 마냥 정성들여 무덤을 쌓아 올려 준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몇날 며칠을 달린 끝에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아스펠은 마을 외곽의 무덤가에 도착했다.

지난 일주일 간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했기 때문인지 갖가지 기능이 달린 아스펠의 마도구는 마력을 충전하지 못해 빛이 흐려졌고 한계까지 달린 말은 지쳤는지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푸룩거렸다.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무덤 위엔 새하얀 눈송이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아스펠은 마을 사람들이 제단 위에 올려둔 갖가지 공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싸구려 술과 말린 사과, 소금에 절여진 짭짤한 견과류와 값싼 잉크 등.

전부 생전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뿐이었다.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미소지었다.

이 모든 게 모두가 생전의 그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서, 눈물보다도 먼저 웃음이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다녀왔어요, 아빠.”

하센 단장이 정성들여 준비한 조화를 제단의 빈곳에 올리며 아스펠은 무릎을 꿇었다.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오게 됐어요. 이 바쁜 시기에 아빠 덕에 휴가도 받아 보네요.”

딱딱한 바닥을 타고 시린 공기가 올라와 다리가 얼어붙었지만 피부를 조이는 냉기에도 아스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 덮인 비석에 새겨진 글을 확인하고 싶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로웰은 10년도 더 전에 이미 자신의 비문을 준비해뒀었다.

아스펠은 당시 아직 한창 젊은 그가 벌써부터 죽어 남길 말이 뭔지 궁금했지만 장난기 많은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에나 확인하라며 비문을 꼼꼼 숨긴 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나 빨리 알고 싶진 않았는데.....”

손으로 눈 덮인 비석의 맨 위를 쓸어 넘기자 본인이 직접 새긴 건지 서툴고 비뚤 비뚤한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신념은 최후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다. -로웰 레이덴트]

마지막까지 장난스러울 것 같았던 그가 새긴 비문은 매우 뜻밖이었다.

‘신념이라니.’

아스펠은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으면서 라우라 아주머니의 말린 사과 앞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깃털보다 가벼운 무릎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글귀 옆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아스펠은 어깨를 파르르 떨었다.

히죽거리며 머릿속의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아스펠의 입에서 흐느낌을 터진

것도 그와 동시였다.

비석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가 죽었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이다.

하나 밖에 없는 그녀의 가족은, 아스펠을 그토록 조건 없이 사랑해주었던 남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차갑게 굳어진 육체는 이 얼음보다도 냉랭한 땅 속에 있었다.

이미 한 번 죽음을 겪은 아스펠에게조차 죽음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생소하고 낯설었다.

어째서일까.

죽는 자의 입장에서든 남겨진 자의 입장에서든 생의 끝이란 이토록 애달프고 가슴 아팠다.

아스펠은 오랜 시간 비석에 이마를 기댄 채 울음을 쏟아냈다.

그 소리는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채 단어가 되기 전의 글자들이 한데 뭉쳐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벌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새벽인데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아스펠은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제 속을 털어낼 수 있었다.

어째서 로웰에게 저를 두고 이리도 빨리 갔는지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 벌써부터 얼굴이 보고 싶다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언젠가 숨겨둔 과자를 멋대로 찾아먹은 것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죽기 전 유언장하나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다소 원망 섞인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스펠은 로웰에 대해 떠올렸다.

그가 가르쳐 준 것, 이야기해 준 것,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 전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를 생각하는 이 순간만큼은 아스펠은 로웰과 단 둘뿐이라 여겨졌다.

그렇게, 눈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설원에서 오직, 단 둘이서.....

“로웰님은 상냥하신 분이셨죠.”

“.....!”

아무런 전조도 예고도 없었다.

기척도, 발소리도 없이 다가온 남자의 낮은 목소리는 아스펠의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다리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그녀는 바닥을 굴렀다.

“그분은 저 같은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주실 만큼 다정하고 사려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린 다리를 부여잡은 아스펠은 재빨리 눈만 도록 굴려 제 옆에 선 정체모를 인물을 훑어 내렸다.

그는 붉은 머리에 붉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드러난 얼굴은 단정하고 반듯했지만 살짝 내리깐 눈동자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요기가 감돌고 있었고 몸에는 여행용 망토를 두르고 있었지만 두꺼운 천위로 드러난 몸은 크고 건장했다.

“단 한 번뿐이었지만 인생에선 때론 단 한 번의 선의가 평생을 가기도 하죠.”

아스펠은 남자가 칼날 같다고 생각했다.

잘 버려진 예리한 칼날.

긴 장검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꼭 그런 모습일 것 같았다.

“.....누구세요?”

아스펠은 멍청한 얼굴로 그렇게 물었다.

그 때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드러나며 소복소복 내리는 작은 눈송이와 남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스펠과 눈이 마주친 남자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온 몸의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얼음 같은 미소가 아스펠의 두 눈에 가득 담겼다.

“카일러스 폰 아이기스라고 합니다. 아스펠 폐하,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폐, 하?”

아스펠은 눈을 깜빡였다.

순간 아스펠은 제 귀를 의심했다.

그 잠깐 사이 자신이 미쳐 헛걸 보고 듣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대체 저 폐하라는 단어는 대체 왜 그녀의 이름 뒤에 붙었던 말인가?

‘설마.....’

아스펠은 저려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 애쓰며 남자를 피해 뒤로 물러났다.

설마 저 남자가 황제 폐하의 폐하를 부른 거라면 눈앞의 남자는 광장에서 효수당하고 싶은 자살희망자임이 틀림없었다.

‘항족사칭이라니! 미친놈인가?’

아니, 게다가 혼자만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닌 아스펠을 끌어들려 동반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미친놈이었다.

허리에 찬 검도 그렇고 눈에 깃든 형형한 기색도 그렇고 저 카셀이라는 남자는 미쳐도 곱게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가만, 아이기스?’

이름 뒤에 폰이 붙은 걸 보면 귀족일텐데 그렇다면 아이기스는 귀족의 성이란 뜻이다.

아스펠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옳다면 이 나라에서 아이기스란 성을 가진 귀족은 딱 하나였는데 바로 제국에 단 넷 밖에 없는 개국공신 가문의 이름이었다.

‘저거 진짜 또라이네!’

황제를 사칭하는 걸로도 모자라 개국공신 가문의 귀족의 일원임을 사칭하다니!

젊은 나이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남자를 향해 아스펠은 동정을 내비침과 동시에 그런 그를 만나버린 스스로를 향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표정을 보아하니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봐도 흰하시네요. 안타깝게도 전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남자는 또라이인 주제에 눈치가 빨랐다.

주변에 자신과 이 정신 나간 인물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은 아스펠은 저린 다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일어났다.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미친놈하고 한 자리에 오래 있어봤자 득 될 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마을 묘지에 미친놈이 돌아다니고 있단 사실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아스펠이 발걸음을 돌린 순간이었다.

다리를 저는 아스펠보다 건장하고 다리도 멀쩡한 미친놈이 마을 촌장 댁으로 향하려는 그녀의 앞을 소리 없이 몸으로 막아섰다.

아스펠은 탄식했다.

'아, 좇됐네.'

분위기 상 이 미친놈은 쉬이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아스펠은 오늘 제 운이 바닥을 기다 못해 지각을 뚫고 들어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제 정체를 의심하시는 건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버려주시길. 바라신다면 신분의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당당한 그의 말에 하센이 쥐어준 호신용 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아스펠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입니다.”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스펠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금 당장은 무리지만 저와 에틸렌, 아니 아이시아까지만 함께 가주신다면 증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이 나라에 필요한 존재란 것 역시도.”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아스펠의 표정이 순식간에 짜게 식었다.

수도 에틸렌, 아니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아이시아까지 함께 동행하자는 남자의 말은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도 속지 않을 멍청하다 못해 한심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진지한 남자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는 한없이 진심이었다.

역시 정신이 뻘까닥 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그 때 혀를 차는 아스펠을 향해 남자가 한 걸음, 성큼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에 걸린 검 손잡이에 가 있었다.

갑작스런 남자의 움직임에 긴장한 아스펠이 품 안의 무기를 움켜쥔 순간이었다.

[끼에에엑!!!]

눈 한 번 깜짝이는 사이 분명 방금 전까지 그녀의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사라졌다. 그 대신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거센 바람소리가 아스펠의 뒤쪽에서 들려왔다.

몸을 돌리자 서슬 푸른 검 날과 그보다 더 사납게 빛나는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는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솟아오른(그렇게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의, 그러나 사람이 아닌 것들이 분명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베었다.

그것들은 남자의 검에 베일 때마다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붉은 피를 흘뿌리며 먼지로 화해 사라졌다.

“자, 폐하.”

어둠 속에서도 은빛으로 빛나는 검의 궤적이 선명하면서도 선풍했다.

남자는 언제부터인가 환한 미소를 지은 채 괴성을 지르는 그림자들을 두 동강내고 있었다.

아스펠은 그 비이상적인 광경을 보며 기괴하고 말도 안 되고 또 한 편으로는 아름답다는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스펠은 이 모든 게 달빛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은은한 달빛과 붉은 피를 몸에 감은 남자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광기에 둘러싸인 것과 동시에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저와 함께 가요.”

그런 그가 다시 한 번, 아스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황제가 되어 황좌에 앉아주세요.”

“.....”

아스펠은 대체 상황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환생했을 때도 이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지진 않았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꿈

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한기도 귓가를 파고드는 기괴한 비명소리도, 그리고 매혹적으로 미소짓고 있는 남자의 얼굴도 모두 현실이었다.

아스펠은 주먹을 틀어쥐었다.

앞에는 미친놈이 양 옆에는 그림자 속에서 솟아오른 괴물들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택할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엇!”

아스펠은 그대로 몸을 돌려 튀었다.

“폐하! 기다리세요, 폐하!”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바보가 대체 어딴냐! 이 바-보!’

무서워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목구멍 아래로 삼키며 아스펠은 열심히 다리를 놀렸다.

‘걸음아, 날 살려라!’

3.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스펠의 걸음은 그녀를 살리지 못했다.

아니, 아직 그녀가 죽은 건 아니었지만 아스펠은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확신했다.

왜냐면 검은 든 미친놈이 그녀를 쫓아왔기 때문이다.

“헉, 헉.....”

충격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달리기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자부했는데 아스펠은 단 한 순간도 제 뒤를 따라오는 남자를 떨쳐낼 수 없었다.

‘저 미친놈, 달리기 한 번 엄청 빠르네!’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머릿속을 떠돌던 온갖 욕설들이 혀 밑으로 침잠했다.

짜증스럽게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느라 바쁜 아스펠과는 다르게 그녀와 비슷한 속도로 산을 올라온 남자는 지친 기색, 땀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말도 짐도 다 버리고 도망친 아스펠과는 다르게 그들 주변에서 끊임 없이 솟아오르는 검은 괴물들을 베면서 올라왔다.

이제는 그가 다른 의미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며 아스펠은 숨을 골랐다.

“풍경이 멋지네요. 제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여기 오신 건가요?”

절벽 아래, 희디흰 설산의 풍경은 달빛과 별빛만이 비추는 세계 속에서도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는 별개로 아스펠의 입에선 ‘헛소리.’ 라는 단어가 제멋대로 입 밖을 뿜어나가고 싶어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 마냥 시치미를 뚝 떼는 모습이 놀라울 만큼 얄밟고 밉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남자(아스펠은 이름을 까먹었다)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미친놈에서 엄청 위험한 미친놈으로 격상한 상태였다.

체력도 좋고 검도 잘 쓰는 저 또라이가 언제 심사가 뒤틀려 그녀를 찔러 버릴지 몰랐기에 아스펠은 입술을 꼭 깨물어 꺼지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렇기에 아스펠은 질문을 던졌다.

“저한테 왜 이러는 거죠?”

도망치는 길로는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다른 재능, 협상을 시도했다.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폐하.”

이제는 솟아오르려는 그림자 속에 직접 검을 비틀어 꽃은 그가 속삭이듯, 수줍게 사랑을 고백하기라도 하듯 대답했다.

“당신께서 이 비네시스 제국의 황제가 되시는 거예요.”

“.....”

혹시, 라는 기대를 품고 물었던 스스로가 바보 같아 아스펠은 양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남자의 대답은 목소리 톤만 한층 더 부드럽게 변했을 뿐 전과 똑같았다.

미친놈에게 협상을 시도했던 그녀가 바보였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때 땅에서 솟아오르려던 검은 형체의 단말마와 동시에 남자가 말을 이었다.
솟아오른 피가 그의 망토자락과 손을 더럽혔지만 남자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다음 괴물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하찮은 놈들의 저주가 로웰님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범인도 모른 채 이대로
이런 보잘 것 없는 마법 병사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건 분하지 않으세요?”

“뭐?”

아스펠은 눈을 깜빡였다.

“지금, 뭐라고.....”

“이 녀석들의 호칭이 마법 병사라는 거요? 하하, 확실히 웃기죠? 저주의 일종인데
이름은 마법 병사라니.”

“그거 말고!”

아스펠은 귀가 뜻하지 않게 받아들인 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피가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심장소리가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남자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피부 밑의 혈관이 들끓고 가슴 속이 뜨거워지
며 목 안쪽에서 무언가 금방이라도 울컥하고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지금, 로웰이.....아빠가, 저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듯 숨쉬기가 어려웠고 입술이 절로 떨려왔다.

“살해당했던 말이야?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는 붉은 반점을 동반한 가벼운 감기가 고열로 변해 눈 깜짝할 사이 숨이 멎었다고 했다.

아스펠은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도 그의 죽음을 감기가 불러온 합병증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글쎄요.”

마침내 그녀와 시선을 마주하게 된 남자의 눈이 초승달마냥 가늘게 휘어졌다.

“하지만 모두 죽었어요. 처음엔 미열과 붉은 반점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이내 고열로 변지며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모두?”

남자가 읊은 증상이 로웰의 경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이를 갈고 있던 아스펠은 문득 느낀 위화감에 눈을 깜빡였다.

“모두라니?”

“모두는 모두예요. 모든 비네시스 제국의 황족 분들.”

“.....”

“서거하신 다알레프 3세부터 시작해 그 아래 직계 자손과 수많은 친척들을 포함

한 모두죠.”

검은 괴물들, 일명 마법 병사들을 그가 씬 없이 베어냈기 때문인지 이제 주변엔 흩뿌려진 핏자국 외에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다른 괴물이 더 솟아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인지 남자는 천천히 아스펠을 향해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와 좀 더 가까이, 시선을 맞췄다.

“제가 왜 당신께 이러냐고 물으셨죠.”

어느새 뻗어진 남자의 긴 손가락이 아스펠의 왼쪽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느릿하게 벗어 올렸다.

“그건 당신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검은 가죽이 얼기설기 꿰매진 낡은 안대는 몇 년 전 하센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가려는 아스펠에게 로웰이 서툰 솜씨로 만들어 건네 준 선물이었다.

이제는 유품이 된 안대가 타인의 손에 의해 땅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펠은 입술 한 번 달싹일 수 없었다.

“당신뿐입니다.”

붉은 오른쪽보다 색이 짙은 자색 눈동자가 즐거워하는 남자의 얼굴을 거울마냥 비쳤다.

“당신께서 이 비네시스 제국에 남은 유일무이한 황족이십니다.”

“.....”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여기던 남자의 말을 귀담아 듣자고 결심한건 그녀의 소중한 가족, 로웰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분 전의 그녀라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아스펠은 더없이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스펠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가 뱉는 말들은 하나 같이 믿기 어려운 것들뿐이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된 출생의 비밀은 둘째 치고 저주로 인해 제국의 황족들이 모두 죽었다니.

서거한 이가 열성왕 다알레프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아스펠은 순간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졌다.

그만큼 그가 뱉는 말들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차라리 너도 전생의 기억이 있다고 해라.’

그 사실이 차라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수많은 말들이 아스펠의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물러나길 반복했다.

물론 그 중에는 ‘미친놈의 말을 믿다니 나도 미친 게 틀림없어.’ 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아스펠은 이내 입 안쪽을 짓씹었다.

남자의 손가락에 묻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피가 아스펠의 눈꺼풀을 적셨고 사방에 흩뿌려진 피에선 지독한 철 비린내가 풍겼다.

아스펠은 도전적으로 눈앞의 상대를 올려다보았다.

로웰이, 그녀의 하나 뿐인 가족이, 사랑이, 세상의 한 축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아스펠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정말로 그가 살해당한 건지, 또 살해당했다면 그 일을 꾸민 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했다.

그래야 그녀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스펠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당신.”

“카일러스입니다. 카일이라고 불러주세요, 폐하.”

“카일. 제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폐하, 만약 폐하께서 황족이 아니시라면 이 발동조건은 복잡하고 성가시고 더할 나위 없이 까다롭지만 막상 힘은 별 볼 것 없는 이런 하찮은 저주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을 리 없습니다.”

아스펠의 물음에 그는 그 질문만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매끄럽게 혀를 놀렸다.

그녀는 카일러스의 대답에 눈을 가늘게 뜨며 미간을 좁혔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이 괴물들이 날 노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네. 저를 노린 거라고 보기엔 저는 꽤 하찮은 사람이니 그럴 가치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란 건 또 어떻게 믿죠?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하죠?”

무해한 사람인 척 말갭게 휘어진 눈동자에 일순 살기가 번뜩인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의외라는 듯이, 재미있다는 듯이 남자는 다시 처음 만났을 때 마냥 서늘하게 버려진 검 같은 인상을 풍겼다.

“아스펠 폐하, 제가 지금 폐하를 구해드린 거 알고 계시죠?”

“당신이 절 구했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건.....”

“카일.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막 만난 사이고 신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이라고요. 내가 당신을 믿기 원한다면 당신은 내게 보여줘야 할 증거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아스펠은 카일이 채 답을 하기도 전에 숨도 쉬지 않고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 냈다.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 말을 길게 늘였지만 아스펠의 말은 곧 해석하자면 ‘네가 이 괴물들을 보낸 녀석들과 한패일지도 모르잖아.’ 정도 되겠다.

아스펠이 도망쳐야 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품 안의 호신용 무기를 재확인하고 도주로를 살피는 동안 카일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흘렸다.

“폐하. 폐하의 말대로 지금 저희는 방금 만난 사이고 서로를 믿을만한 이유나 증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세치 혀를 놀린다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는 억울해하는 얼굴을 보아하니 아스펠의 속내는 파악한 듯싶었다.

“하지만 지난 날 로웰님께 받은 은혜에 걸고 맹세코 말하건대 저는 이 모든 걸 아이시아에 가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이시아죠?”

“제 신분증을 그곳에 놓고 왔거든요.”

“.....”

대체 어느 누가, 그것도 황제의 장례식으로 인해 각 도로와 성의 출입이 까다로워지는 기간에 신분증을 놓고 다닌단 말인가?

“그걸 대체 왜 놓고 다니는 거죠? 아니 애초에 당신 신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이시아에 가면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말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사실인데다 제 입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상대의 입을 통해 듣자니 어쩐지 약이 올랐다.

아스펠은 가늘게 뜯은 눈으로 카일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입 한마디 벅긋해줄 생각이 없는지 그녀의 시선을 슬쩍 피했다.

“좋아요, 이러면 역시 당신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에? 폐하, 어째서! 저는 로웰님을 걸고 맹세코.....”

“당신이 제 아버지랑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고요. 따라서 당신의 맹세도 신뢰하지 않아요.”

상단에서 지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돈과 관련해 이런저런 더러운 꼴을 유난히 많이 보게 되는데 온갖 진상들을 상대하다보면 믿을 건 부모나 조상을 건 맹세가 아닌 계약서와 인감임을 깨닫게 된다.

상대의 사인과 인장,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서 인정한 신분증과 서류 같은 물적 증거들만이 중상모략과 누명을 피할 구명줄이란 뜻이다.

“큭, 크흑, 아하하하!”

난 너 안 믿으니 이만 꺼지고 네 갈 길이나 가라는 말을 또다시 얄팍한 예의로 포장하려던 아스펠은 갑작스레 웃음을 터트린 카일러스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대단히 우스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온 몸을 떨며 웃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바로 쥐었다.

“아하하, 당신 정말 걸작이네.”

눈꼬리에 눈물까지 매단 그는 키들거리며 배를 움켜쥐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계속 도망칠 궁리만 하기에 겁쟁이인줄 알았더니 할 말은 다하네! 게다가 이렇게 나 의심이 많다니. 정말로 그 순진하고 상냥한 사황자님의 딸 맞아? 세상에나. 그 자색 눈과 르벨의 신탁이 아니었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야.”

놀라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던 아스펠은 그제서야 그가 존대를 걸어 치웠다는 것을, 그녀를 ‘폐하’ 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스펠을 내려다보며 턱을 치켜세운 그는 오만했고 위압적이었고 지극히 위험해 보였다.

이제는 적대적인 살기를 감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를 마주보며 아스펠은 이것이 카일러스의 맨 얼굴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직감했다.

4.

“이것 봐,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한참을 웃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 카일러스가 아스펠을 내려다보며 손 안의 검을 빙글빙글 돌렸다.

“지금 네 처지가 어떤지 알고 있는 거야?”

“물론이지.”

상대가 가식을 떠는 건 그만 두기로 한 모양인 거 같아 아스펠도 그렇게 했다.

“웬 미친놈이 칼 들고 협박하고 있잖아.”

“허.”

살기 서린 눈이나 피 묻은 검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예의를 차리기엔 카일러스의 태도가 몹시도 재수 없었다.

멋대로 폐하, 라고 부를 땐 언제고 아스펠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같으니 이제와 위협이라니.

그 꼴이 꼬와서라도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스펠은 다리에 힘을 주고 고개를 뺏뺏이 세웠다.

그런 그녀의 모습 역시 예상외인지 카일러스는 기막혀 하며 헛웃음을 흘렸다.

“너 내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네가 신분증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한심한 인간인 거?”

“.....”

정곡을 찔렸는지 한심한 카일러스는 말을 잃었다.

아스펠은 그 얼빠진 모습을 잠시 감상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비네시스 제국의 마지막 황족이라는 것에 대해서라면 제대로 듣고 이해했어. 장례식 후 황위에 오를 마땅한 후계자가 없단 뜻이잖아.”

“.....아니야. 그 역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아스펠, 지금 네 상황과 관련 없는 일이지.”

“그게 무슨.....”

“너는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평범한 삶을 구가할 수 없어.”

미래를 보는 예언자마냥 카일러스는 아스펠의 미래를 단정했다.

“네가 비네시스의 황족이고 이 사실을 평생 숨길 수 없는 이상 좋으나 싫으나 너는 에틸렌으로 가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스펠은 그에 반발하듯 고개를 모로 기울이며 카일러스를 노려보았다.

“평생 못 숨길 건 또 뭔데? 난 20년 넘게 비네시스가 아닌 레이덴트란 성으로 잘 살아왔어.”

“그거야 네가 유일무이하지 않을 때였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운 좋게 그 비네시스란 성을 내려 받지 않아 저주를 피한 황족은 너뿐이야.”

카일러스가 아스펠을, 정확히는 아스펠의 왼쪽 자안(紫眼)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보랏빛 눈은 오직 비네시스의 황족, 그것도 그 일부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지.”

“.....”

“너도 그걸 알고 있으니 여태 가리고 다녔던 것 아니었나?”

아스펠은 안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자색이 비네시스 황가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걸 안 건 마을을 떠난 후였다.

게다가 로웰이 항상 그녀의 왼쪽 눈을 가리는 건 쓸데없는 시비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만 했기에 아스펠은 지금까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뭐, 좋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어디 나 하나일까? 아니, 설령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모를까?”

얄밋지만 이어지는 카일러스의 말에도 아스펠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카일러스의 말이 옳았다.

둘 이상 알게 된 순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있을 수 없었다.

지금 아스펠이 카일러스를 통해 자신의 혈통에 대해 알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너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 같아?”

“.....너를 포함해서 말이지?”

입꼬리를 올린 카일러스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그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며 가슴에 손을 올렸다.

“너는 내가 너를 발견한 걸 행운으로 여겨야 할 걸. 나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을 바라는 이도 없을 테니까.”

“네가 바라는 게 뭔데?”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궁금함을 참기 어려워 아스펠이 물었다.

“네 호위 기사.”

스스로의 신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지라 답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는 순순히 제 목적을 밝혔다.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곁을 지키고 싶어.”

“.....”

“이 정도면 권력을 탐하는 다른 치들과는 욕망의 크기가 궤를 달리하지 않니?”

‘웁.’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말에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는 상상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일견 낭만적이고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달콤한 속삭임이었지만 이미 카일러스를 불호(不好)의 영역에 두고 있던 아스펠에겐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고백이었다.

아스펠은 카일러스의 속내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꽤 많은 정보를 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정작 그녀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관해선 단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제 정체가 무엇인지, 아스펠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또 호위 기사가 되고 싶으면서까지 그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인지 등.

아스펠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치들이 카일러스 같은 놈들이라면 그녀의 인생은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었다.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아스펠은 길게 한숨을 내쉬

었다.

카일러스의 말대로 평범하게 살기는 글렀다는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저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모든 건 내가 황위에 오르겠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니야?”

“뭐? 하! 너 지금 그걸 네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안 될 건 또 뭔데?”

갑자기 배를 잡고 웃음을 터트린 카일러스를 노려보며 아스펠이 말했다.

“황족이 아니면 황제가 되지 못한다는 법이라도 있나? 너야말로 내가 앓지 않는다고 그 자리가 평생 비워져 있을 거 같아?”

인간의 역사란 투쟁의 역사다.

국가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건 어떤 세계에서든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역사는 그렇지 않은데.”

아스펠은 그 사실을 몸소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열성왕이 서거한 이후, 아니 다른 황족들이 저주로 목숨을 잃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황위를 잇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일 거 같은데.”

“.....”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황족이 나타나는 걸 방해라고 생각될 정도로.....안 그래?”

아스펠은 카일러스의 얼굴에서 유들유들한 미소가 사라지는 걸 즐겁게 지켜보았다.

“.....후계자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의외네.”

다시 입을 연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긍정이나 다름없는 그 말에 이제는 아스펠의 입꼬리가 올라갈 차례였다.

“그래서 아스펠, 너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네가 로웰님의 복수를 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아스펠은 로웰의 복수를 원했다.

정말로 그녀의 하나 밖에 없는 가족이 누군가의 저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거라면 아스펠은 대륙 끝까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꼭 황제가 되어야만 복수를 할 수 있나?”

“너석은 황족을 노리고 있어. 황위에 오른다면 범인을 찾기 더 쉬울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불일 다 보고 쉽게 내던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잖아.”

“.....지금 네 평범한 지위와 빈약한 인맥으로도 그 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상대는 무려 황족을 저주한 인물이야.”

“왜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너야말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알아?”

“.....”

솔직하게 말하자면 카일러스의 말마따나 그녀의 현 신분과 지위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란 자신은 없었다.

하센의 도움을 받아 가일라프 상단의 모든 인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상대는 무려 대국 비네시스의 황족 전원을 저주한 인물이다.

보통 대단한 놈이 아니란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얼이 빠진 카일러스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자니 아스펠은 만족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신분이 진실로 어떻게든 카일러스를 신뢰하든 말든 미래를 생각지 않고 질러본 말은 이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값을 했다.

문득 아스펠은 자신이 생각보다 카일러스를 더 마음에 들지 않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소해하며 어떻게든 그를 더 약 올리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카일러스는 그녀에게 미운 살이 붙어도 보통 붙은 게 아니었다.

‘.....거의 최단기록인데?’

반년 전 산 상품을 새 상품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거나 물건을 훔치고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등의 가게에서 만난 진상들을 제외하면 최단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아스펠이 제 미움을 산 다른 지인목록을 머릿속으로 되짚는 동안 할 말을 잃고 났이 나가있던 카일러스가 또다시 웃음을 터트렸다.

대체 뭐가 재밌는 건지 폭소하는 그를 보며 아스펠은 ‘재 또 저러네.’ 라는 무덤덤한 감상을 떠올렸다.

“하.”

그러나 그런 그녀의 생각이 채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입에서 웃음이 뚝 그쳤다.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던 검도 회전을 멈추었다.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의 지독한 살기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당신 정말 걸작이야.”

아스펠은 그제서야 그가 검을 든 미친놈이란 사실을 상기했다.
서로 빈정대고 이죽대느라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는 아스펠보다 다리가 빠르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녀가 눈을 잠깐 깜빡인 사이 카일러스의 얼굴이 아스펠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아스펠은 남자의 어둡고 짙은 적안을 바라보았다.

붉은 속눈썹과 그 아래 비치는 자신의 놀란 얼굴까지. 그리고.....

[키에에엑!]

몇 분 전까지 들려오던 소름끼치는 비명이 아스펠의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틀어막는 사이 몸을 돌린 카일러스가 어느새 다시 그림자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괴물들을 बे기 시작했다.

“아스펠, 아무리 황제가 되기 싫다고 외쳐도 로웰님을 죽인, 황족을 저주한 범인은 당신이 이 나라에 있는 한 계속해서 당신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 비네시스 황족의 씨를 말리고 싶어 할테니까요.”

피와 비명, 그리고 검은 먼지가 다시금 사방에서 휘몰아쳤다.

분명 귀를 틀어막고 있었음에도 아스펠은 그 모든 소리들을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인 즉 이 마법 병사들은 당신을 평생 쫓아올 거란 뜻입니다.”

“.....”

“그러니 선택해주세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달려드는 마지막 괴물을 베어낸 그가 아스펠을 향해 말했다.

“선택해주세요.”

아스펠은 고개를 들어 카일러스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얼굴을 잡아 두고 있는 듯, 아스펠은 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새하얀 설원 위, 검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붉은 점은 그 자신만이 유일한 색인 것 마냥 빛을 발했다.

“이대로 영영 이 나라를 떠나 죽은 듯이 살아갈지.”

아스펠과 눈을 마주한 채 휘두른 검으로 또 하나의 마법 병사를 베어낸 그가 말을 이었다.

어째서인지 이제 아스펠의 귀는 괴물의 소름끼치는 단말마보다 낮게 속삭이는 카일러스의 목소리를 더 자세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귓가를 파고드는 속삭임에 아스펠은 순간 이대로 귀가 멀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는 사이 괴물들을 순무조각마냥 서경서경 베어버리던 카일러스의 검 끝이 어느새 아스펠을 향했다.

“그도 아니면 저와 함께 에틸렌으로 가 황좌에 오르실지.”

검 끝에는 방금 베어낸 괴물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빛을 받아 번뜩이는 검은 피에 젖어 있어도 그 광경만으로도 서늘하고 섬뜩했다.

"선택해주세요."

"....."

"폐하."

조각 같은 얼굴에 입꼬리만 올린 카일러스가 아스펠에게 대답을 종용했다.

'시발.'

역시 아스펠은 그가 싫었다.

새삼스럽게 그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웃고 있는 입매와는 다르게 차가운 남자의 적안과 마주한 아스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미친놈과 마주하고 있자니 입 안이 절로 바짝 말라왔기 때문이다.

5.

세상에 선택하란답시고 코끝에 검을 들이미는 또라이가 또 있을까?

누가 보아도 백이면 백, 이건 협박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스펠은 협박하고 있으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카일러스가 알미웠다.

보기보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남자는 훨씬 더 뻔뻔하고 재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상과는 다르게 아스펠은 이제 '정말로' 선택을 해야 했다.

아니 사실 선택이라고 말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다.

로웰이 살해당했다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카일러스가 그녀의 자색 눈을 황족의 증거라고 알려줬을 때부터 아스펠은 어느 정도 제 미래를 각오한 상태였다.

".....좋아요."

더군다나 그녀에겐 이 괴물들, 마법 병사들을 상대할만한 무력이 없었다.

제국을 떠나 죽은 듯이 살아갈 생활 기반도, 인맥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이 부당함에 굴복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황제가 될게요."

게다가 은근슬쩍 그녀를 다시 '폐하' 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시작한 카일러스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꼬왔다.

반반한 얼굴과 가면을 쓴 듯한 그림 같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스펠은 입안을 꼭 깨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국에 남은 유일한 비네시스 혈통이 저뿐이라니, 어쩔 수 없죠."

'그래, 황제가 되고자 하는 대의적인 이유는 이걸로 밀고 나가자.'

마음에 티끌도 없는 소리를 뱉으며 아스펠이 턱을 치켜 올렸다.

“대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폐하.”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자아낸 아스펠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눈을 깜빡이던 카일러스가 이내 환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휘어진 눈꼬리와 부드럽게 올라간 입매가 봄날의 꽃망울이 피어날 듯 눈부셨지만 아스펠은 저 미소가 잘 씌워진 가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지 오래였다.

‘우웬.’

다시 한 번 속으로 구역질을 뱉은 그녀는 카일러스를 향해 손가락 끝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럼 폐하,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꿇어요.”

“네?”

어차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황제가 되어야 한다면, 어차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게 될 운명이라면, 어차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길을 걸어야 한다면 아스펠은 차라리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타인이 깔아준 레일 위를 고분고분 걷는 건 순진했던 전생의 삶으로 족했다.

“꿇으라고요. 저, 항족이잖아요?”

아스펠은 불가항력의 운명은 존재해도 바꿀 수 없다는 미래가 있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스펠은 가난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로웰과 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가일라프 상단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하센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검도 내리세요.”

그러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아스펠은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카일러스를 제 발 아래 두기로 했다.

“앞으로 당신 상사가 될 사람한테 대체 어제까지 흥기를 들이대고 있을 생각인 건가요?”

“.....”

그녀는 직장에서 마주한 진상 귀족들의 고압적인 행동을 흉내 냈다.

많이 보고 들어온 덕인지 말투 정도는 제법 그럴싸했다.

일평생을 평민으로 살아왔을 그녀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는지 카일러스의 몸이 딱 굳었다.

‘이대로 당하고는 못살지.’

환생한지 21년, 전생의 경험과 현생에서의 삶을 통해 세운 아스펠의 좌우명은 ‘당하고 살지 말자.’ 였다.

그 때문에 작게는 데미안과 치고 박고 싸우고 크게는 상단 손님들에게 험한 꼴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아스펠은 여전히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리고 카일러스의 크게 뜨인 눈과 벌어진 입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선택이 잘못 된 것 같지 않아 아스펠은 배부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울타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편지를 쓰고 있던 아스펠은 모서리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한 편지지를 보곤 고개를 들었다.

어느덧 동쪽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 걸려 있던 달은 가라앉을 준비를 하며 서서히 그 빛을 잃었고 해를 따라 발강게 변한 하늘은 점점 사방을 눈부신 빛으로 물들었다.

아스펠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편지를 확인해보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사과와 그간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안부를 전하는 인사말까지.

근래 들어 아스펠이 쓴 편지 중 가장 예의바르고 격식에 맞는 완벽한 편지였다.

물론 수신인인 가일라프 상단의 장, 하센이 납득할 것 같지 않다는 걸 제외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말이 편지이지 이건 사직서나 다름없었다.

아스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센이 이 사표를 순순히 수리해 줄 것 같지 않았다.

튼금없는 건 둘째 치고 로웰이 돌연사 해버린 이 때 그녀를 조카처럼 아끼는 그가 아스펠이 홀로 지내는 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외에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 걸.’

카일러스의 머리꼭지를 실컷 구경한 뒤 아스펠은 마을 사람들에게겐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산을 내려왔다.

고향에 오는 건, 로웰의 무덤을 마주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언제 어디서 그림자 속에서 솟아난 마법 병사들이 다시 그녀를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스펠은 사랑하는 그들까지 저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아.”

출생의 비밀이 대체 뭐라고 꿀 같던 직장에 원치 않은 사표를 던지고 고향 땅에서 떠나야 하는 건지 원.

복잡한 자신의 현 상황에 아스펠이 길게 한숨을 뱉을 때였다.

“아스펠.”

곰게 접은 편지를 편지지에 맞게 집어넣자마자 다그닥, 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나직한 목소리가 아스펠의 오른쪽 귀를 건드렸다.

고개를 돌리자 건강해 보이는 회색 말을 끌고 오는 장신의 남자, 카일러스가 그녀의 눈에 비쳤다.

“.....진짜로 구해왔네요.”

“구해오겠다고 했으니까요.”

산을 내려온 그들은 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 중 가장 큰 규모의 마을에 발을 들였다.

아스펠은 하센에게 편지를 부치기 위해, 그리고 말이 없는 카일러스는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대체 말도 없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마차를 얻어 타면서 왔지요.”

“.....다들 당신을 순수히 태워주던가요?”

“물론이죠.”

입가에 걸린 그의 유들유들한 미소를 보며 아스펠은 의심스럽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기준으로 이렇게 수상쩍기 그지없는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할 거 같은데 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지 카일러스는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말을 얻어왔다.

제 입으로 말을 살만한 소지금이 없다는 소지품, 그러니까 검이라도 판 줄 알았

는데 긴 장검은 여전히 카일러스의 허리에 잘 매달려 있었다.

‘말도 이런 작은 마을에서 구한 것 치곤 꽤 괜찮은데.....’

이마에 커다란 흰 반점이 있는 말은 아스펠이 콧잔등에 손을 올려도 눈만 깜빡이는 게 퍽 유순해보였다.

다리도 튼튼해 보이고 털에도 윤기가 도는 게 가만 보면 아스펠이 지금 타고 있는 말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다.

‘정말이지, 이런 말은 대체 어떻게 구한 거지? 헉! 설마 훔친 건 않았겠지.....’

말 등 위에 제 짐을 얹고 있던 카일러스는 대놓고 수상쩍다는 기운을 팍팍 풍기는 아스펠의 눈을 보곤 어째서인지 만족스럽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뭔가 하실 말씀이시라도?”

“.....말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이 새벽에 어디서 이런 상등품의 말을 사올 수 있었나요?”

“안 샀어요.”

“네? 역시 훔쳤.....!”

“아니에요.”

화들짝 놀라 주변을 경계하는 아스펠의 모습에 이번엔 카일러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라서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일단 다시 한 번 무릎 꿇어볼래요? 그럼 알지도 모르잖아요."

"....."

현재 아스펠과 카일러스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황제로 섬기며 그녀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키고 아스펠은 황제가 되면 그를, 그만을 자신의 전속 호위기사로 삼는다는 것이다.

눈치를 보아하니 전속 호위 기사는 여럿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카일러스는 오직 자신만을 그녀의 유일로 삼아달라고 했다.

이유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스펠은 그러겠다고 했다.

현재 카일러스의 도움 없이 무사히 제국의 수도, 에틸렌까지 다다를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스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황제가 된 이후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스펠은 황위에 오를 때까지 카일러스가 내건 조건은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섬겨야 하는 몸으로서 그녀가 원할 때마다 머리꼭지를 아스펠의 허리 아래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저를 신뢰하지 않는 폐하를 향한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러한 계약을 먼저 제안한 것은 카일러스의 쪽에서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제 노력의 대가는 나중에 지불해주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네, 저는 이미 제 신뢰를 폐하께 걸었습니다."

인감과 도장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만큼 위태롭고 허무하지만 지켜진다면 그것만큼 단단한 계약도 없었다.

그녀로선 잃을 것도, 손해를 볼 것 같지도 않아 순순히 수락하긴 했지만.....

‘도박 한 번 크게 거네.’

만약 서로가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아스펠은 카일러스 같은 수상쩍은 인물을 상대로 절대 이런 내용의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카일러스에게 있어 이 계약은 걸린 판돈이 꽤 크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려고 그런 계약을 제안한 건 아니었는데.”

상념에서 깨어 고개를 들자 일그러진 카일러스의 얼굴이 보였다.

잔뜩 찌푸려진 그의 미간은 제 입에서 시작된 계약 내용을 저주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난 이러려고 계약을 수락한 건데?”

“.....”

한층 더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아스펠은 누가 참깨 한 움큼을 제 입에 넣은 듯한 고소함을 느꼈다.

그와 반대로 카일러스의 인상은 점점 더 험악해졌는데 이미 원할 만큼 카일러스를 놀린 아스펠은 이정도로 만족하기로 하고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래서 훔친 게 아니라면 그 말은 진짜로 어떻게 구했는데요?”

“어느 친절한 아가씨가 공짜로 양도해줬어요.”

“네? 왜요?”

‘당신의 뭘 보고?’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아가씨, 어딘가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냐.’ 는 말을 삼킨 아스펠이 물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놀라서 크게 뜨인 그녀의 눈을 본 카일러스는 이미 아스펠의 속내를 대충 짐작해 낸 듯 했다.

한쪽 입꼬리를 비뚜름하게 올린 그가 부러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건 영업비밀입니다.”

“뭐?”

“저는 유능하거든요.”

뻘뻘한 그 말에 아스펠은 순간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눈을 깜빡였다.

“폐, 아니 아스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산 아래선 폐하라는 호칭을 절대 쓰지 말라는 아스펠의 당부를 떠올렸는지 황급히 말을 바꾼 카일러스가 부드럽게 눈을 휘며 말했다.

“저 같은 유능한 부하를 뒤흔 행운이라는 것ですよ.”

“우웬.”

아스펠은 이제 진짜로 헛구역질을 했다.

재수없고 능글맞은 모습에 이어 잘난 척까지 하는 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녀가 혀를 내밀며 헛소리 말라는 표정을 지어도 카일러스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피력하며 모든 여행길의 안전을 자신에게 맡겨두라 말하는 강한 자신감을 풍겼다.

“빨리빨리 움직여, 이 굼벵이 같은 놈들아!”

“악!”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네 시간 후, 아스펠과 카일러스는 감옥에 갇혔다.

“이런 시기에 신분증도 없이 성문을 지나려하다니 간도 크군.”

“저기요, 간수님? 전 신분증 있는데요?”

“아스펠 레이덴트? 흥, 이 이름이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

“너 같이 신분을 위조한 녀석이 신분증 없는 녀석의 신원을 보증하며 도시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일인 줄 알아?”

이게 전부 아이시스에 신분증을 두고 온 카일러스 때문이었다.

신분증이 없는데 검까지 차고 있어 수상쩍은 인물로 낙인찍힌 카일러스 때문에 덩달아 위험인물이 된 아스펠은 원망스런 눈빛을 담아 그를 노려보았다.

‘대체 뭐가 모든 여행길의 안전을 자신에게 맡기란 거냐아악!’

에틸렌, 아니 아이시스에 당도하기 전에 교수형부터 당하게 생겼다.

아스펠이 속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이 제가 지은 죄를 알긴 하는 모양인지 카일러스가 그녀의 눈을 피해 슬쩍 시선을 돌렸다.

만약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살인죄로 사형당하리라.

남몰래 그런 다짐을 하며 아스펠은 더더욱 사납게 카일러스를 노려보았다.

분노서린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나뿐인 그녀의 붉은 눈에선 끊임없이 불꽃이 튀었다.

6.

아이시스는 수많은 도시의 가교가 되는 제국 비네시스의 거점으로 특히 상업적으로 번영한 대도시였다.

현재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아이시스로 가기 위해선 최소 세 개의 도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문제는 그녀의 동행인, 한심한 카일러스에게 신분증이 없었다.

마음 같아선 상단의 말단으로 그를 위장시키고 싶었지만 사표까지 쓴 주제에 상단의 신세를 지기엔 아스펠의 배짱이 부족했다.

“방금 붙인 사표가 벌써 수리되었을 거 같진 않는데요.”

“이런 건 기분의 문제죠.”

왜 쓸 수 있는 걸 쓰지 않느냐고 묻는 카일러스에게 답하자 순간 그의 얼굴 위로 ‘아, 예 그러십니까.’ 라는 문장과 함께 그녀를 한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스쳐지나갔다.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는 고생인데!’

아스펠은 마음 같아선 무력으로 그 피부위의 글자를 몸소 지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의 법칙이란 언제나 세치 혀 보단 주먹이, 주먹보단 칼이 더 센 법이다.

계약으로 나름의 우위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신뢰가 바탕인 이상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판 같은 약속이다.

아스펠은 카일러스를 아직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녀는 데미안에게 하던 것처럼 손을 뻗는 대신 그의 허리에 달린 검을 원망스럽게 한 번 흘겨본 뒤 제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굴렸다.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 가일라프 상단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이 일은 하센의 귀에도 들어갈 터였다.

사직서를 던진 아스펠이 낯선 남자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나올지.....

그녀는 그 이상을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아, 그리고 보니 당신 성이 아이기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 때 번뜩 떠오른 기억에 아스펠이 반색하며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카일러스는 당황했는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얼굴로 말을 흐렸다.

“그걸로 어떻게 할 순 없을까요?”

“음.....”

“무려 개국공신 가문의 자제인 거잖아요! 권력이란 이럴 때 쓰는 거죠. 안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고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은 곤란하네요.”

“왜요?”

“서류상으로 저는 지금 이곳에 있어선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 있어야 하는데요?”

“공적으로 카일러스 폰 아이기스는 현재 아이시스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

기가 막혀서 ‘왜?’ 라는 물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활자 속 카일러스가 아이시스에서 대체 뭘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스펠의 눈앞에 있는 그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온 상태란 뜻이지 않는가?

‘설마 신분증을 아이시스에 두고 나온 것도 계획된 일인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아스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아이시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그야 물론 아스펠 님을 지키기 위해서죠.”

“아무 말 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까지요? 전속 호위기사 자리에 꿀 발라 났어요? 그 자리가 뭐라고 도둑고양이마냥 몰래 빠져나오면서까지 저를 지키는 건가요?”

“.....”

코웃음 치는 아스펠의 물음에 카일러스는 슬쩍 눈을 피하는 걸로 대답을 회피했다.

어쩌면 호위 기사 자리가 아닌 유일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입이 조개처럼 꼭 닫혀 있는 한 아스펠이 그 사실 여부를 알아낼 일은 영영 없을 것이다.

“흠.....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검문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행렬을 바라보던 아스펠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말이 사실이면 저는 지금 이 제국에서 최중요인물일 텐데 왜 제가 슬금슬금 남의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문의 출입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할 지 따

위를 고민해야 하죠?”

가만히 따지고 보니 억울했다.

고민하는 아스펠의 분위기에 동조한 카일러스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 했는데 정말 그녀가 황족이라면 이깃 성문 따위, 검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통과하시게요?”

“제가 이 나라의 차기 황제라고 말해야죠 뭐.”

“제가 당신을 ‘폐하’ 라 불렀을 때 당신께서 뭘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

아스펠은 카일러스를 미친놈이라 취급하며 도망쳤던 과거를 떠올렸다.

아마 아스펠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문의 경비병도 분명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임이 틀림없었다.

다른 점은 미친놈에게서 달아나려던 아스펠과는 다르게 경비병들은 손에 무기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안대로 가려진 제 왼쪽 눈을 가리키며 아스펠이 물었다.

“황족의 특징이라면서요.”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자안(紫眼)은 일부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이니 경비병들은, 아니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제서야 아스펠은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떠올렸다.
그녀가 황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아니, 나름 증거랍시고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있긴 했지만 남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빌어먹을 증거부족.’

아스펠은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렸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상황도, 혈통도, 빌어먹을 카일러스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증명되고 확인된 게 없었다.
명백하게 그녀를 노리는 마법 병사들의 이빨만 아니었어도 과거, 로웰이 색이 다른 왼쪽 눈에 대해 유난을 떨지만 않았더라도 아스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어찌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카일러스의 날렵한 옆얼굴을 보며 아스펠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내 신분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일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귀족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오.”

그건 꽤 좋은 생각이라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일종의 지지세력을 만들어두겠다는 게 아닌가?
이해관계야 어찌됐든 아무 기반이 없는 아스펠에게 약간이나마 기반을 생기는 건

썩 나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카일러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아스펠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왜 다른 귀족이에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그녀의 고개가 모로 기울어졌다.

“당신의, 그러니까 아이기스 가문은 어찌고요?”

“.....”

‘아, 젠장.’

변함없이 그녀를 돌아보지 않는 카일러스의 얼굴을 보며 아스펠은 불현 듯이 깨닫고 만다.

‘아이기스 가문에선 이미 황제로 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아스펠은 그제서야 왜 카일러스가 남의 눈을 피해 아이시스에서 빠져나온 건지, 왜 지금도 계속 신분을 감추고 있으려는 건지 납득했다.

어째서인지 카일러스는 제 가문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

그에겐 가문의 이득과는 별개로 그 스스로가 바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를 위해 아스펠을 찾아 나섰던 거다.

욕망에 의한 필요.

가장 흔하고 단순하면서도 골치 아픈 이야기였다.

잠시 고민하던 아스펠은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선 카일러스에게 답을 캐묻는 걸 포기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의 개인적인 욕망까지 신경 쓸 틈은 없었다.

‘당사자도 이에 관련해 순순히 대답해 줄 리도 없을 것이고.....’

잠시 후, 팔짱을 낀 채로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던 아스펠의 입이 다시 열렸다.

“당신, 혹시 이 일을 혼자 계획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영 소개처럼 꼭 닫혀 있을 것 같던 입술이 방향을 튼 아스펠의 물음에 열렸다.
그 모습이 꽤 알미웠지만 지금은 태클을 걸 시간조차 아까웠다.

“나를 찾아 황제로 올리겠다는 그 장대한 계획 속에 다른 협력자는 없냐고요.”

아스펠의 존재를 알아내고 조사하며 황족인 그녀의 후견인이 되어줄만한 귀족을 찾는 그 수많은 일을 전부 카일러스, 그 혼자서 해냈을 리 없었다.

카일러스는 이와 관련해 입도 병긋한 적 없지만 아스펠은 그에게 최소 몇 십 명의 협력자가 있을 거라 짐작했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보고 신탁이란 소리를 뱉은 적 있었다.

이는 신탁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인데 신탁을 내릴 정도의 신탁이라면 꽤 고위직이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면 편지 한 통으로 그들을 아이시스까지 프리패스 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한편, 아스펠의 입에서 협력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고개 돌린 카일러스의 눈은 크게 뜨였다.

마치 그 단어가 아스펠의 입에서 나올 거라곤 예상치 못한 얼굴이었다.

“정말 로웰님에게 후계자 교육을 받은 적, 없으십니까?”

“에?”

“일생을 평민 신분으로 지내셨다기에는 사고가 좋으시네요.”

“.....”

나직한 카일러스의 말에 아스펠의 눈매가 바로 사나워졌다.

‘저거 지금 내 머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다고 욕하는 거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엇, 제가 지금 소리 내서 말했나요?”

“.....아뇨.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아스펠은 황급히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 보았지만 그런다고 카일러스가 지적인 표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리 없었다.

골치 아프다는 듯이 긴 한숨을 뱉어낸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달래듯이 말을 이었다.

“이런 종류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과정을 거치는지 잘 알고 계신 듯한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나요?”

“그러셨습니다. 아마 당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의 전 직업이 상인이 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카일러스는 아스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기에 그를 올려다보기 위해선 꽤 고개를 젓혀야 했다.

목은 아팠지만 진지한, 그리고 꽤 놀랐다는 감정이 섞인 카일러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아스펠은 입술 사이로 비실비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내가 네 정곡을 꽤 찔렀다는 뜻이네?”

“.....”

카일러스가 반말을 쓸 때만 똑같이 예의 없이 굴려고 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놀려먹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예의를 집어던진 아스펠이 목소리에 웃음기를 숨기지 않은 채 히죽거렸다.

“심장이 철렁했나봐?”

“.....그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기 전에 어떻게 해야 저 성문을 통과할 수 있을 지부터 고민하는 게 어때?”

카일러스도 지고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아스펠이 말을 놓자마자 대뜸 그도 말을 반토막냈다.

“이러다 해가 지겠어.”

“방금 고민했잖아. 우릴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가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굳어진 카일러스의 입술이 소리 없이 몇 번 빙긋거리는 걸 본 순간 아스펠은 그 답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가 깨달음을 얻은 것보다 한템포 늦게, 카일러스의 입이 벌어졌다.

“.....없어. 적어도 지금은.”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도와준다고 말한 사람은 있지만 속내를 알 수 없다거나 그들 중 이 사태를 해결해 줄만한 권력을 가진 이는 없다거나 힘은 있지만 아스펠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 위에 오를 생각은 없다거나 등.

‘어쨌거나 있기는 있다는 거네.’

있다는 것에 안도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였다.

예상대로의 대답에 아스펠은 목소리가 급격하게 작아진 카일러스를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정말 쓸모없네.”

“.....”

자칭 유능한 부하 카일러스의 입이 다시 다물어졌다.

“가진 권력도 인맥도 못쓰는데 대체 네 어디가 유능하다는 거야? 나한테만 뭐라 하지 말고 너야 말로 고민해봐. 신분증이 없는 건 너잖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정말 정말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이 카일러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뭐? 방법이 있어? 그럼 왜 여태 이야기 안했어?”

그 방법이 뭐냐고, 왜 여태 입을 다물었냐는 아스펠의 질문에 그는 지금까지 이 방법 외에 다른 수를 떠올리기 위해 고민했다 답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네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확신하는 카일러스의 말에 눈살을 찌푸린 아스펠이 말했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후회할 텐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뭐든 써야지. 네가 한 말이잖아?”

“그래, 그럼 후회해라.”

지금 이 순간 아스펠이 간과한 사실이 딱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건 첫째로 계약내용과는 별개로 카일러스는 아스펠이 딱 그를 싫어하는 만큼 그녀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인 즉 두 번째, 카일러스가 아스펠과 함께 했을 때 질색할 만한 일은 아스펠, 그녀 역시 질색할 거란 뜻이다.

“다음! 두 사람인가?”

경비병의 부름에 차례를 기다리던 아스펠과 카일러스가 앞으로 나섰다.

입가에 수염이 덩수룩한, 나이 꽤 있어 보이는 남자는 눈대중으로 그들을 한 번 힐끗 본 뒤 방금 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해도 몇 십 번 반복했던 말을 되 읊었다.

“이름과 방문목적,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라.”

“저는 아스펠 레이덴트고, 이쪽은 카일러스 레이덴트예요. 방문 목적은.....”

“신혼여행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운 카일러스가 아스펠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옆으로 살짝 당겨 몸을 밀착시켰다.

“지난 주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저희.”

“.....”

귓가에서 울리는 더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아스펠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카일러스가 웃었다.

그녀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7.

뜻하지 않게 아스펠은 마을의 아가씨가 왜 카일러스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선뜻 건네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림으로 그린 듯한 아름다운 얼굴과 입가에 걸린 매혹적인 미소, 다정한 태도와 녹아내릴 것 같은 상냥한 목소리.

“결혼했다고? 축하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신혼여행을 이런 도시로 오나?”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가는 길입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든요.”

“저런, 자식의 경사에 참석하지 못하다니 그거 참 안타깝군. 그래서 어디까지 가 시나?”

“아이시스입니다.”

“흠, 제법 먼 길이로군. 고생하는구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길인 걸요.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허허, 이 양반 애처가군! 부인께선 행복하시겠어!”

“.....”

그녀는 속았다.

그 가없고 순진한 마을 아가씨는 카일러스의 세치 혀에 홀라당 속아 넘어 간 게 틀림없었다.

카일러스의 연기에 흠뻑 빠진 나이드는 경비병을 보며 아스펠은 확신했다.

“아뇨, 그녀가 제 옆에 있으니 제가 더 행복할 따름이죠.”

“.....”

“저는 그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꽃이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아스펠을 바라본 카일러스가 그녀의 검은 머리칼에 입술을 문었다.

아스펠은 토하고 싶었다.

“금슬이 좋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지. 아, 그런데 신분증이 부인 것 하나뿐이군.”

“부끄럽지만 길을 서두르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에게 정신이 팔려 챙기는 걸 깜빡한 건 아니고?”

“하하, 부끄러우니 잃어버린 걸로 여겨주세요.”

새삼스럽지만 카일러스는 정말 연기를 잘했다.

꺾다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들 사이에 끼어 입 한 번 병긋 못하고 있던 아스펠은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카일러스는 제 성질을 감추는 데 능숙했다.

본심을 마주하기 전까지 능청스럽고 자연스러웠던(그랬기에 더더욱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아스펠은 다시금 감탄했다.

‘어떻게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저런 거짓말을 하지.’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녀로선 도무지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들어서면 다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흠, 그래도 규정상 신분증이 없는 이를 마을에 들어간 어렵네. 혹시 자네의 신분을 증명할 다른 물건은 없는가?”

“없습니다. 보증인이 되어줄 아내 밖에는.....”

“그거 곤란하군. 다른 때라면 그 정도만으로 넘어가 주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비네시스 제국에서는 황제 서거 시 국법에 의해 도시 간 이동이 극도로 까다로워진다.

황제가 없는 틈을 타 일어날 불온한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강화된 검문에선 신분증과 소지품을 검사하는 건 기본이었고 지금까지의 이동경로와 최종 목적지, 그리고 이동사유를 일일이 기록해야 했다.

때문에 이 시기, 생계와 관련된 이유가 아니고서야 여행을 강행하는 이는 드물었다.

신분증과 (아직은 효력을 발휘하는)신분보증서, 그리고 긴급통행증까지 있는 아스펠이 성문을 통과하는 건 누워서 식은 스프 마시기였지만 역시 문제는 수중에 있는 게 검 한 자루뿐인 카일러스였다.

아스펠은 문득 그가 어떻게 빈손으로 아이시스에서 그녀의 고향까지 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어떻게 안 될까요?”

“안타깝지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통행 제한이 풀리는 걸 기다리는 건 어떤가? 한 달, 아니 적어도 삼 주 후라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떠나기 전에도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신지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 어머니가 그렇게 위독하신데 결혼식을 강행했단 말인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놀라 나무라는 경비병의 말에 카일러스의 짙은 눈썹이 팔자로 내려갔다.

내려간 눈꼬리가 어찌나 처연하던지 진실을 아는 아스펠조차 그가 만들어낸 거짓된 슬픔에 가슴이 찢르르 울릴 정도였다.

“이 사람에게 스토키가 붙어있었습니다.”

“뭇이라?”

“매일 같이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건 물론이고 불건전한 연서와 협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어, 그런 몸쓸 일이!”

마지막 말은 경비병이 아닌 그들의 뒤쪽, 그러니까 검문을 위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틈에서 들려왔다.

‘아니 대체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데?’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흥미진진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더니 그들에겐 카일러스의 (지어낸)비극이 무척이나 재밌는 모양이다.

“물론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만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아스펠의 손을 양 손으로 꼭 움켜쥔 카일러스가 은근슬쩍 팔꿈치로 그녀의 옆구리를 찔렀다.

갑작스런 고통에 반발하며 아스펠이 고개를 들자 새빨간 눈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무언의 의사를 전했다.

아스펠은 그제서야 자신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카일러스의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치를 받고 나서야 아스펠은 그와 마찬가지로 슬픈 척 고개를 떨구었다.

“황제 폐하의 서거 소식을 들은 건 결혼식 이후였습니다. 만약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결혼식은 고향에서 올렸을 겁니다.”

“으음.....”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어머니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아내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조차 후회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인지라.....”

“경우도 염치도 없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부디 선처해주세요.”

절절한 애원과 함께 잠시 품 안으로 들어간 카일러스의 손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짤랑 소리를 낸 손바닥보다 작은 가죽 주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 카일러스가 붙든 경비병의 손 안으로 들어갔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허허, 아니 이 사람이.....”

곤란하다 말하면서도 카일러스에게 손이 붙잡힌 그 순간부터 경비병의 입꼬리가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었다.

상인인 아스펠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깨달았다.

카일러스가 저 남자에게 돈 주머니를 건넨 것이다.

말을 살 돈이 없다더니 경비병에게 뇌물로 줄 돈은 있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애초에 일이 이렇게 될 거란 계산 하에 처음부터 말 살 돈이 없다고 했던

건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못 볼꼴이었다.

“흠흠,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자네의 처지가 워낙 딱하니 어쩔 수 없군. 이번 뿐일세.”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네시스는 영토도 거대했고 아를로시안 대륙에서 손에 꼽히는 강자였지만 그런 강대국에도 뇌물이 오가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약 200년 전부터 뇌물과 관련된 처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열성왕 다일레프는 말년에 여색을 밝힌다는 소문이 조금 돌긴 했지만 폭거를 일삼는 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군도 아니었기에 그의 치세 동안 뇌물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들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현상을 유지했다.

“정말입니까?”

“그래. 대신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꼭 신분증부터 다시 만들게. 알았나?”

“그러겠습니다. 자애에 감사드립니다.”

‘우웬.’

아스펠은 이러한 일들이 질색이었다.

그녀는 하센이나 다른 선배들이 경비병이나 귀족들에게 크고 작은 뇌물을 건넬 때도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곤 했다.

아스펠이 손님과 자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상단의 회계사로서 서류 작업에 파묻히게 된 데에는 이러한 뒷배경이 있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다르게 받아들이 리 없었다.

“.....표정 좀 관리하시죠.”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비병이 몸을 돌린 사이 꿀이 다 증발한 메마른 평소의 목소리로 돌아온 카일러스가 작게 소곤거렸다.

“내 표정이 지금 어떤데?”

“적어도 갓 결혼한 행복한 신부가 지을 표정은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역겨워.”

“이런 거라뇨? 신부인 척 하는 거? 그도 아니면 무사히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거?”

“.....방금 한 말 취소할게. ‘이런 거’ 가 아니라 ‘이런 것들’ 이 역겨워.”

“항위에 오르시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덜 역겨워질 수 있을 겁니다.”

카일러스는 아스펠에게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적어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 조언했다.

사실 말이 조언이지 도움이 안 될 거면 적어도 자기 일을 방해는 하지 말라는 핀잔이나 다를 바 없었다.

불만 가득한 아스펠이 고개를 숙이는 사이 허가증을 가져온 경비병이 그것을 카일러스에게 건네주었다.

상황은 짜여 맞춰진 듯 매끄럽게 흘러갔다.

이에 아스펠은 일이 잘 풀렸다고 기뻐해야 할지 뇌물로 해결된 상황에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카일러스는 감사인사를 건넸고 경비병은 잘 가라며 손을 흔들었으며 카일러스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은 그들의 여행길이 무사수탈하길 기원했다.

“선배님! 교대시간입니다!”

그 때 멀리서부터 뛰어온 젊은 경비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검문소 안으로 들어왔다.

교대 시간이라는 말에 나이든 경비병은 온 몸으로 기쁜 티를 내었고 젊은 경비병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어, 당신?”

“.....음?”

한 편 허가증을 받아든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니, 벗어나려 했다.

투구를 벗고 흐르는 땀을 닦고 있던 젊은 경비병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앞을 가로막지만 앉았다면 그리 했을 것이다.

“역시! 당신, 아니 너 이 자식!”

“.....!”

생김새를 확인해보듯 그의 위아래를 훑어보던 젊은 경비는 이내 크게 노한 얼굴로 카일러스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그 날 노름판에서 가져간 내 신분증을 대체 어디다 쓴 거냐, 이 사기꾼아!”

“아, 너는 분명.....”

“너 때문에 내가 아이시스에서 무슨 꼴을 겪었는지 알아? 이 개자식! 네가 벌인 일 때문에 이런 변경 도시에까지 좌천 되고 내 인생은 망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아?”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누가 채 말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젊은 경비병의 말에 겨우 남자의 얼굴을 알아본 듯한 카일러스를 제외하고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눈만 꿈뱉거렸다.

“진정하게 마이크. 이게 대체 무슨..... 이 남자를 아는 건가?”

“예 알지요. 아주 잘 알고말고요!”

젊은 경비병, 마이크가 분통을 터트리며 카일러스를 노려보았다.

“선배님께서도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 들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신분증으로 네 행세를 하며 말이란 식량, 무기를 훔쳐갔다던.....”

“네, 그게 바로 이 놈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때 이후로 이 잊어버린 적이 없는 얼굴이니까요!”

“그럼 결혼식은.....아니, 고향에 아픈 부모가 있단 말은.....”

“하, 이 놈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속으신 겁니다! 이 놈은 분명 노름판에서 자기는 부모가 없다고 떠들어댔다고요!”

상황은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다.

늙은 경비병은 감히 자길 속였냐며 마구 화를 내었고 젊은 경비병은 부모를 걸고 맹세컨데 사기를 치지 않겠다는 카일러스의 말에 속아 신분증을 비롯해 모아둔 돈을 전부 잃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카일러스는 그런 마이크를 비웃으며 병신도 아니고 그딴 거짓말에 속는 네가 바보라고 말했다.

“.....”

아스펠은 그들 중 누구도 더 혐오스러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구경꾼은 아까보다 더 늘어나 있었다.

절로 이는 두통에 그녀는 결국 이마를 짚었다.

8.

‘확실히 어떻게 그가 신분증도 없이 아이시스에서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하긴 했는데.’

“내 인생 물어내, 이 사기꾼!”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진 않았어.’

사방에 울려 퍼지는 고함과 울음소리,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분명한 코웃음소리에 아스펠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런 개판을 눈앞에 두는 건 작년 망년회 때 레일리아가 자신의 신작 요리를 선보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게다가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알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고.....’

우연이 두 번씩이나 일어날 리 없으니 이건 필연이었다.

‘.....무슨 이딴 운명이 다 있냐.’

이런 식이라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무슨 일이냐!”

아스펠의 망상이 가속화하며 점점 현실과 동떨어지고 검문소 주변의 구경꾼들도 점점 늘어나 두터운 띠를 만들게 될 무렵, 누군가 사람들을 가르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주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어깨가 넓은, 커다란 남자였다.

그는 성의 경비병들과 같은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엔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허리엔 멋들어진 커다란 대검을 소지하고 있었다.

“히익, 대장님!”

남자를 발견한 두 경비병의 몸이 절로 굳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진데다 경비병들에게 대장이라 불리는 걸 보니 그가 이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모양이다.

영딩이가 무거워야 할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소란이 멀리서도 눈에 뵈 만큼 꽤 커졌다는 걸 의미했다.

“속임수를 써서 몰래 검문소를 지나가려 했던 녀석들입니다.”

“게다가 저 남자는 제 신분증을 훔쳐간 녀석이에요!”

“세치 혀를 능수능란하게 놀리는 게 아주 악질입니다.”

“신분증을 훔친 것도 모자라 여러 성에서 제 신분을 도용해 군수물자를 빼돌리기 까지 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해요!”

두 경비병이 앞 다투어 자신들의 상사에게 여태까지의 일을 편파적으로(그러나 사실적으로)전하는 동안 아스펠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카일러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

“빨리 일어나. 바닥 차가워.”

경비병들을 노려볼 때만해도 독기서린 눈으로 입가에 조소를 띠던 카일러스는 아스펠과 눈이 마주하는 순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안한 것 같기도 했고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으며 또 한 편으로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아스펠은 지금 카일러스가 느끼고 있을 그 모든 감정을 꿰뚫어보았다.

이런 자신에게 스스로도 놀랐지만 실제로 그러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아스펠 역시 카일러스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터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미안하고 상대에게 이런 꼴을 보인 게 수치스러웠을 거고 뻔뻔한 경비병들의 행태엔 화가 났을 터였다.

“저런 녀석들은 해충입니다! 살아 있어봤자 도시에, 아니 이 제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마이크의 말이 맞습니다, 대장님.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닐지 모릅니다.”

“굳이 대장님이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 녀석 따윈 제가 한 번에.....!”

카일러스에게 신분을 도용당해 대도시에서 근무 자격을 박탈당한 젊은 경비병, 마이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허리에 찬 검을 빼들었다.

그의 눈엔 명백히 사적으로 보이는 감정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카일러스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주고 있던 아스펠은 그러한 젊은 경비병의 행태에기가 막혀 왔다.

스스로가 정의의 사자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구는 꼴이 더는 못 봐줄 지경이었다.

“뭐야, 동료라고 지금 감싸는 거냐?”

아스펠은 카일러스의 앞을 막아섰다.

검 끝 앞에선 아스펠의 모습에 놀란 카일러스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며 입을 열었지만 그보다 아스펠의 팔꿈치가 그의 복부에 꽂히는 게 더 빨랐다.

꽤 힘을 주어 가격한 탓인지 단발마와 함께 카일러스의 입이 다물어졌다.

정확히 아스펠이 바라던 대로였다.

“비켜! 너도 저 녀석과 같이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 아닌 거면 지금 당장.....!”

“그건 대체 뭘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죠?”

아스펠은 그녀에게 검을 겨누는 마이크를 한 번, 팔짱을 낀 채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경비 대장을 한 번, 그리고 사방을 빼곡하게 메운 주변 사람들을 한 번 둘러 보았다.

수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된 탓에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인지 머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전했다.

“게다가 대체 언제부터 당신 같은 일개 경비병에게 즉결처분권이 생긴 거죠? 이 도시에서는 경비병이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 녀석은 내 신분증을 훔쳐 도용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중죄야!”

“신분증을 훔쳤다고요? 아까랑 말이 다른데요.”

“뭐?”

“아까는 분명 부모를 걷고 맹세컨대 사기를 치지 않겠다는 녀석의 말에 속아 ‘신분증을 비롯해’ 모아둔 돈을 전부 잃었다고 했잖아요.”

“.....”

“그건 제 동료의 사기로 모아둔 돈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잃었다는 뜻이고 그 말인 즉 당신, 판돈으로 신분증을 건 거네요?”

“그건.....”

나이트 경비병이 분노할 때 동조하며 울분을 터트리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겠지만 아스펠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카일러스는 신분증을 훔친 게 아니다.

그는 남자에게서 노름으로 신분증을 따낸 것이다.

노름으로 신분증을 건 경비병이나 또 좋다고 그걸 딴 카일러스나 수준은 거기서 거기였지만 아스펠의 기준으로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늘어놓는 마이크가 조금 더 꼴불견이었다.

“대체 어떤 경비병이 노름 판돈으로 자기 신분증을 걸어요? 그리고 왜 그걸 남의 탓으로 돌려요?”

“어, 나는.....”

“아무리 봐도 당신 인생을 망가트린 건 당신인 거 같은데요.”

아스펠의 판결 아닌 판결에 젊은 경비병이 안색이 붉어지고 새파래지길 반복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눈을 굴리며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이내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이 탄성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건.....아, 그래! 그건 내가 말을 잘못된 거야.”

“.....”

“그러니까, 내가 흥분상태였잖아? 눈앞의 원수를 두고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이상하게 튀어나갔어. 사실 신분증이랑 노름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었어.”

“그래요?”

두근거리던 아스펠의 심장은 어느새 고요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젊은 경비병을 노려보았다.

그건 남자가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도 속지 않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래! 그리고 굳이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저 남자가 내 신분을 도용한 죄는 사라지지 않아! 이 자리에서 처벌을 내리기엔 충분히 큰 죄지!”

이 지경에 와서까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제 멋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마이크의 태도에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던 사기꾼들 주제에 뻔뻔하군.”

게다가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나이든 경비병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나? 죄를 지었으면 양전히 벌을 받아들여야지 어째서 고개가 그렇게 뻗뻗해!”

“.....”

“계속 동료들 감싸고 있는데 여자, 지금 너도 중죄를 지은 건 알고 있는 건가?”

“하!”

나이든 경비병의 외침에 주먹을 쥔 채 입 안쪽을 깨물고 있던 아스펠의 입이 열렸다.

소리없는 무언가가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

“뇌물 받고 허가증 내 준 주제에 말이 많네.”

“뭐.....어?”

“거짓말로 지나가긴 무슨. 당신이야 말로 돈주머니 받아들고 왜 그렇게 고개가 뻗

뺏해?"

뇌물, 모함, 누명, 사기, 살인 등.

아스펠은 이런 것들이 싫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있는 힘껏 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지름길들이 혐오스러웠다.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녀 스스로도 쓰는 필요악이었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한 번에 이 수많은 것들을 한 번에, 그것도 남의 인생을 끝장낼지도 모를 거짓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한단 말인가.

"당신들 증거 있어? 카일러스가 마이크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는 증거랑 그 신분증을 성에서 도용했다는 증거 있냐고."

"도용증거는 당장 각 도시에 물어보기만 해도 나오는 정보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왜 안 따져봐? 일개 경비병이 즉결처분이 어찌고저찌고 할 정도로 중대사항인 거잖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지. 아이시스에 사람을 보내 두 사람사이에 노름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면 그 노름판에 신분증이 걸린 게 확실한지 알아봐야지."

"....."

"아, 그리고 당신이 검문하면서 뇌물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도 확실히 해야지. 교대 시간 직전까지 착실하게 받을 돈 받아먹던데 지금 그 품에 얼마나 돈 주머니가 많은지 알아봐야하지 않겠어?"

"이 건방진 게.....!"

화를 이기지 못한 젊은 경비병이 손에 든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스펠은 그 광경을 보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제 뒤의 남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챙!

아니나 다를까 숨 몇 번 들이 마시는 사이 아스펠의 앞을 가로막은 카일러스가 젊은 경비병의 검을 받아넘겼다.

눈 깜짝할 사이 바닥에 주저앉은 마이크는 카일러스의 검 끝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죄를 물을 거면 물어도 좋아. 단,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서 공명정대하게 따져서 물어!”

그 사이 여전히 카일러스의 뒤에 서서 미동도 않고 있던 아스펠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고 낭랑했다.

“제대로 된 증거를 눈앞에 가져와! 네 멋대로 죄목을 정하고 사람을 즉결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국의 법은 허술하지 않으니까!”

“.....잭.”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때, 지금껏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던 경비 대장의 입이 열렸다.
낮고 무거운, 그리고 진중한 목소리로 그는 나이든 경비병을 향해 말했다.

“품 안에 있는 걸 모두 꺼내라.”

“.....대장!”

“어서!”

“.....”

대장의 일갈에 나이든 경비병, 잭은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사나운 남자의 눈초리에 반항할 순 없었는지 그는 이내 체념한 얼굴로 하

나 둘, 제 품 안에 있던 소지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단검, 주머니, 펜, 주머니, 마른 빵조각, 주머니, 신분증,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사방은 어느새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어느 순간부터 주머니만이 나오고 있는 책의 품속에서 찰랑대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소리의 전부였다.

그리하여 상황은 현재에 이른다.

“죄인 잭 불릿, 피고는 도시를 지킨다는 숭고한 의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다.”

도시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아스펠과 카일러스, 그리고 두 경비병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광장에서 그들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사실 하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웠다.

아스펠의 체감시간으론(더불어 아직 해가 지지 않은 걸로 봐선) 사건으로부터 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열렸다는 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쥐뿔도 이뤄지지 않았단 뜻이다.

하지만 이럴 거면 왜 바로 그들을 교수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닌 공개재판을 벌인 것인가?

“그리고 죄인 마이크 루넨은.....”

이는 사건 당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스펠이 워낙 일을 크게 벌인데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높으신 분들로서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티를 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럴 거면 법은 대체 왜 있는 거야?’

신분제가 엄격하기 때문인지 이 세계 사람들의 준법정신은 최악이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멋대로 악인 취급하며 죽이려 들지 않나, 사건 정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지 않나.

아스펠은 마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도, 이종족들을 마주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문화적 괴리감을 느꼈다.

‘변호사 없는 재판이라니!’

이 자리엔 변호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스스로를 변호 할 기회도 없었으니 아스펠이 느끼는 이질감은 상당했다.

“죄인 카일러스, 피고는 거짓으로 검문을 통과하려 했으며 도시 안에서 무기를 빼드는 등 큰 소동을 일으킨데다 귀족을 사칭했으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일러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신분 사칭범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귀족 사칭죄라는 죄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아스펠은 제 눈으로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죄인 아스펠 레이덴트! 피고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인물의 신분을 거짓보증하여 도시 안으로 들어려 했고 마찬가지로 도시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데다 경비 대장을 독살하려 하였다.”

“누가 독살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무기와 소지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걸보기에만 예쁜 레일리아의 도시락이 경비 대장과 그 부하들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다.

대체 뭘 재료로 사용한 건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상한 부분 하나 없었던 건진 의문이다.

어쨌거나 알록달록한 색감과 아기자기한 장식이 가득한 도시락은 뚜껑을 연 경비 병들의 마음을 단숨에 휘어잡았고 그들의 목숨 역시 단숨에 휘어잡았다.

“조용히! 이미 엄연한 증거와 증언이 있거늘 어딜 발뺌하려 드느냐!”

재판장은 혼수상태에서 겨우 깨어난 경비병 중 한 명이 ‘먹은 이후의 기억이 없다.’ 라는 증언을 뱉고 이후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 밝혔다.

“설령 독살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극독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검문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중죄이다.”

“아니 대체 그걸 왜 먹는데.....”

“처음부터 네가 제대로 신고만 했더라면 병사들이 독을 입에 댈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

“애초에 독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스펠은 레일리아의 괴식을 입에 댄 병사들을 향해 연민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현 상황이 기가 막혀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짜로 독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다.

“죄가 이토록 무거움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

옆친 데 뢰친 격으로 풍성한 수염을 가진 늙은 재판장은 아스펠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그는 아스펠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두 경비병의 말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었다.

“이들에겐 3년간 북쪽 마수전선에서의 무상 복무를 선고한다!”

“안돼에에!”

책임지 마이크인지, 아무튼 둘 중 한 명의 비명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새하얗게 질린 그들의 안색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재판장의 얼굴이 아스펠의 두 눈에 담겼다.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아스펠의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붙드는 카일러스의 손길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죄질이 다 다른데 왜 받는 벌은 똑같은 겁니까?”

아스펠의 목소리가 비명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온 광장에 울려 퍼졌다.

“게다가 북쪽 전선으로의 추방령은 지방 관리가 정할 수 있는 처벌이 아닐 텐데요!”

도시에서 추방한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북쪽 전선으로 보내 복무시키는 것은 권한이 그 궤를 달리했다.

이런 일개 소도시의 관리가 연일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의 인선을 정해 보낼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아무리 이 세계 법이 개판이더라도 정도가 있었다.

아스펠은 아무리 높아봐야 자작 정도 되어 보이는 귀족이 재판에서 이러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하찮은 평민 주제에.....!”

아스펠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재판장에게 쏠렸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아스펠의 반박에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 씨근거리며 콧김을 세차게 내뿜었다.

“5년! 너는 5년이다!”

재판장의 풍성한 회색 수염이 썰룩거렸다.

“감히 귀족에게 대든 별이다!”

“공정한 증거도 명확한 정황조사도,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까?”

“7년! 내 판결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다니!”

혈압이 오를 만큼 화가 날 텐데도 그는 형벌을 늘리기만 할 뿐, 아스펠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아스펠은 그 순간 확신했다.

아무리 그에게 대들고 이의를 제기해도 그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생각이 없었다.

아니, 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해답은 의문을 떠올린 순간 바로 나왔다.

교수형을 시키는 것보다 그들을 북쪽 마수전선으로 보냄으로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무슨 이득을 얻는지 까진 아스펠은 알 수 없었다.

따로 뒷돈을 받는 건지 그도 아니면 북쪽 전선을 담당하는 관리인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은 건지.

어느 쪽이든 그녀가 좋아할만한 종류의 일이 아니란 것만은 확실했다.

“아니면 당신이 그냥 제멋대로 굴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이 도시의 영주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 건방진 게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싫은데.”

어쨌거나 웬만해선 교수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안 이상 얌전히 있어줄 필요는 없었다.

적어도 아스펠의 상식으로는 그러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재판도, 일방적일 정도로 부당한 판결도, 그 무엇 하나 화가 나지 않는 게 없었다.

아, 그랬다.

아스펠은 화가 나 있었다.

로웰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정체모를 괴물에게 습격을 받았을 때도, 더는 상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미는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 모든 것들에 아스펠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부러 안대를 벗고 나왔음에도 재판장은, 아니 카일러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스펠의 자안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염이랑 색이 다른데 너 그 머리, 가발이지?”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남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니 머리가 빠지는 거야.”

“10년! 10년이다! 더불어 네년은 이 도시에서 영구 추방이다! 다시는 이곳에 발 들일 생각하지 마!”

“하, 바라는 바다 이 대머리야!”

그들은 마지막 남은 비네시스의 황족이 이렇게나 성질이 더럽다는 사실을 영영 알지 못할 테니 말이다.

“네 머리카락도 나처럼 네 머리가 있는 곳엔 두 번 다시 발들이고 싶지 않을 거다!”

“이, 이.....으헉!”

물 밖으로 나온 게 마냥 입에 거품을 물고 씨근거리던 남자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그가 뒤로 넘어진 순간 가발이 벗겨지며 단상 아래로 떨어졌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가발은 칙칙한 수염 색과는 다른 눈부신 금색이었다.

* * *

“혹시 평소 화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나?”

“뭐?”

“아니면 목숨이 아홉 개 쯤 되시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마지막에 재판에서 끌려 나갈 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잖아.”

“아, 그거.”

전생의 문화와 현생의 문화는 다르면서도 참 비슷했다.

방금 전까지 의식의 차이에 괴리감을 느꼈던 것과는 별개로 상대의 눈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흔들어 주는 건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똑같이 모욕적인 언사였다.

“.....열 받았잖아.”

“열 받아서 그랬다는 건 알아. 아니라면 그게 더 문제겠지..... 그래서 분노조절장

애가 있으시냐고.”

“없어. 아니, 없었다고 해야겠다. 네가 내 앞에 나타난 이후론 화가 많아졌거든.”

아스펠의 오른쪽 눈이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를 마주 바라보고 있던 카일러스는 그 사나운 시선에 이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교계 인사들이 널 만날 날이 기대되네.”

“왜?”

“너는 그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다 갖췄거든.”

“.....”

“오늘 같은 일을 사교계에서 몇 번 더 벌여주기만 하면 돼. 다들 네가 좋아 죽을 거야.”

아무리 그녀라도 방금 그 말이 욕이라는 사실은 눈치 챌 수 있었다.

불만을 뱉기 위해 입을 연 순간 마차가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렸다.

아스펠과 카일러스의 손을 감싼 쇠고랑도 그 흔들림에 따라 철그렁 거렸다.

“.....추워졌어.”

추위와 흔들림, 그리고 팔목에 내려앉은 무게에 투덜거림이 절로 목구멍 뒤로 넘어갔다.

새하얀 입김을 내뿔으며 아스펠은 감옥 마차 안에 난 유일한 창을 올려다보았다.

온통 회색빛인 하늘엔 두터운 구름이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다.

“손이 얼어붙을 거 같아.”

“그야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스펠이 몸을 떨자 카일러스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려던 아스펠은 놀라울 정도로 따스한 망토의 온기에 입을 다물었다.

갑작스런 온도 차이에 포근함이 물밀 듯이 몰려와 나른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아스펠이 아무 말 없이 느리게 눈을 깜빡이는 사이 카일러스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망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끈을 묶어주기 위함이었다.

아스펠은 어느새 카일러스를 노려보는 것도 잊고 그가 세심한 손길로 끈을 엮는 걸 지켜보았다.

“북쪽엔 네 후견인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

독기 빠진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스펠을 향해 카일러스가 속삭였다.

이 좁은 마차에 실린 죄수는 그들뿐이었지만 그는 앞에서 말을 몰고 있는 마부를 경계하는 눈초리였다.

아니면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고 있을 다른 마차들을 경계하고 있거나.

“벌써 그와 마주하는 건 계획과는 많이 다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에게 네 신분을 보증하고 에틸렌까지 데려다 달라 부탁하자.”

“음, 그게 가능해? 나는 10년이나 전선에서 무보수로 복역해야할 죄인인데.....”

“그래, 충분히 그럴 힘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스펠.”

“으응?”

몸을 감싸는 따스함에 이젠 졸음이 몰려오는지 길게 하품하며 잘 준비를 하는 아

스펠의 얼굴을 카일러스가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갑작스런 접촉에 아스펠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야, 왜 그래?”

“후견인을 만나기 전까진 전선에서 험한 꼴을 볼지도 몰라.”

마주한 카일러스의 얼굴은 지금까지 중 가장 진지하고 심각했다.

덩달아 심각해진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긴장하며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고쳤다.

“마수전선은 특히 자원과 인력의 소모가 심한 험한 곳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네 방패가 되겠지만.....”

“아, 그래. 전선이니까.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네가 부당한 일과 마주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의외의 부탁에 아스펠이 눈을 깜빡이는 동안 카일러스는 말을 이었다.

“함께 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여태까지 봐 온 너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면 절대 굽히지 않아.”

“음.....”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무모하다는 걸 알아도 너는 너도 남도 부조리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아니라고 말하기엔 덜컥거리는 마차와 차가운 공기가 생생했다.
지금 이 상황 역시 그녀가 만든 현실이었다.
부정하기엔 양심이 찢려와 아스펠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걸 택했다.

“이제부터는, 아니 적어도 후견인이 네 신분을 증명하기 전까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카일?”

“지금까지는 운 좋게 네 몸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곤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는 어느새 기도하듯이 아스펠의 양 손을 붙든 채 속삭이고 있었다.

“네가 안전하기만을 바라.”

진심을 고백하듯, 제 온 마음을 바치듯 간절하게.
감출 생각도 없는지 드러난 그 선명하고도 낯선 낱것의 감정에 아스펠은 당황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추워서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부디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해줘.”

그러나 그녀가 카일러스의 정신상태를, 더 나아가 스스로의 눈을 의심하는 와중에도 그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너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무언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진심어린 카일러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스펠은 긴장 때문인지 불안감 때문인지 심박수가 상승함을 느꼈다.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의심서린 아스펠의 눈에도 카일러스는 말간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본 채 그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란과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카일러스의 꿩꿩이를 읽어내지 못한 그녀는 결국 그의 부탁에 입을 열었다.

“.....노력해볼게.”

그 순간 아스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희미한.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듯 카일러스가 희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스펠은 다시금 충격에 휩싸였다.

‘.....역시 무언가 잘못됐어.’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카일러스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아스펠은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불안할 정도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던 회색구름은 아니나 다를까 곧 흰색 눈송이를 하나 둘 뱉어내기 시작했다.

희디 흰 눈은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웠지만 카일러스는 저 빌어먹을 하얀 덩어리들이 불러오는 추위를 알았다.

카일러스는 겨울이 질색이었다.

특히 눈 내리는 겨울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우습게도 그는 한겨울에 태어났다.

그것도 굵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칠월 같이 어두운 밤에.

“콜록, 눈과 함께 태어난 녀석이 눈을 싫어하다니.....우스운 일이구나.”

“.....”

“네 나이 대 아이들은 전부 콜록, 눈이라면 바보처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난 싫어요.”

단순히 싫다, 라는 감정 그 이상이었지만 카일러스는 거기서 입을 닫았다.

메마르고 갈라진, 그러나 언제나 꿈결 속에 있는 듯 몽롱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 카일러스는 좋은 것보다 싫은 게 더 많은 아이였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이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싫어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아등바등 타인을 속이고 짓밟는 주민들도, 어쩌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적응치 못하고 먹히는 사람들도, 결국 적응해버리고 타인을 잡아먹기 시작한 사람들도 전부 싫었다.

골목길 밖도 싫은 것 투성인 건 매한가지였다.

환한 태양빛, 그 아래서 근심걱정 없이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과 차별을 숨 쉬듯이 일삼는 경비병들까지.

골목길 안도 밖도, 사방이 적의와 악의로 가득한 대상뿐이었다.

그렇기에 카일러스의 삶은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다.

무른 모습을 보인 순간 언제 어디서 잡아먹힐지 몰랐기에 그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너무 그렇게 날 세우지 말거라, 콜록.”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린 지 오래인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카일러스의 모습을 나무라며 못마땅해 했다.

“귀족이라면, 콜록 여유가 있어야지. 너는, 그래도 반은 고귀한 신분이니까.....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니. 콜록!”

카일러스는 늘 꿈속에 살고 있는 제 어머니가 싫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생부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줄 거라 믿는 그녀가 한심스러웠다.

신분상승의 꿈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어느 날 이 뒷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현실은 망가진 지 오래건만 이 지경까지 와도 그녀는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지 못했다.

카일러스는 그런 그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했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스스로의 안위와 안전을 챙길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고 나약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없었다.

적어도 카일러스가 아는 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니, 설령 그런 사람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따위의 일은 더더욱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존재해야 하는데.’

로웰의 무덤을 마주하고 카일러스는 제 생각에 확신을 더했다.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했는데.....’

로웰은 카일러스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다정한,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 피와 살을 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드높은 권력도 지위도 다 내버렸지만 그런 그가 결국 맞이한 최후는 어떠했는가?

타인의 조악한 악의에 의해 시름시름 앓던 그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남을 밟지 못하는 사람은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기 일쑤였고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고 헛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빨리 죽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먼저 스러지는 이들은 로웰과 같이 남을 위해 나서서 제 살을 깎아먹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죄를 물을 거면 물어도 좋아.”

카일러스는 제 앞을 가로막는 아스펠의 등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단,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서 공명정대하게 따져서 물어!”

‘아, 역시 그녀는 그 로웰님의 딸이구나.’

“제대로 된 증거를 눈앞에 가져와!”

‘로웰님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멋대로 죄목을 정하고 사람을 즉결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국의 법은 허술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로웰님처럼 금방 죽어버리겠구나.’

가질 수 없는 걸 동경이라 했던가.

카일러스는 로웰을 동경했다.

매 순간 살아 숨 쉬는 것이 투쟁이었던 그로선 감히 로웰과 같은 행동을 흉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아스펠 역시 동경함과 동시에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해할 순 없어도 카일러스는 언제나 그런 그들이 눈부시다고 생각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건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 믿었다.

“공정한 증거도 명확한 정황조사도,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까?”

그러나 부러질지언정 굶힐 일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과 동시에 떠오른 것은 그녀도 곧 죽게 될 거란 깨달음이었다.

자기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그들의 행동은 좋으나 싫으나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모았다.

남들의 이목이 쉽게 쏠린다는 것은 악의 있는 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뜻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스펠의 목숨은 카일러스의 눈엔 금방이라도 오늘 내일 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부디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게 해줘.”

아스펠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지 알게 된 지금, 카일러스는 진심이 되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이 무르고 아름다운 존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너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희소하다는 것은 그러했다.

카일러스는 아스펠과 같은 존재들이야말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자신보다 훨씬 더.

* * *

지금으로부터 약 백여 년 전,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북쪽 땅의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닿는 모든 것을 말라 비틀고 썩게 만드는 그 연기는 강력한 독이었다.

짙고 두터운 독 연기는 마치 의지라도 가진 것 마냥 매일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를로시안 대륙으로 남하(南下)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각 나라의 대표들은 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곤 힘을 모아 북쪽에 길고 거대한 벽을 세웠다.

비네시스 제국이 인력을 제공했고 비르마탄 제국이 자금을 지원했으며 마를론 왕국과 아르힌 공국이 자원을 공급하고 하일린 신성국이 강력한 힘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역사상 전후 무후한 강력한 결계가 탄생했다.

신성국의 성녀가 직접 축복을 내린 결계는 독연기의 발길을 멈춰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려진 거대한 길이의 벽은 안개의 확장을 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합작이 이뤄낸 결과에 기뻐하기도 잠시, 독 연기 안에서 뒤틀린 형태의 짐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단한 가죽과 강철과도 같은 발톱, 예리한 칼날을 연상시키는 이빨과 거대한 덩치까지.

개체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들짐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강했다.

고문서(古文書)를 통해 사람들은 저 흉측한 괴물들이 마수(魔獸)라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나 꼬리가 한두 개쯤 더 달린, 혹은 등에 날개를 단 마수들은 몸이 부서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성스러운 북벽에 달려들었다.

두텁고 튼튼한 돌을 가공해 쌓은 벽은 그들이 아무리 몸을 부딪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몸에서 마력이 섞인 특수한 성질의 독기를 발산하는데 있었다.

독안개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그 사기(邪氣)는 인체엔 크게 해가 없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벽을 둘러싼 성력을 마모시켰다.

벽에 축적된 성력이 마모된다는 것은 결계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계가 약해진다는 것은 곧 독안개의 확장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했고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각 나라의 대표들은 마수를 막기 위해 북벽만큼이나 크고 긴 전선을 세웠다.

그것이 대(對)마수전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 사냥터이자 전쟁터였다.

물론 아스펠은 이 모든 이야기를 활자나 귀동냥을 통해서만 접했다.

성스러운 벽이라느니 악독한 마수라느니, 살아생전 이 땅에 발을 들이리라 상상치 못했던 그녀에게 이들은 전부 먼 나라의 어디선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젠 그것들이 전부 그녀의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아스펠은 속으로 각오를 다지며 마차에서 내렸다.

“와.”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것도 잠시,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피부를 파고드는 추위도 잊고 아스펠은 드높게 솟아오른 거대한 벽을 올려다보았다.

고개를 꺾어야 겨우 그 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벽은 보는 것만으로도 뒷목의 숨털이 바짝 곤두섰다.

압도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이라.

웅장한 벽의 자태는 계속해서 아스펠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런 멋지고 대단한 걸 만들어 내다니! 인간이란 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부 합해서 여덟 명입니다.”

“흠, 저번보다 적군.”

그러나 그녀가 이 벽을 세운 과거의 인물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이 앞에서는 마부와 정체모를 인물 사이에서 속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래봐도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은 겁니다.”

“그래, 내가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언제나 수고가 많네.”

묵직한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기뻐하는 마부를 보고 있자니 아스펠의 안에서 인류애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제 눈으로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재들 돈 거래 한 거지? 설마 전선의 병사를 범죄자들로 총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도.”

찌푸린 미간으로 눈 덮인 새하얀 들판을 둘러보던 카일러스가 아스펠의 물음에 중얼거리듯 답했다.

“전선은 언제나 자원도 병사도 부족하니까 이런 비리가 일어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이상한 일은 아니라니? 이 나라, 이래도 괜찮은 거야?”

죄인들이 지키는 전선이라니.

이 상태라면 마수전선은 황실로부터 거의 버려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독가스의 남하를 막는 유일한 결계의 관리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비네시스 제국,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괜찮지 않지.”

한숨과 함께 카일러스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이제 허리를 굽히는 마부와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체모를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네시스의 성을 가진 후계자는 모두 죽은데다 유일한 황족은 재판장을 대머리라고 모욕하다 10년 동안 마수전선에서 무상노동을 하게 생겼잖아.”

“.....”

“괜찮을 리가 없지.”

마차 안에서 아스펠을 기겁하게 만들었던 카일러스는 어느새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다.

여기서 평소란 능숙하게 빈정거리고 재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아스펠은 그 싸가지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나긴 커녕 오히려 안도했다.

그만큼 직전에 보인 카일러스의 태도가 충격적이었던 탓이다.

어느덧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끈 마차가 떠나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쇠고랑을 찬 아스펠을 비롯한 죄수들만이 남았다.

자세히 보니 두터운 망토를 몸에 두른 남자는 드러난 몸과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다.

그는 사나운 눈초리로 제 앞의 죄수들을 한 번 죽 둘러보더니 이내 손을 들어 외쳤다.

“내 뒤를 따라와라! 나를 놓치면 이 벌판에서 동사하거나 아사하게 될 거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는 바로 몸을 돌리더니 성큼성큼, 무릎까지 올라온 눈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정말 도망쳐도 갈 곳이 없어 보이네.’

빠에 사무치는 추위와 꺾불을 일으키는 바람이 칼날처럼 아팠다.

그의 말마따나 도망쳐봤자 아사, 아니 동사하게 될 확률이 높아보였다.

아스펠과 생각이 비슷했는지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주춤거리는 듯 싶더니 곧 남자의 뒤를 따랐다.

아스펠 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 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엇!”

아니, 돌리려 하였다.

카일러스가 그녀의 허리를 붙드는가 싶더니 그대로 안아 올렸다.

눈 깜짝할 사이 그의 품에 안긴 아스펠은 놀란 한 편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의 어깨를 쥐었다.

“야! 이게 무슨.....”

“암전히 있어.”

안겨 있었기 때문인지 카일러스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열기를 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일하게 색을 가진 것 마냥 선명했다.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눈을 헤치며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궂가에서 속삭여진 그 말에 아스펠은 무슨 말을,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깜빡였다.

역시 카일러스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다.

그의 품에 안겨가는 내내 아스펠이 한 생각이라곤 그것 밖에 없었다.

11.

독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결계는 비네시스 제국, 하일린 신성국, 그리고 비르마탄 제국과 같은 대륙 북쪽에 위치한 나라와 맞닿아 있었다.

때문에 마수전선 역시 세 나라의 국경에 걸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전선은 세 나라에서 각각 병사를 차출해 자신의 국경과 맞닿은 북벽을 지키는 형식으로 유지되었다.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은 매년 이들에게 일정 이상의 자금과 자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선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전부 틀렸어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목소리가 나직이, 그러나 더없이 크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희가 받는 공물 중 북벽으로 가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비리가 팽배해요.”

기품서린 목소리가 시선을 잡아끌었기 때문일까, 벽 한 면에 가득 꽂힌 책들을 구경하던 그는 눈앞의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대로 가다간 전선은 곧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눈부신 금발과 맑은 벽안, 그리고 도자기와 같은 하얀 피부.

남자의 눈에 담긴 그녀는 마치 인형 같은 정교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곧게 펴진 등과 다듬어진 자세에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우아함이 느껴졌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말해 소녀는 아름다웠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줄 것 같은, 그런 화사함과 매력이 그녀에게 있었다.

“신성국과의 외교일정도 그렇고 라프니아 부인을 비롯한 다른 영애들의 처우를 생각해 볼 때 제국은 현재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녀의 앞에 선다면 얼굴을 붉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요?”

단 한 사람.

“요점이 뭘니까, 루타니아 영애.”

지난 달로 후작 위를 계승한 그,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를 제외한다면.

기괴하고 독특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트하르스 후작은 제국 귀족이라면 기뻐해 마지않을 루타니아 영애와의 티타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사실 그는 지금 짜증이 난 상태였다.

예고도 없이 물려받은 후작 자리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겠는데 간신히 생긴 귀한 휴식 시간을 루타니아 영애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게 그로선 몹시도 불만스러웠다.

소꿉친구인 카일러스는 대체 뭘 하는지 다알레프 3세의 붕어소식을 듣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지라 이 티타임을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엘리온은 자신이 대체 무슨 죄를 지어 지금 이런 지옥 속에 있는 건지 고민했다.

루타니아 영애와 그녀를 추종하는 이들이 안다면 땅을 치고 뒷목을 잡을 법한 꽤 씬한 생각이었다.

“나와 결혼해줘요.”

한 편 눈 한 번 깜짝 앓는 남자를 향해 갓 성인이 된 영애가 불을 붉히며 말했다.
엘리온은 마시던 차를 저도 모르게 도로 뱉었다.
찾잔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기에 다행히 루타니아 영애는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듯 했다.

“지금 대체 뭐라고 하셨죠?”

“저와 결혼해 달라고 했어요.”

“.....”

“유서 깊은 개국공신 가문인 하트하르스와 에트와르트가 함께라면 누구도 그 앞을 가로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엘리온은 손에 든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다시 차를 마셨다간 이번엔 진짜 사례에 들릴 지도 몰랐다.
그냥 지옥이 불지옥으로 승격되었기에 그로선 불시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제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루타니아 영애.”

“당신에게도 분명 나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질 거 같자 엘리온은 중간에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칼에 거절을 입에 담았다.

자신의 요청이, 그것도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루타니아는 크게 뜨인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왜죠?”

의아한, 그리고 조금은 얼빠진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분명 손해 보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비네시스 황족이 절멸한 지금 황제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예요.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깝다 한들 당신께서 비네시스의 혈족이신 건 아니니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아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을 보며 엘리온은 눈을 굴렸다.

“하트하르스 가문은 비네시스 황가를 섬깁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진리를 설명하는 어조로 엘리시온이 말했다. 그는 어째서 이 당연한 진리를 입에 담아야 하는지, 왜 이런 것까지 그녀에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태도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제겐 비네시스의 피가 섞였어요!”

무심함을 넘어서 지루한 엘리온의 솔직한 감정에 당황했는지 루타니아의 얼굴은 이제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발강게 달아올랐다.

“과거 역사를 보면 비네시스 황족과 에트와르트 가문 사람이 결혼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왔.....!”

“뭔가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긴 금색 속눈썹이 각도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는 녹안 위로 내려앉았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기 때문에 시선을 내렸음에도 엘리온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루타니아를 내려 볼 수 있었다.

“당신은 비네시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대로 카를론이 황좌에 오르는 걸 지켜볼 생각인가요? 그가 황제가 되길 바라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트하르스는 비네시스 황가만을 섬깁니다.”

“.....”

“솔직히 말해 당신들 중 누가 황제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던 지던, 제가 황제로서 당신들을 섬기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테니까요.”

“믿을 수 없어.....”

지금껏 흔들림 없던 루타니아의 자세가 흐트러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귀 끝까지 붉어져 있었다.

“당신, 제국의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나요?”

“당연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후작으로서도 제국의 일개 신민으로서도. 언제나 비네시스 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황좌의 자리가 하루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안녕을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강하고 자애로운 인물로!”

가슴에 손을 얹는 루타니아의 행동에 엘리온은 하마터면 '지금 자신이 황제에 어울리는 강하고 자애로운 인물상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빈정거릴 뻔했다.

그는 손으로 벌어지려는 입을 강제로 누르며 표정을 갈무리했다.

눈앞의 여인과 서로 비꼬고 말다툼을 하는 건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제가 생각하는 비네시스 제국이란 비네시스 황족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엘리온은 그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1초라도 더 빨리.

“비네시스 황족이 아닌 다른 이가 황제가 된 순간, 이 제국은 제가 지키고 아껴야 할 비네시스 제국이 아니게 됩니다.”

“.....”

“당신과 저는 제국을 정의하는 전제조건부터가 다릅니다. 시작점이 다른 이상 루타니아 영애, 저희가 아무리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합의점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믿을 수 없어.....”

루타니아는 눈앞의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오만하고 미려하고 거만하면서도 고고한 남자의 존재를 조금도, 정말이지 조금도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물론이죠. 비네시스 황족 없이는 하트하르스 가문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평생을 에트와르트 가문의 장녀로서 가문을 위해 희생하고 개국공신 가문의 영애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온 그녀로선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하트하르스 가문은 어느 쪽에도 안 붙을 거고 누가 황제가 되던 고개 숙일 생각도 없습니다.”

“.....당신, 가문은.....몇 백년간 명맥을 이어온 가문은 대체 어찌려고.....”

“이대로라면 제 대에서 끝나겠군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후작 위를 물려받았다 해도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되었을 뿐인데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는 걸까?

개국공신 가문으로서의 명예와 영광은?

귀족으로서의 자존심과 특권은?

“어떻게.....”

갓가지 생각이 얹혀 들어가며 루타니아의 입술이 절로 떨어왔다.

미지의 생명체를 눈앞에 둔 듯한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대에서 가문을 끝낸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죠?”

“못할 건 또 뭘니까?”

하지만 미지의 생명체,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는 그런 루타니아의 심정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았다.

아니 사실 그는 지금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 아니 당신의 아버지인 전 하트하르스 후작만 하더라도 그런 걸 용납 할 리가.....!”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엘리온의 안색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이내 깊게 한숨을 쉰 그는 두통이 이는지 한쪽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꺾어 눌렀다.

“아버지가 신경 쓰시는 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말입니다. 가문이나 작위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대륙을 횡단하고 싶다고 떠넘기듯이 가문을 넘기지 않으셨겠죠.”

“.....”

하트하르스 후작의 갑작스런 후계 계승에 한동안 사교계가 떠들썩했던 일을 떠올린 루타니아는 말을 잃었다.

병에 걸렸다는니 사기를 당했다는니 바람이 났다는니 하는 소문들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대륙여행을 떠났을 줄이야.

파티에서 봤던 그의 단정하고 매너 있는 태도를 떠올리던 루타니아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 혼란스러워졌다.

그런 루타니아를 두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는 듯, 엘리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그 결혼소리도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 밖을 향하던 그는 정말 막 생각났다는 듯이 태연자약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뱉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니까요.”

“.....”

수많은 사람들이 하트하르스 가의 사람들은 대대로 겉모습만 멀쩡하고 속은 제정신이 아니라 떠들어댔는데 과연 그 말은 사실이었다.

전 후작도 그렇고 지금의 하트하르스 후작, 엘리온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적어도 루타니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이러한 인종이 오늘날까지 대귀족의 지위에 앉아 무사히 자리를 보존해 올 수 있던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 * *

“잠깐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아스펠은 중간에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다.

“비네시스가 아닌 이를 황제로 모시느니 차라리 가문이 망하는 게 낫다고 했다고요?”

“네.”

“차기 황제후보 앞에서요?”

“네.”

“너랑 결혼하는 게 끔찍하다는 말도 했고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뭐,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

감옥 문 너머로 보이는 엘리온은 더없이 유하고 온순했다.

아스펠은 이렇게 선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그럴 때는 거짓말이라도 그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발을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던 아스펠은 카일러스를 돌아보곤 어깨를 흠칫 떨었다.

엘리온이 마수 전선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내내 찌푸려져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전 흡사 야차처럼 변해있었다.

팔짱을 낀 사형수가 죄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스펠은 그 앞에서도 여전히 웃는 낯을 지우지 않는 엘리온을 향해 반쯤은 감탄하며 물었다.

“.....당신 뭐 목숨이 아홉 개쯤 되요?”

반은 감탄이고 반은 비꼬는 물음임에도 엘리온은 환히 웃었다.

사실 그는 아스펠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웃는 낯이었다.

아스펠은 그제서야 카일러스가 어쩌서 엘리온에게는 그녀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지, 아니 애초에 협력조차 구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과연 카일러스의 친구답다고 생각하며 아스펠은 본인이 들었으면 분노해마지 않았을 감상을 마음 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다.

“아니 아무리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원에서 올 생각을 해요?”

“전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귀족으로서 어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 제 한 목숨 정돈 건사할 능력이 된다면 그는 너스레 아닌 너스레를 떨었다.

“게다가 누가 황제가 되던 섬길 마음이 없으니 에틸렌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 말에 그렇지 않아도 엘리온을 향해 불신의 기운을 온 몸으로 뿜고 있던 카일러스가 코웃음으로 쳤다.

아무튼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연유로 제 발로 전선으로 온 엘리온과는 다르게 아스펠은 타의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

어째서 또다시 그들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는지에 대해선 약간의 설명이 필요했다.

* * *

전선에 도착한 아스펠과 카일러스는 후방의 부대에 배치되었다.

마수와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전방과는 다르게 후방은 주로 물자나 자원의 보급을 담당했다.

풀뿌리를 캐고 사냥을 하고 옷감을 꿰는 등.

전선의 후방에선 상상치 못한 다양한 작업이 체계적으로 분업을 이루고 있었다.

아스펠은 그 중에서도 무기를 재활용하는 무리에 끼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망가지거나 낡은 물건을 분해해 쓸 만한 재료만을 건져낸 뒤 전방의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재조립했다.

(전생과 현생을 합쳐)생전 처음으로 아스펠은 활대에 활시위를 걸고 석궁을 조립하고 도끼날을 갈아보았다.

서툴지만 의외로 적성에 맞았던 건지 그녀는 가르쳐 주는 건 금방금방 배우고 익혔다.

‘.....이거 의외로 지낼 만 한데?’

빈약하지만 먹을 것도 제 시간에 척척 나왔고 뻘뻘하지만 두터운 양털이 하나씩 지급 되 숙면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다들 주어진 자기 할당량을 끝내느라 바빠 쓸데없는 텃세도 없었고 식사시간이나 수면 시간 전, 잠이 나면 수다를 떨거나 도박을 즐길 수 있었다.

무급이라는 걸 제외하면,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고려치 않는다면 그대로 이곳에서 지내도 될 정도였다.

아스펠은 카일러스조차 놀랄 정도로 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너 말이야,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거 아냐?”

“인간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야.”

“그것도 정도란 게 있지.”

“네가 너무 적응치 못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아스펠에게도 견디기 힘든 상황은 존재했다.

“거기 너! 이리 와봐!”

“네?”

“물건의 상태가 이게 뭐야?”

바로 전선 관리자들의 횡포였다.

시비가 겹쳐오지 않는 게 묘하다 싶었는데 이게 다 중간 관리직들의 압제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다.

위에서 허구한 날 별 것 아닌 일로 쪼아대고 괴롭히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끼리 뭉치게 된 것이다.

“할당량만 채우면 다 인줄 알아? 이런 금방이라도 망가질 것 같은 무기로 병사들이 마수와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 죄, 죄송합.....”

“시끄러워! 죄송할 짓을 대체 왜 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마수의 수에 질려 병을 핑계로 도망친 책임자가 전선의 관리를 부관들에게 맡긴지 수개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탓인지 그들은 마치 왕처럼 안전한 후방에서 군림했다.

별 것 아닌 일로 트집을 잡는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일이었고 폭언과 폭행은 거의 한 세트처럼 붙어 다녔다.

“이거 안 되겠군. 너 어디 소속이야? 너희 부대는 이번 주 할당량을 두 배로 늘리도록 해.”

“예?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게 정신이 나갔나? 지금 누구한테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주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양을 두 배로 늘리라니..... 밤새 작업해도 무리입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양을 세배로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일어나! 안 일어나? 업무량을 네 배로 늘려줄까?”

“으흑.....”

더불어 벌을 받을 땐 작게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이곳에 있는 이들 모두가 연대 책임을 졌다.

부당한 걸 알면서도 부관들 대다수가 기사출신인지라 무력으로든 신분으로도 대적할 이가 없어 그들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손에 꼽도록 드물었다.

어쩌다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감옥으로 가거나 전방으로 보내지기 일쑤였다.

“개자식들.”

“아스펠, 제발.”

이런 불합리 속에서도 아스펠은 제법 잘 참았다.

그녀는 정말 노력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스펠은 제 성질을 제법 잘 죽였다.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최근 들어 카일러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이상해 졌기 때문이다.

북쪽 지역에 발을 들인 첫 날, 카일러스에게서 느꼈던 위화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스펠은 그가 필요 이상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지 오래였다.

문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체 저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이 오고 간 건지 카일러스는 명백히 계약한 것 이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허가 잘린 최초의 황제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면 그 망할 입 좀 닫아.”

“.....”

말하는 꼴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와 별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흘러내린 망토를 여며준다거나 잔 상처에 붓대까지 구해와 감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의아함을 느끼지 않기가 힘들었다.

‘왜 갑자기 보호자 행세를 하는 거지?’

마치 살아생전 로웰이 했을 법한 행동들을 모방하는 카일러스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문스러우면서도 낯설어서 아스펠은 온 몸이 간질거려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한 것도 잠시.

전방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해 사태는 하루아침에 급변했다.

“보고입니다! 마수들이 결계를 뚫고 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북벽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그 틈으로 그만.....”

“벽에 구멍이 났다고? 신성 결계가 아니라 저 벽에?”

제 귀를 믿을 수 없었는지 남자는 두 번이나 되물었다.

“예, 시급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전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뀌는 일은 없었다.

더불어 처음 보는 종류의 마수가 출현했는데 덩치가 어찌고 힘이 저찌고 피해가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설명은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강력한 마수가 나타나 벽의 일부를 부수고 신성력이 둘러진 결계마저 뚫고 들어와 전선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령의 보고에 사방은 삼시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부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마른 침을 꼴딱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너덜너덜하고 헝클어진 전령의 물골은 전방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지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고를 받은 남자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더듬더듬 말문을 열었다.

"이, 일단 알았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하니 저쪽 막사에서 답을 기다리도록 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전방에선"

"알겠네, 알았어.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할테니 걱정 말게. 소식을 전하느라 고생이 많았을텐데 쉬고 있게나."

그렇게 말한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뒤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부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 듯 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관리인도 소식을 전한 전령도 사라지자 숨소리 한번 들리지 않던 공간이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다.

"벽이 뚫려 마수가 침입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길, 그럼 여기도 위험한 거 아냐?"

"전방의 병사들이 전멸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이제 어찌지?"

사람들의 걱정 어린 비명을 듣고 있던 아스펠의 몸이 순간 한 쪽으로 휩 쓸렸다.
카일러스였다.
표정을 딱딱하게 굳힌 그는 아스펠의 팔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제 팔을 단단하게 움아맨 손을 풀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다.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디 가는 거냐고."

"여기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지정된 막사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몸을 멈춘 카일러스가 그녀를 돌아 보았다.

아스펠을 응시하는 그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네가 여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같아?"

"나도 내가 마수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 않아."

아스펠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있자니 카일러스와 처음 마주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 때나 지금이나 눈을 희번덕하게 뜯 카일러스는 정말이지 미친놈 같았다.

다른 점이라면 지금의 그의 시선엔 아스펠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짙은 걱정이 묻어 있던 점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대체.....넌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스펠의 대답에 카일러스는 기막혀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째서인지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투에 화가 잔뜩 묻어있었기에 확신하긴 어려웠다.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네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힘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미래에 가질지도 모르는 것뿐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고!"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나?"

아스펠은 로웰을 떠올렸다.

다니엘을, 라우라 아주머니를, 그리고 하센을 떠올렸다.

그들이 베푼 친절과 은혜와 사랑을 떠올렸다.

사람은 가끔 너무나도 쉽고 우스울 정도로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세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지금의 아스펠은 알았다.

"너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

"뭐?"

"신분의 비밀을 알고 나니 알수 없는 힘이 느껴지나? 영웅이라도 된 거 같아? 정의의 사도가 된 거 같아?"

아스펠은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당하고 싶은 거야? 네가 바라는 게 그거야?"

"개죽음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라데이션 마냥 깊어져가는 카일러스의 분노에 어찌할 줄을 몰라 눈을 깜빡이던 아스펠이 얼떨떨해 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럴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너는....."

"카일, 나는 영웅이 되고 싶은게 아니야."

"....."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도망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여기서 도망쳐 무사히 제 한 목숨 무사히 보전한다 한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며칠 썩이나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다.

아스펠은 그들을 외면한 채 뚝뚝하게 고개를 들 자신이 없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기억을 원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굳이 나중에 괴로워할 걸 알면서도 저지르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황제라니, 그런 건 너무 꼴사납잖아."

"....."

그녀의 대답을 들은 카일러스의 얼굴이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일그러졌다.

분노가 걷혔기 때문인지 아스펠은 그제서야 그가 느끼는 감정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듯이 찢푸려진 그 감정의 이름은 안타까움이었다.

13.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 때 막사 문을 열고 들어온 찰스가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그는 아스펠과 카일러스 사이에 감도는 미묘한 공기를 느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그러면서도 손은 바쁘게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다급하게 움직이던지 눈 깜짝할 사이 가방이 불룩해졌다.

그 모습을 반쯤 낚 놓고 바라보고 있던 아스펠은 머릿속에 떠오른 가능성 중 가장 그럴싸한 가설을 입에 담았다.

“도망치려고?”

“아니, 그 반대야.”

“숨어 있으려고?”

“.....아니야. 대체 언제부터 도망친다는 말의 반대가 숨어 있다가 된 거야?”

가진 모든 짐을 쑤셔 넣어 커다랗게 몸을 부풀린 가방이 그의 어깨위로 올라갔다. 저런 무거워 보이는 걸 잘도 번쩍번쩍 들어 올린다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너희들도 짐을 싸는 게 좋을 거야. 대부분의 인력이 전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는 게 결정됐거든.”

“벌써 결론이 났어?”

평소 보이던 무능한 모습과는 다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른 판단이었다.
분명 서로 가기 싫어서 탁상공론만 계속될 줄 알았던 아스펠은 깜짝 놀랐다.

“그래, 한 5분 전쯤 결정됐어. 아마 너희도 가는 게 맞을 거야. 사지 멀쩡한 사람은 다 간다고 했거든. 남는 건 어린애나 노인, 그리고 부상자 정도였나.....”

“부관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가는 건 누구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선 개인 짐을 싣 뒤 모여야 돼. 전방으로 가져가야 할 물자도 챙겨야 하니까.”

찰스의 대답에 질문을 던진 카일러스의 눈살이 왠지 모르게 일그러졌다.
전달 해 줄 다른 말이 없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던 찰스는 다행스럽게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 맞아. 그리고 우리만으론 부족할 거라고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했어.”

“지원? 누구에게?”

“아르틀란 변경백에게.”

“아르틀란?”

어쩐지 익숙한 이름에 기억을 더듬던 아스펠은 그가 카일러스가 말한 후견인임을 깨달았다.

* * *

무슨 수를 쓴 건진 모르겠지만(아마 돈이겠지만) 전선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일러스는 후견인이 될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데 성공했다.

“아르틀란 변경백?”

들어본 적 없는 이름에 아스펠은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의아해하는 그녀의 몸짓에 카일러스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설명을 이어갔다.

“빈센트 폰 아르틀란. 몇 십 년 전 큰 아들과 함께 중앙에 진출했던 후작이야.”

“중앙? 에틸렌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왜 여기 있어?”

“권력 싸움에서 패배했으니까.”

지방 세력가가 중앙 귀족들의 텃세에 밀리거나 줄을 잘못 타서 망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다.

아르틀란 후작은 어느 쪽이었냐 하면 둘 다였다.

“다알레프 3세가 즉위하기 직전이었으니까 황권다툼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지.”

북쪽의 사자, 겨울의 왕.

선대시절부터 전쟁으로 쌓아온 위명과 단련된 일당백의 병사들을 가진 그가 에틸렌의 사교계에 불현 듯 모습을 드러냈을 때 중앙의 귀족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광경을 그려보는 데엔 그다지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치 않았다.

“뭐 텃세도 텃세지만 결정적인 건 줄을 잘못 탔기 때문이지. 그는 선왕의 동생을 지지했거든.”

치열했던 물밑 싸움은 황태자였던, 지금은 서거한 다알레프 3세가 황제가 되며
끝이 났다.

수많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쫓겨났다.

아르틀란 후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패배의 대가로 아끼던 후계자를 잃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야 했다.

그 후 지금까지 후작은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다.

그런 그를 칭하는 현 이명은 이빨 빠진 사자.

불명예스럽다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지금의 후작에겐 그 모욕에 화를 낼
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내 후견인이 되어줄까?”

아르틀란 후작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던 아스펠이 곧 미심쩍다
는 얼굴로 카일러스를 돌아보았다.

“자식을 잃었다고 했잖아. 다시 정치판에 발을 들이는 걸 신물내지 않을까?”

“그럴 리가.”

코웃음과 함께 카일러스의 입꼬리가 뼈뺏하게 올라갔다.

아르틀란 후작과 제법 잘 아는 사이인 건지 그를 떠올리는 카일러스의 낯이 자신
만만하면서도 매서웠다.

“그 성격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지. 둘째 아들도 남아 있겠다, 어떻게든
다시 복수하고 싶어 할걸, 그 영감.”

“.....그런 말을 들으니 이젠 다른 의미로 걱정되는군.”

카일러스에게서 코웃음을 끌어낸 걸 봐선 변경백의 성정이 보통 이상이라는 건
자명했다.

그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누구든 그게 한 두 명은 아닐 거라고 아스펠은

직감했다.

“네가 걱정할 건 없어.”

그런 그가 과연 자신의 후견인이 되어주긴 할지, 만약 되어준다면 그가 요구하는 건 대체 무엇일지에 대해 걱정하는 아스펠을 향해 카일러스가 말했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는 아스펠을 그는 다소 한심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신봉자거든, 그 사람.”

“신봉자?”

“그래.”

카일러스가 자신의 왼쪽 눈을 가리켰다.

그를 따라 제 왼쪽 눈을 만져보던 아스펠은 그 위에 덧댄 안대의 거친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카일러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았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황제가 될 수 없다. 그 남자의 입버릇이지.”

“이 눈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안대를 만지작거리던 아스펠이 눈을 깜빡였다.

“자색 눈을 가진 게 가장 순수한 비네시스 혈통의 증거였던 거야?”

“아니, 전혀. 신빙성 없는 소문에 불과해.”

“그럼 왜 이런 걸 신봉해?”

‘농담이지?’ 라고 묻는 아스펠의 말에 카일러스는 어깨만 으쓱일 뿐 제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아스펠은 다시금 놀랐다.

신도 신의 권능도 멀쩡히 살아 있는 세계에서 단지 눈 색이 독특하단 이유로 그것을 신봉하다니.

어디 신봉할 게 없어 이런 걸 다 신봉하나 싶었다.

“유일무이하니까.”

고개를 모로 기울이며 눈살을 찌푸린 아스펠을 향해 카일러스가 답했다.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제국 황실 혈통,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음.”

역시 초월적 존재나 유일무이한 것을 떠받드는 신앙에 대해선 다시 태어나도 잘 모르겠다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신보단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우선시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마음 속 고민을 덜어주는 것도 결국은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국 내에 아르틀란 변경백과 같은 자색 눈 신봉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아스펠로선 큰 수확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또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가늠해 보았다.

“그냥 받아들여.”

그 때 고개 숙인 아스펠의 고개가 타의에 의해 들렸다.

미간이 잔뜩 찌푸러진 카일러스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무래도 고민이 길었는지 그는 아직까지도 아스펠이 아르틀란 변경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잘됐잖아. 그 덕에 괜히 혈통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내 혈통을 증명해야 하는데?”

“방법이야 많지. 과정이 귀찮을 뿐.”

신전의 검사라든가 건국시절부터 함께 해 온 특수한 가문으로부터의 인정이라든가 마법시약을 쓰는 등.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늘어놓는 카일러스에게 아스펠은 학을 뗐다.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아르틀란 변경백이 호위대와 함께 널 데리러 올 거야.”

턱을 움켜쥔 카일러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넌 그 때까지 이곳에서 몸 건강히 지내고만 있으면 돼.”

아스펠은 문득 자신이 고향을 떠난 지 어언 한 달이 다 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쯤이면 아스펠이 정성들여 쓴 사표가 하센의 손에 들어갔을 터였다.

그는 순순히 그 사표를 수리해 줄까?

그도 아니면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올까?

순간 아스펠의 직감이 위기 등을 울리며 후자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국 내 각 대도시마다 하나 이상의 지점을 가진 가일라프 상단은 정보의 수집이 빠른 편이었다.

아스펠은 그가 사표를 받은 지 채 3일이 지나지 않아 소도시, 콜른에서 벌어진 재판에 대해 알아냈을 거라 확신했다.

“변경백이 얼마나 많은 호위대를 끌고 올까?”

“왜 그런 게 궁금한데?”

“몸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암, 중요하고 말고.’

곰 같은 하센을 막아서기 위해선 병사가 셋, 아니 대 여섯 명은 필요할 터였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걱정 않아도 네 옆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카일러스가 말했다.

“모두가 스러져도 나만은 사라지지 않아. 맹세해.”

“.....”

참으로 감동적인 말이었다.

만약 하센을 만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카일러스를 먹잇감으로 던져야겠다고 아스펠은 다짐했다.

* * *

“호위대!”

일전에 있었던 대화를 떠올린 아스펠이 소리쳤다.
갑작스런 아스펠의 외침에 깜짝 놀랐는지 찰스는 어깨를 떨었다.

“호위대가 온다고 했었지?”

어안이 병병한 찰스와는 다르게 카일러스는 단번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하는지 깨달았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해!”

“잠깐, 기다려! 아스펠!”

카일러스가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막사 밖으로 뛰쳐나간 뒤였다.
애타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한 아스펠의 귀엔 들리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아스펠은 생각했다.

‘가장 필요할 순간에,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오다니!’

수 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자로서 단언하건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센의 입버릇을 빌려오자면 주신 오픈하임이 굵어 살피고 계심이 틀림없었다.
지원을 와 줄 병사가 가까이 있단 소식을 알면 모두 힘이 날 것이다.
모두가 지를 환호성을 어럽지 않게 상상하며 아스펠은 부관들이 모여 있는 막사 문을 벌컥 열었다.

무례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녀가 들고 온 소식은 그 무례마저 날려줄 것이 틀림없었다.

"좋은 소식이 있.....!"

".....!"

하지만 아스펠은 문을 열자마자 몸을 딱 굳혔다.

손가락하나 까닥하지 못한 건 안에 있던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스펠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여섯 부관들이 가방에 짐을 싸던 도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왜 여섯 명이 전부 짐을 싸고 있는 거지?'

찰스의 말에 의하면 지원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 둘, 전방에 나가는 사람 둘, 그리고 후방에 남아 있는 이 두 명으로 짐을 싸는 사람이라면 넷으로 충분했다.

게다가 여섯 명 모두 살림살이를 다 챙겨가는 건 어째서인가?

아스펠은 가방 가득한 금화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뺏어간 귀중품들을 보며 입을 딱 벌렸다.

순간 벼락같은 깨달음이 그녀의 머리위로 내려친 것이다.

"도망치려는 거군요!"

"이 계집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다들 싸우려고 준비 중인 건데, 당신들은 도망치려 하는군요!"

"입 닥쳐!"

"닥쳐야 할 건 너야 이 개자식들!"

제 손목을 잡아끄는 부관을 향해 아스펠은 주먹을 날렸다.

"크헉!"

우연인지 노린 건지, 추위로 뽀뽀 얼어붙은 아스펠의 주먹이 남자의 코에 정통으로 꽂혔다.

장렬하게 흩뿌려진 코피와 함께 남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 * *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상관을 폭행한 죄로 아스펠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카일러스는 항변했지만 상관에게 대들었다는 죄목이 붙어 그 역시 아스펠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아스펠에게 얻어맞아 코가 부은 부관의 치졸한 화풀이였다.

모든 일이 채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상황에 기가 차는지 카일러스는 뒷목을 잡았다.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당신의 노력, 잘 봤습니다."

"....."

카일러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펄쩍펄쩍 뛴 게 언제 적 일인데 채 50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스펠 때문에 그들은 감옥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스펠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14.

지시를 내려야 할 상관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데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젠장 그 자식들!”

“으아악! 우린 전부 끝났어!”

“이제 어찌지?”

“어찌긴 어째! 도망칠 준비나 해! 네 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분노와 절망, 공포와 슬픔 섞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창을 통해 아스펠이 있는 감옥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는지, 다급한 발소리와 높아진 목소리를 통해 아스펠은 그 광경을 눈앞에 흰히 그려볼 수 있었다.

‘개판이네, 진짜.’

더는 참지 못하고 아스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해?”

“탈옥해 보려고.”

더는 가만히 앉아 이 상황을 두고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핀 두개를 뽑아들고 그 끝을 구부렸다.

“.....그 쇳조각으로?”

가만히 그녀가 하는 양을 지켜보던 카일러스가 물었다.
의심으로 가득한 그의 눈이 가늘게 뜨였다.

“그게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정말? 고작 그런 걸로 자물쇠를 여는 게 가능하다고? 해 본 적 있는 거야?”

“내가 방금 이론상이라고 했잖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전생의 잡지식 중 하나였다.
해 본 적은 없지만 지인이 잘난 척하며 보여 준 적은 꽤 있었다.
그가 하던 방식을 떠올리며 아스펠은 구부린 핀을 자물쇠 구멍에 가져다 댔다.
폼이 제법 그럴싸했는지 미심쩍어하던 카일러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바뀐 지 오래
였다.
어느새 그는 아스펠의 근처까지 다가와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안에 나갈 수 있긴 한 거지?”

꽁꽁대는 아스펠과 꿈쩍도 않는 자물쇠를 보길 수십 분.
마침내 인내심이 다 닳았는지 카일러스가 한숨 섞인 핀잔을 뱉었다.
아무리 쑤셔도 달칵 소리가 나지 않는 자물쇠를 아스펠은 원수 보듯 노려보았다.

“조금만 기다려 봐. 할 수 있을 거 간단 말이야.”

이론도 알고 있고 시범도 본 적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아

스펠은 생각했다.

그렇게 아스펠이 원수 같은 자물쇠와 다시 씨름을 시작한 사이 카일러스는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감옥에 난 유일한 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흐린 하늘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화감의 정체를 눈치 챈 카일러스는 다시 아스펠을 불렀다.

“아스펠.”

“기다려보라니까. 진짜 할 수 있어.”

“아스펠.”

“거의 다 됐어. 앗! 봐봐, 방금 달칵 소리 들렸지?”

“밖이 이상해.”

“뭐?”

아스펠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득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다.

소리가 사라진 듯 사방이 고요했다.

잇고 있던 감옥 안의 한기가 올라와 아스펠은 제 팔을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체감상 자물쇠를 만진 지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라는 의문이 남는다.

무엇이 바깥의 소란을 잠재웠는가.

‘설마 마수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아스펠의 얼굴이 희게 질린 그 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영원히 닫혀 있을 것만 같던 감옥 문이 열렸다.

“아.”

쏟아지는 빛 사이로 가볍고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정말 너였네, 카일러스.”

사람이었다.

사지 멀쩡하고 큰 키를 가진 남자.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아스펠은 크게 안도했다.

적어도 마수가 후방을 습격한 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들었을 땐 설마 했는데.”

흰 눈에 반사된 빛이 남자의 짧은 백금발을 희게 비추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아니 정확히는 카일러스를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하며 성큼 감옥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남자는 노랗빛 섞인 연한 연두빛 눈을 가지고 있었다.

철창 안의 카일러스를 한 번, 문 밖을 한 번 본 남자는 경비병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신분이 높았는지 남자의 지시에 경비병은 경례자세를 취하곤 바로 감옥 문을 닫았다.

쏟아지던 햇빛이 차단되며 남자의 눈이 짙은 암록빛으로 빛났다.

“이렇게 보게 되어 기뻐. 이게 대체 얼마만이더라?”

“.....엘리온.”

남자가 카일러스를 아는 것처럼 카일러스도 그와 면식이 있는 것 같았다.
아스펠은 카일러스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좋은 것도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닌 기묘한 표정이었다.
갖가지 감정이 일렁이고 있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반가운 지인을 만나 지을 만한 표정은 아니라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시스를 수호해야 할 네가 왜 여기 있어?”

각도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는 보석안이 아스펠을 향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또 누구고.....어?”

아스펠을 본 남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온 몸이 굳은 듯 그의 벌어진 입은 도무지 닫힐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부담스런 시선에 아스펠은 눈만 도록 굴렀다.
상대를 향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던 탓이다.
아스펠은 보다 상대하기 쉬운 카일러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아스펠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남자, 엘리온의 몸이 낮아졌다.

“고귀한.”

철창 너머로 한쪽 무릎을 꿇은 그가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아스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국의 황족을 뵙습니다.”

“!”

“당신께서 이 땅에 존재하심을 주신 오펜하임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을 섬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맹세합니다.”

“.....”

눈 몇 번 깜빡이는 사이 벌어진 일에 아스펠의 뇌가 가동을 멈췄다.

금붕어마냥 소리 없이 입만 벅긋이던 그녀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카일러스를 돌아보았다.

충격과 공포를 굳혀 만든 듯한 그녀의 얼굴 위엔 대충 ‘애가 내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아스펠이 건넨 무언의 질문에 카일러스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일전에 혈통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거 기억해?”

“그야 뭐, 몇 가지 정도는.”

“거기에 특수한 가문으로부터의 인정이 들어가는 것도 기억나?”

“아, 설마.....”

아스펠의 눈이 아직까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는 엘리온을 향했다.

“그 특수한 가문이 엘리온의 가문, 하트하르스야.”

놀란 아스펠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이 카일러스가 느릿느릿 설명을 이어 나갔다.

“하트하르스는 비네시스 황가와 특수한 연결고리가 있어. 고대 마법의 일종이라는 데 서로가 상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

“그게 그런 의미였어?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상징적인 의미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혈통을 증명해?”

카일러스가 아스펠을 향해 한심하다는 시선을 아낌없이 보냈다.

“차라리 찻잔에 피를 떨어트리고 떨어지는 모양으로 점을 치는 게 더 신빙성 있겠다.”

“아니 그치만.....”

아스펠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엘리온과 카일러스를 번갈아 보았다.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말도 차고 넘쳤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난 아무 것도 못 느끼겠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

남자, 엘리온은 아스펠과 만난 게 더없이 기쁘다는 기운을 가득 풍기고 있었다.

경비병이 존경을 표하기도 했고 이름과 성 사이에 미들 네임이 들어갔으니 그 역시 귀족일 터인데 잘도 이 차갑고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아스펠은

생각했다.

“저기, 바닥이 찬데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음.....”

“아스펠이에요. 아스펠 레이덴트.”

“마주하게 되어 생의 기쁨입니다, 아스펠 님.”

“.....”

다시 듣게 된 높임말에 아스펠은 처음 카일러스와 마주했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카일러스도 지금의 엘리온도 둘 다 그녀에게 경어를 쓰며 자신을 낮추었다.

차이점이라면 반쯤 비꼬고 본색을 드러내 협박을 가한 카일러스와는 다르게 엘리온에게선 온전히 경의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뭐, 왜.”

“.....”

미묘해진 아스펠의 시선과 마주한 카일러스의 얼굴이 대번에 찌푸려졌다.

두 번의 투옥은 서로의 신분과 입장은 물론이고 겉치레까지 완전히 날려버렸다.

아스펠은 카일러스가 점잖 빼는 모습을 본 게 아주 먼 옛날의 일 같았다.

“저는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 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몸이지만 선조들의 위명을 업어 후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카일러스와 아스펠의 신경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끼어든 엘리온이 품 안에서 꺼낸

패를 아스펠에게 내보였다.

금과 은, 그리고 천청석(天靑石)으로 만든 그 손바닥만한 작은 패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가운데 박힌 천청석은 귀족, 그 중에서도 작위가 높은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분증이었다.

상단에서 지낼 때도 본 적이 손에 꼽은 지라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뱉었다.

아스펠이 감탄하자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엘리온은 아예 신분증을 그녀에게 넘겨 주었다.

‘.....진품이네.’

희미하게 빛나는 천청석과 테두리의 독특한 나선문양을 확인한 아스펠은 이젠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감탄했다.

마법으로 특수한 처리를 한 덕에 천청석이 빛나는 엘리온의 신분증은 카일러스의 정체에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고 있던 아스펠의 의심을 일소했다.

신분 높은 귀족인 엘리온과 면식이 있는데다 스스럼없이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이니 카일러스 역시 그와 동등한 신분을 가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말 아이기스 가문의 도련님이었던 말이지.’

그런 것치곤 더러운 비속어를 꽤 많이 알던데, 역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다.

“왜 갑자기 사라졌나 했더니.”

한 편 카일러스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온 엘리온의 긴 손가락이 녹 문은 철창을 휘감았다.

“뒤에서 몰래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구나.”

"....."

"저주를 피해간 황족이 존재했다니.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찾았고? 너 말고 누가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지?"

"....."

"찾았으면 얼른 에틸렌으로 올 것이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던 거야?"

".....엘리온."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녹안이 위험할 정도로 번뜩였다.
그 위협적인 시선에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카일러스는 눈 한 번 깜짝 않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너야말로 왜 여기 있지? 장례식이 막바지일 테니 준비해야 할 게 많을 텐데."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

"아까까진 다들 겁에 질려 소란스럽던 바깥이 갑자기 조용해졌던데."

사이를 가로막은 철창만 없었다면 금방이라도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을 법한 날카로운 분위기였다.

숨 쉬는 공기마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아스펠은 들고 있던 신분증을 엘리온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5.

“아, 그거라면 제 병사들이 진정시켰습니다.”

“네 병사라고?”

“.....”

“야!”

엘리온은 카일러스의 질문을 못들은 척 고개를 꺾 돌려버렸다.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카일러스와 그런 그 역시 무시하는 엘리온을 보며 아스펠은 자신의 생각을 정정해야 했다.

‘그냥 스스럼없는 사이가아니라 절친이었네.’

격의와 예의는 물론이고 상대를 향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화였다.

카일러스가 다시금 질문을 던졌지만 엘리온은 자기 물음에 답해 줄 때까지 아무 말도 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말이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경전이었다.

아스펠은 이런 유치한 신경전에 끼어들어야 하는 스스로의 처지에 한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병사들이면 후작님께서 이끌고 오신 지원병인가요?”

“아뇨, 전방의 병사들입니다.”

“전방? 전방의 병사가 왜 이곳에 와?”

“.....”

“아니, 좀.....그만 해. 저기, 전방의 병사가 왜 이곳에 왔나요?”

“제가 이끌고 왔습니다. 전방이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금방이라도 철창 앞으로 달려들 것 같은 카일러스를 막고 있던 아스펠은 순간 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 눈을 깜빡였다.

그런 그녀를 본 엘리온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제가 이곳 마수 전선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지금까지 전방에서 지휘를 맡고 있었죠.”

“뭐? 대체 언제부터!”

“.....”

“엘리온, 대답해주세요.”

“좀 됐어.”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카일러스의 얼굴을 바라본 엘리온이 기간을 세보는 듯 손가락을 접었다.

“이제 한 달쯤 된 거 같네.”

“네가 왜 전선의 총 책임자인 거지?”

“그야 내가 자원했으니까.”

“너 스스로 전선으로 오겠다고 자원했다고? 대체 왜.....후작께서는, 아니 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시나?”

“아니.”

한숨과 함께 엘리온이 어깨를 으쓱였다.

“아버지께선 어머니와 대륙을 여행중이셔. 작위를 물려주신 후 알콩달콩, 두 분만의 노후를 만끽중이지. 내 연락 같은 건 받지도 않으실걸.”

어째서인지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는 엘리온에게 카일러스는 다시 한 번 그에게 왜 이곳에 자원해 왔냐고 물었다.

“황제폐하께서 붕어하시고.....”

아스펠은 대답하는 엘리온의 눈이 장난치기 직전의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걸 보았다.

“네가 에틸렌에 없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

“.....”

“아, 이게 진짜!”

거침없이 폭언을 퍼붓는 카일러스나 그런 카일러스를 즐겁게 바라보는 엘리온이나 수준은 거기서 거기였다.

아스펠은 슬슬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게 피곤하다고 느꼈다.

“에틸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

아스펠의 물음까진 무시할 수 없었던 엘리온이 침음을 삼켰다.

“카일러스의 편만 드시다니. 이런 건 불공평해요, 아스펠 님.”

“그래서 왜 전선에 지원하셨는데요?”

궁금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스펠은 얼마든지 불공평해 질 수 있었다.

아스펠의 편파적인 판결에 엘리온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늘어트리며 대답했다.

“청혼을 받았거든요.”

“청혼이라고? 누구에게?”

“.....”

“누구에게 청혼을 받으셨어요?”

혈압이 올라 폭발하기 직전인 카일러스를 다시금 막아세우며 아스펠이 카일러스의 물음을 되풀이했다.

카일러스를 향해선 시선도 두지 않은 엘리온은 얄밋게도 갇은 예를 갖추며 아스펠을 향해 답했다.

“루타니아 폰 에트와르트 영애에게서 받았답니다, 아스펠 님.”

“.....에트와르트?”

“황족의 혈통을 이으신 당신을 제외하면 황제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온은 어째서인지 얇은 경멸을 피부 위로 띄웠다.

하지만 그건 아주 일순 내보인 감정이었다.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한 엘리온은 다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와 루타니아 영애 사이에 있던 일을 풀어놓았다.

* * *

그리하여 상황은 지금에 이른다.

카일러스는 고작 청혼 받은 일로 북쪽 전선까지 도망쳐 온 엘리온의 태도가 기가 막힌 듯 했다.

어이가 없는 건 아스펠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감옥신세를 지고 있는 그녀가 할 법한 생각은 아니었다.

물론 남의 신분증으로 여행을 다닌 카일러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가 누굴 한심해하고 비웃을 처지가 아니란 뜻이다.

팔꿈치고 카일러스의 옆구리를 가격하며 그의 입을 강제로 다물게 한 아스펠은 어째서인지 아까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고 있는 엘리온을 바라보았다.

“전방이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당신이 병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전선이 밀렸단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온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전령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선이 밀렸다는 건 벽을 통과해 들어온 마수들의 압박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전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음은 물론이고 이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은?”

“마수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또 그들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죠?”

“.....일회용 마도구와 신성도구들을 사용했으니 이삼일 정도는 그들의 발을 묶어둘 수 있을 겁니다.”

아스펠과 시선을 마주한 엘리온이 한 박자 늦게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지금 무기를 나눠주고 방책(防柵)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충분치 않겠조. 사흘 버틴다면 대단한 걸 겁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뚫린 벽의 구멍은 크지 않았으나 그 안으로 흘러들어온 마수들은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만큼 상당히 강력했다.

이들을 상대하는데 전선의 병사들만으론 힘이 부쳤고 때문에 전선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다.

전선이 밀리게 되니 무너진 벽을 수복할 수가 없었고 구멍을 메울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마수의 수가 늘어나 전선이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계가 찾아왔다.

불어난 마수의 수를 전방의 병사들만으론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엘리온이 후방으로 크게 전선을 물린 이유였다.

“원래대로라면 후방도 마수의 침입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

후방이 이정도로 개판일 줄은 엘리온도 예상치 못한 모양이다.

보고와는 다른 상황에 그는 전방의 병사들 역시 크게 동요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벽을 막아야하네.”

“그렇죠.”

“벽을 막으려면 마수를 상대할 병사가 필요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스펠.”

“무슨 생각이긴.”

의아함을 넘어 의심을 품은 카일러스를 향해 아스펠은 입꼬리를 올렸다.

“병사를 모을 생각이지. 엘리온.”

“네, 아스펠 님.”

“지금쯤 아마 아르틀란 후작의 호위대가 이곳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변경백의 병사들이 말입니까?”

“네, 며칠 전 카일러스가 아르틀란 후작에게 제 후견인이 되어달라는 편지를 보냈 거든요.”

“후견인이라면 저도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스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이라도 얻어맞은 것 마냥 엘리온의 입이 딱 벌어졌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마치 믿었던 이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카일러스, 너 대체 왜 그딴 뒷방 늙은이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이빨 빠진 사자 보단 내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진정해주세요. 엘리온, 그의 병사들이 오면 전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변경백의 병사라면 일당백으로 유명하죠. 호위대의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인 만큼 상당히 단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호위대의 수는 백 명 남짓 될 거야.”

구색은 갖추되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일 테니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카일러스는 말했다.

“전력으로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반나절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력으로서 충분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스펠이 물었다.

“마수들을 몰아내고 벽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병사가 필요한가요? 변경백이 가진 병사 전부면 되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태가 시급하더라도 국경의 병사를 전부 빼올 수는 없을 테니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카일러스가 말했다.

“게다가 지금 이러는 와중에도 마수들의 수는 점점 불고 있을 테니.....”

“그럼 또 누구에게 병사를 요청할 수 있지? 이 근처 영토가 전부 변경백의 땅은 아닐 거 아니야. 근처에 다른 영지가 있지?”

“그야 있긴 하지.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협력해 줄 것 같진 않은데.”

“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거든요.”

엘리온은 다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본래대로라면 전선은 중앙으로부터 자원을 받아 유지 돼야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이 주변 영주들에게 희생을 요구한지 오래입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입에 담는 다는 사실이 꺼끄러운 듯 했다.

“오랫동안 제 살을 내어 준 그들의 앙금이 상당할 겁니다. 아마 병사를 요청해도 순순히 응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제 이름을 파세요.”

“예?”

“아버지의, 로웰의 이름을 파세요. 혈통과 신분을 팔아서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세요.”

카일러스는 그들이 무슨 요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미래를 약속하냐고 화를 냈지만 아스펠은 진심이었다.

현 상황에 대한 엘리온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마수와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터였다.

한시라도 빨리, 신속하게 영주들로부터 지원이 시급했다.

“그럼 중앙 진출을 약속하세요.”

“아스펠!”

“아르틀란 후작도 넘어간 조건을 다른 이들이 거절하진 않겠죠.”

“하지만 아스펠님.....”

“엘리온,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의견에 반신반의하는 엘리온을 향해 아스펠은 안대를 벗었다.
다른 영주들을 설득시키기에 앞서 눈앞의 남자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다른 귀족들 역시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왠지 모를 아스펠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였다.

“선택하세요.”

그렇게 느꼈기에 아스펠은 엘리온을 직시했다.
이 자리에 없는 영주들이 아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귀족의 의무를 다해 저를 도와 제국을 지킨 영웅이 될지.”

선명한 자색 눈동자가 놀라서 크게 뜨인 암녹빛 눈동자와 엇섰다.
아스펠은 턱을 치켜들고 입꼬리만 올렸다.

“그도 아니면 비네시스의 위기에서 눈을 돌리고 지금처럼 영지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지.”

처음 마주했을 때의 카일러스가 그리 했던 것처럼.

“선택하세요.”

“.....”

아스펠은 엘리온이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서 더는 의심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녀는 밝고 해진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부족한 자원 때문에 관리 받지 않은 머리칼은 끝이 상해있었고 극북 지방 특유의 추위로 인해 손끝은 붉게 변해 있었다.

평민처럼 자라 남루했을 생활, 시장바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발음, 우아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몸가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현 상태였다.

그러나.

“선택하세요.”

오만하게 치켜든 턱과 자신만만한 표정, 그리고 호기롭게 올라간 입꼬리를 본 순간 엘리온은 말을 잊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어둡고 더러운 감옥 안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화려하고 찬란한.

고작 손바닥만 한 작은 창에서 들어오는 햇별이 감옥 안을 비추는 빛의 전부거늘 엘리온은 아스펠의 안에서 섬광과도 같은 광채를 목도했다.

그가 섬겨야 할 황제가 눈부신 빛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고귀함을 상징하는 자안이 더없이 선명하고 휘황찬란하게, 하나뿐임에도 제 존재를 강렬히 발산했다.

눈앞의 모든 요소가 엘리온을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 없이 명령하고 있었다.

아, 이 빛 앞에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엘리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경외와 신애를 담아, 충절과 호의를 담아.

엘리온은 그의 새로운 황제에게 무언(無言)의 맹세를 바쳤다.

* * *

엘리온은 손수 철창의 자물쇠를 열어 그들을 풀어주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 수가 다르니 간수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상대가 전선 총사령관이기 때문인지 죄수들의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엘리온은 아스펠들을 자신의 막사로 데려갔다.

임시 사령부로도 쓰이는 엘리온의 거처는 그녀가 지내던 곳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다.

방이 크고 넓은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따듯했다.

‘난방이 장난 아니네!’

피부를 감싼 내부의 공기가 포근했다.

들어오자마자 얼어붙은 손이 간지럽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잠시 이곳에 계셔주세요.”

우아한 귀족의 예를 갖춘 엘리온이 아스펠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영주들에게 전령의 띄우고 오겠습니다.”

“저기, 부탁인데 그거 그만해 주세요.”

“무엇을 말이죠?”

“말할 때마다 일일이 허리를 숙인다거나 예를 갖추는 거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 엘리온은 아스펠을 향해 과할 정도로 깎듯한 태도를 고수했다.

덕분에 오는 내내 아스펠은 수많은 병사들로부터 의문 가득한 시선을 받아야했다.

‘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총사령관께서 저렇게까지 예를 갖추시는 거지?’

굳이 입을 통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질문들이 무거웠다.

아니, 고작 그 뿐이라면 다행이었다.

전방의 병사들은 어리둥절해 할 뿐이지만 요 몇 주간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후방 병사들의 경악서린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면 아스펠은 없던 편두통이 생길 지경이었다.

카일러스에게 몇 번 도움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어깨만 으쓱일 뿐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하기사 엘리온은 아직까지도 카일러스가 뱉는 말의 반 이상을 무시하고 있었다. 둘 사이의 우정이 참으로 눈물겨웠다.

“모시는 주군께 예를 갖추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익숙해지셔야 할 일이니 부디 헤아려주세요, 폐하.”

“.....”

아스펠의 요청을 거절한 엘리온은 다시 한 번 예를 갖춘 뒤 막사 밖으로 나갔다.

엘리온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카일러스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닫힌 문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아스펠의 얼굴이 너무나도 희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 애의 말이 맞아.”

딱딱하게 굳어진 아스펠에게 다가간 카일러스가 평소보다 누그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에틸렌에 가면, 네가 황제가 되면 엘리온보다 더한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야.”

“.....”

“질렸어?”

“조금.”

“너무 이른데.”

“너한테서 폐하, 라고 듣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꺾가에서 들려오는 카일러스의 목소리에 아스펠은 그제서야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긴장이 풀린 듯 갈라진 입술에서 조금씩 아스펠의 속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여전히 나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

“나 자신은 이 몸으로 무엇 하나 이뤄낸 게 없는데.”

간질거리는 손을 씬 없이 꼼지락거리며 아스펠이 눈을 도록 굴렸다.

“황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경애가 무서워.”

“아스펠.”

“미안, 이상한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느껴졌다는 거야.”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아스펠의 안에서 파편처럼 떠올랐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겁이 났어.”

“아스펠.”

“엘리온이, 후작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니까 그제 서야 생각나더라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그러모아 입에 담았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만큼 그녀의 말엔 두서가 없었다.

“내가 이 사람의 위에 서겠구나. 태생 때문에, 이 눈 덕분에. 준비된 것은 무엇 하나 없는데.”

“아스펠, 그만 굶어.”

언제부턴가 손을 굶는 아스펠의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다.
카일러스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나서야 아스펠은 그 사실을 알았다.
굶히고 표피가 벗겨진 손이 쓰리고 따끔거렸다.

“그 날.”

“.....”

“네가 왜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는지 기억해?”

“그래, 기억해.”

언제 준비한 건지 카일러스는 품에서 연고를 꺼내 그녀의 상처 위에 발라주었다.
끈적거리는 흰 점액이 알싸한 고통을 남기며 피부 아래 스며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거야.”

고통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연고를 바르는 카일러스의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웠
기 때문인지 아스펠은 귓가에서 쿵쿵거리던 심장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

다.

"나를 유일한 황족으로 만들어 준 걸 후회하게 해 줄 거야."

"그러면 고작 이 정도에 겁먹으면 안 되지."

"....."

"게다가 너는 이미 네 이름을, 아니 황족의 성을 팔았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물론, 알아."

그녀는 색이 다른 두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뜨인 아스펠의 눈은 타오를 듯이 강렬했고 스스로 빛을 발하듯 선명했다.

"그네들의 앞에선 아스펠 레이덴트가 아닌, 아스펠 비네시스여야 한다는 거지."

".....이름과 성 사이에 신성의 이름이 이것저것 덧붙겠지만, 그래. 골자(骨子)는 그게 맞아."

아스펠은 카일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에 놀란 듯 조금 커다랗게 뜨인 그의 눈을, 그 안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붉고 질었다.

한 없이 어둡고 바닥없이 침잠할 거 같은 홍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아스펠은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았다.

"내 옆에 있겠다고 했었지."

"그랬지."

"언제나 있을 거라고?"

“맞아.”

“.....”

치료를 마친 카일러스의 손이 아스펠에게서 떨어졌다.
아니, 떨어지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계속 이대로 있어줘.”

아스펠이 카일러스의 손을 붙잡아 당겼다.
그다지 강한 힘도 아니었건만 카일러스는 순순히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주었다.

“존경도 충성도 필요 없어.”

아까보다 크게 뜨인 눈이 당황한 감정을 여실히 비쳤지만 벌어진 그의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오로지 너만은, 내 옆에 있는 너는 나를 온전히 아스펠 레이덴트로만 대해줘.”

“.....그 말인 즉.”

카일러스가 눈을 깜빡였다.

“지금까지처럼 너한테 말을 낮춰달라는 거지?”

“응.”

“그거 참.....”

바람 빠진 헛웃음이 카일러스의 입 사이로 새어나왔다.

“불경스런 부탁이네. 내가 어떻게 감히 ‘폐하’께 그럴 수 있겠어?”

“.....”

“고귀한 피를 가지신 황족을 자신과 대등하게 여기는 건 제국 신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느새 그의 흰칠한 얼굴에 빼딱한 비웃음이 걸렸다.
그 미소는 잘난 카일러스의 면상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아스펠의 머릿속에 절로 ‘재수 없다.’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러니 편하게 말을 놓는 일은 있어선 안 되지, 암.”

“.....”

“‘폐하’께는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해 예를.....컹! 야! 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갑작스레 멍치에 꽃힌 주먹에 카일러스가 숨을 토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바라는 대로 해줬는데 대체 왜 맞은 건지 알 수 없어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선 억울하다는 감정이 물씬 풍겨왔다.

“맞아, 잘했어.”

한 편 카일러스의 입에서 나오는 ‘폐하’는 왜 이리도 알뜰하게 들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아스펠은 응어리가 다 풀린 얼굴로 환히 웃었다.
놀랍게도 체한 것 같이 었힌 속이 물리 치료 한 방에 해결되었다.

“이런 걸 원했어.”

“.....”

“고마워.”

기쁨으로 활짝 펴진 아스펠의 얼굴과는 다르게 카일러스의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찌푸려졌다.

그의 입에서 강아지를 뜻하는 비속어가 몇 가지 튀어나왔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스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실이 몹시도 만족스러웠다.

* * *

벽 안쪽으로 침입해 온 마수들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 전선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총 사령관,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는 주변 영주들에게 파발을 띄워 지원을 요청했고 그의 부관들은 병사들과 함께 방책을 쌓았다.

방책을 쌓지 않는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기를 손질하고 갑옷을 정비했다.

싸울 수 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조차 방패를 나르고 화살을 모으는 등 바빠 움직였다.

사방이 무겁고 불안한 공기로 가득했다.

폐가 따끔거리고 숨털이 곤두설 정도로 침예한 분위기는 경험 많은 검사인 카일러스조차 긴장시켰다.

“네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마수와 마주하게 될 거야.”

그는 곧 전선의 선두에 서야 할 아스펠을 향해 걱정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괜찮겠어?”

“이미 후작이 파발을 띄웠잖아.”

숨을 길게 내뿔으며 아스펠이 눈을 감았다.

“영주들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지금부터 나는 비네시스의 황족으로 있어야 해.”

“.....”

“더는 돌이킬 수 없어.”

결연하게 빛나는 그녀의 두 눈을 보며 카일러스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주사위가 던져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스펠의 안에선 이미 확고하게 다가올 상황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의를 품은 사람들에게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테니까.

카일러스는 아스펠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바빠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방책 너머로 펼쳐진 새하얀 눈밭이 그의 붉은 눈동자 안에 담겼다.

“전쟁을 경험한 적 있나?”

“아니, 없어.”

“결투를 본 적은?”

“저자거리에서 패싸움은 많이 봤는데.”

“검을 잡아 본 경험은?”

“음, 부엌에서 식칼을 잡아본 정도.”

“.....”

아스펠이 입을 열면 열수록 카일러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입이 금붕어마냥 소리 없이 벅긋거리길 반복했다.

마치 아스펠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지만 검 한 번 잡아 본 적 없는 일반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중인 것 같았다.

“쓸 수 있는 무기는 있나?”

“어.....”

카일러스의 내적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스펠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도록 굴렸다.

“호신용으로 단검을 가지고 다닌 적은 많은데 써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

“아, 그래도 이제 활 조립은 잘해.”

‘이건 죽겠다.’

언뜻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스펠의 대답에 카일러스는 확신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사(戰死)할 거야.’

달려드는 마수의 발톱 아래 반항 한 번 못하고 스러지는 아스펠의 모습이 카일러

스의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그는 지금이라도 아스펠을 전선 밖으로 피신시켜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17.

이 희디흰 별판이 얼마나 붉게 물들 것인가.

곧 아수라장이 될 별판에 설 아스펠을 떠올린 카일러스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민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새롭게 닦친 시련에, 아니 더 정확히는 고려치도 않고 있었던 상황에 카일러스는 침음을 삼켰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연설을 해 본 적 있나?”

“있어.”

전생의 조별 과제 발표 때를 떠올린 아스펠이 답했다.

“어, 아니 잠깐만. 이걸 해 본 적 있다고 하긴 좀 그런데.”

하지만 수업 시간의 발표와 전투 전 연설의 무게가 같을 리 없었다.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본 적 없는, 아니 병사들의 앞에 서 본 경험자체가 없는 아스펠은 고심 끝에 순순히 제 무지를 인정했다.

“없다고 봐야겠다.”

“끝내주는 군.”

일렬종대로 늘어서 총 사령관의 등장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사들을 본 카일러스가 한숨과 함께 탄식했다.

큰 전투에 나서기 전, 최고 책임자가 병사들에게 격려와 사기를 북돋는 연설을 하는 건 오래전부터 행해진 일종의 전통이었다.

사령관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때론 강하고 힘 있는 말로 병사들을 고무시켰고 고

양된 병사들은 적과 싸울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치르는 관례였고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문제는 전선의 총 사령관인 엘리온이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아스펠에게 넘긴 것에 있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전투 전 연설만큼은 꼭 아스펠이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녀가 최고 사령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히 진심이지. 지금이 장난을 칠 상황이었어?”

“.....”

기막히게도 아스펠은 엘리온의 주장에 동의했다.

기왕 비네시스의 성을 판 김에 그녀는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블리스 노블리주. 강한 부와 권력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잖아?”

“훌륭하십니다, 아스펠 님.”

“.....”

서로를 안 지 얼마나 됐다고 엘리온과 아스펠은 쿵짝이 아주 잘 맞았다.

대체 저 빌어먹을 단어는 누가 가르쳐 준 거냐고 생각하던 카일러스는 끓어오르는 열에 뒷목을 잡았다.

태평해 보이는 아스펠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행복한 엘리온과는 다르게 그는 지금 환장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검 한 번 안 잡아 본 일반인을 단상 위에 세운다는 엘리온이나 연설 경험이 없음에도 병사들을 격려해 보겠다는 아스펠이나 그의 눈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어때?”

100% 진심만을 담아 카일러스가 충고했다.

“네겐 무리일 거 같은데.”

“난 못한다는 말은 안했어.”

“한 거 같은데.”

“해 본 적이 없다고만 했거든?”

“그게 그 말이잖아.”

“아닌데.”

“맞는데.”

입을 연 순간부터 가시를 숨기지 않는 카일러스를 향해 아스펠의 눈이 사납게 치켜떠졌다.

하지만 매서운 그녀의 눈과 마주하고도 카일러스는 코웃음을 칠뿐이었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달리는 걸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 있어.”

카일러스의 심정은 눈곱만큼도 모를 아스펠은 눈살만 조금 찌푸릴 뿐,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일단 생각해 둔 건 있단 말이야.”

“퍽이나.”

“진짜야. 나 못 믿어?”

“.....”

카일러스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는 경멸 서린 눈으로 아스펠을 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단상을 점검하고 있던 엘리온이 그 모습을 보곤 눈살을 찌푸렸다.

“카일러스, 예를 갖춰.”

“넌 제발 좀 닥쳐.”

차마 아스펠에게 화를 전부 쏟을 수 없었던 카일러스는 남은 분노의 화살을 원인 제공자에게 돌렸다.

“이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갓 임관한 장교가 병사들을 고양시키는 연설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도록 드물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긴장감은 둘째 치고 그들을 사지로 몰아야 한다는 죄책감과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되려 연설자를 짓누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카일러스는 단상 위에서 과호흡으로 기절한 어린 장교들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아스펠 역시 그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난 할 거야, 카일.”

끓어오르는 울화 속에서 걱정스러운 감정을 읽어버린 아스펠이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아.”

“.....”

“이젠 무섭지 않아.”

꽃꽂하게 허리를 편 채 앞을 바라보는 아스펠의 눈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카일러스는 다시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스펠은 이미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이 결심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어찌 이리 찬연하면서도 서글픈지.
위를 향하는 아스펠의 발걸음엔 거침이 없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임에도 카일러스는 가만히 그녀가 나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 * *

아스펠이 단상에 오르자 수많은 병사들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총 사령관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서로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야?”

“저 여자가 총 사령관인 하트하르스 후작인 건가?”

“에이, 설마. 아까 봤는데 총 사령관은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

병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한 마디씩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그 수가 수백이 넘으니 사방이 시장바닥마냥 시끄러워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뭐야, 저건 아스펠이잖아?”

“아스펠?”

“왜 무기 가공하는 찰스네 조에 있던 애. 무섭게 생긴 남자랑 항상 붙어 다녔잖아.”

“근데 개가 왜 저기 있어?”

소리가 워낙 크다보니 아스펠은 그들이 떠드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주워들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병사들은 의아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웅성대는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 몸이 저려왔다.

‘역시 조별 과제 발표 때랑은 비교가 안 되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파도가 금방이라도 그녀를 질식사킬 것 같았다.

아스펠은 입 안이 절로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진짜 무섭다.’

이제부터 그녀는 그들을 향해 마수들과 용감히 싸워달라고, 이 전선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야 했다.

영주들에게 부탁한 지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로, 전투의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도 두렵기 그지없는 일을 생면부지인 타인들에게 부탁해야 했다.

‘이번 생에서 이런 도박은 처음인데.’

공포와 긴장, 흥분과 소름이 피부 위를 내달렸다.

아스펠은 입꼬리를 올렸다.

어차피 지금 와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해봐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이미 선택을 내렸다.
그렇다면 그 선택, 즐겨야하지 않겠는가?

“왜 높은 분들이 제지하지 않는 거지?”

“뭘 하려는 거야?”

“설마 제물을 바쳐 신에게 공물로 삼으려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신공양은 바이나 교단 같은 야만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병사들의 불안이 큰 만큼 그에 비례해 그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엘리온은 부관들을 시켜 병사들을 진정시키려했다.
아스펠은 손을 내젓는 것으로 그를 막았다.

“나는 아스펠 레이덴트.”

그리고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로웰 나엘라 칸 비네시스의 딸이자 현 제국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황족이며 다 알라스 루알 칸 비네시스의 뒤를 이을 차기 황제야.”

“.....”

사방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 차기 황제고 황족인 게 무슨 소용이겠어. 지금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힘보다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그대들, 위대한 비네시스를 이루는 근간인 너희들이 힘이!!”

오직 아스펠의 목소리만이.

“무서울 거야. 두렵겠지. 그래, 알아.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녀의 높은 외침만이.

“너희들의 안에 나와 같은 공포가 있는 걸 알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북벽을 뚫고 마수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평화가 깨질지도 몰라, 용기가 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힘 있는 문장만이.

“적어도 그게 오늘이어서는 안 돼!”

귀에 닿는 소리의 전부였다.

“독을 품은 안개가 남하해 우리의 생활터전을 무너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몰라.”

“.....”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이어서는 안돼!”

아스펠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병사들은 어느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그들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서, 좌중을 둘러보는 움직임에서, 타오르는 듯한 시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를 도와줘. 나와 함께 싸워줘. 저 높은 곳에 앉은 귀족들이나 신관들을 위해서가 아닌 내 가족의 안녕과 내 옆의 동료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는, 함께 싸워달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병사들은 아스펠이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쥐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하게 움켜쥔 그녀의 손이 싸워야한다고 외쳤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위해.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

“와아아아!!!”

그들은 아스펠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 올렸다.
강렬한 함성과 외침이 사위(四圍)를 울렸다.
몇몇 병사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거나 무기를 들어올렸다.
분위기는 이 이상 달아오를 수 없을 지경까지 고조되었다.
아스펠은 단상아래 선 카일러스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주었다.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이 참 불만했다.

* * *

군마를 타보는 건 처음이라 긴장한 게 무색하게도 아스펠이 탄 검은색 말은 아주 유순했다.

멋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고삐를 조금만 움직여도 방향을 틀어주었고 무엇보다 갈기를 쓰다듬어도 싫어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속성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말과 친해지기 위해 아스펠은 별다른 목적 없이 방책 근처를 맴돌았다.

방금 전 새로 내린 눈 때문에 말이 내딛는 걸음마다 편자 자국이 찍혔다.
바람소리와 눈 밟는 소리가 꽤 듣기 좋았다.

“아스펠.”

이렇게 혼자 있어본 게 얼마만인지 떠올리려던 순간이었다.
생각하기 무섭게 말을 탄 카일러스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멋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 위험하잖아.”

“본진이 옆드리면 코 닿을 곳에 있는데?”

“검도 못 쓰는 넌 코가 닿는 동안 마수들의 한 입 식사거리가 될 걸.”

“.....”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아스펠은 허리에 찬 보석 박힌 검을 바라보았다.

엘리온이 준 이 화려하기 짝이 없는 검은 날도 예리하고 검신도 튼튼한 이른바 명검이었다.

그러나 두 생을 통틀어 목검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그녀는 이 훌륭한 검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자신이 있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다름 아닌 이럴 때 쓰는 말이라.

“네가 쓸래?”

허리에서 달랑거리는 검을 눈짓하며 아스펠이 물었다.

“거절하지.”

질문하기 무섭게 눈살을 찌푸린 카일러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 검은 엘리온이 네게 준 거야.”

“절대 못쓸 자신 있는데.”

“.....부정 못하겠군. 하지만 그 검은 미약하나마 네 신분을 증명할 거야. 그냥 가지고 있어.”

기껏 멋들어지게 태어났는데 그 주인이 검술에 무지한 일반인이라니. 검은게 의지가 있었다면 제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했을 것이다.

“아스펠.”

“응?”

“부탁이니 이제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뭐?”

더러움 한 점 없는 설원을 감상하고 있던 아스펠이 고개를 돌렸다. 이제부터 마수와 싸우게 될 텐데 이제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가볍고 장난스러운 그녀의 시선과는 다르게 카일러스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다.

“지금부터는 한 발 앞으로 잘 못 디터도 네 목숨이 날아갈 거야.”

“그야 그렇겠지. 그 무시무시한 마수와 싸우는 거니까.”

“아니, 넌 몰라. 마수와의 싸움은 네 고향에서 마법 병사를 상대했던 일이나 콜른

에서 귀족에게 대들었던 것과는 급이 달라.”

“.....”

“그러니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위험할만한 일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아스펠에게서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 카일러스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아스펠은 그제서야 그가 미약하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일러스의 불안은 이제부터 상대할 마수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의 공포는 혹시 모를 아스펠의 상실이었다.

18.

“엘리온.”

단상에 오른 아스펠이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카일러스는 입을 열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말했잖아.”

카일러스의 물음에 엘리온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의 머리 위에 선 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그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릴 필요는 없잖아.”

엘리온 대신 나타난 아스펠의 모습에 병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특히 엘리온을 모시는 부관들은 왜 그가 아닌 아스펠이 단상 위로 올라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엘리온은 그들의 의문에 답해주는 대신 얼굴을 일그러트리고 있는 카일러스를 향해 말에 답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면 대체 왜.....”

“내가 그러고 싶었으니까.”

“.....”

“그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각도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녹색 보석안이 기대와 즐거움을 담아 반짝였다.

마치 알록달록한 벌레의 날개를 잡아 뜯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하고 잔인무도한 모습이었다.

더없이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던 표정을 마주하게 된 카일러스는 토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지금 그녀를 시험하는 거야?”

“맞아.”

“.....엘리온.”

“왜 화를 내지? 수도의 너구리들 앞에 서는 것에 비하면 전선의 병사들 앞에 서는 건 우스울 정도로 간단한 일이잖아.”

“그건 전쟁을 경험해 본 너나 나의 이야기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입 안쪽을 씹으며 어떻게든 화를 억누른 카일러스가 엘리온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아스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단에서 주판이나 굴리던 애야. 전쟁이나 마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놀라운데? 네가 이 정도로 그녀를 과보호하다니.”

냉기서린 햇바닥 밑에서 끓어오르는 미미한 열을 눈치 챈 엘리온이 감탄했다.

“내 생각대로라면 둘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

"아니, 그보단 네가 타인에게 정을 주는 모습이 놀랍다고 해야 하나?"

서로에게만 겨우 들릴 거리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카일러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엘리온은 그런 그를 보며 더욱 활짝 웃었다.

"나는 항상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거 참,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온의 눈은 전혀 기쁘지도 서운하지도 않아 보였다.

카일러스는 말로만 서운해하는 엘리온을 향해 코웃음으로 답했다.

함께 한 지 어언 10년, 엘리온이 카일러스를 아는 만큼 카일러스도 엘리온을 알았다.

황가에 바치는 충성심과 가문을 위한 헌신과는 별개로 엘리온은 타인에게 흥미 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부류였다.

그에게 있어 사람이란 재미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뿐이었다.

인간성만 놓고 보자면 가까이해서 좋을 게 없는 부류였다.

"나는 그녀에게 바라는 게 있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카일러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목적을 이뤄줄 때까지 아스펠은 망가져선 안 돼."

카일러스는 스스로를 조소했다.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가 엘리온과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럼 이 정도는 시험해 볼 만 하잖아.”

온화하고 나긋나긋한 분위기를 풍기며 엘리온이 미소지었다.

“나 역시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걸.”

감옥 안에서 마주했을 때부터 그는 시종일관 그러했다.

평온하고 이질적이고 어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몽환적인 그 모습은 얼핏 현실감이 없어보였지만 이율배반적이게도 엘리온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다.

냉혹하고 비정한 건 물론이고 그는 사람을 쉬이 재단하고 시험하곤 했다.

이 때문에 카일러스는 그가 계획한 모든 일을 엘리온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해왔다.

어딘가 비틀린 엘리온의 사고를 처음부터 마주했다면 아스펠은 이미 진즉 해외로 도피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건 내가 하트하르스이기 때문이잖아.”

“난 그저 내가 본 빛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빈정대는 카일러스의 말에도 엘리온은 기분 나쁜 기색 한 번 없이 답했다.

그의 시선이 단상 위에서 손가락 하나 꿈쩍도 않고 있는 아스펠을 향했다.

“네가 왜 그토록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

“누가 누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엘리온의 시선을 따라 잔뜩 긴장한 아스펠을 바라본 카일러스가 입술을 짓씹었다.

“그리고 네가 아스펠을 통해 대체 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 것도 알아낼 수 없을 거야.”

애초에 아낀다는 것과 근거 없는 기대를 거는 것은 그 뿌리가 달랐다.

카일러스에게 아스펠은 더없이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건 엘리온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뿐더러 이런 시험으로는 알아낼 수 있을 리 없는 종류였다.

더불어 냉정하게 말해 카일러스는 아스펠이 이런 상황에서까지 남과 다르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상냥하다는 것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토끼와 사자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려 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래? 그럼 넌 왜 지금 이곳에 있지, 카일러스 폰 아이기스?”

그러나, 단 한 사람.

카일러스의 앞에서 쓸데없이 눈을 빛내고 있는 엘리온 폰 하트하르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왜 아직도 에틸렌이 아닌 이런 북쪽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건 그냥 어쩌다보니.....”

“아니, 그게 아니지.”

처음으로 카일러스를 향한 엘리온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잠깐 본 걸로 알았어. 카일러스, 너 그녀에게 휘둘리고 있잖아.”

“.....”

“도망칠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는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까지 아직도 전선에 남아 있다니. 이게 정말 네 계획이었어?”

“.....”

“나에게서 숨기면서까지, 네가 하고 싶었던 게 고작 이런 거였던 거야?”

빈정대는 엘리온을 향해 카일러스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떠올려보면 카일러스는 단 한 순간도 아스펠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자발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는 매 순간 아스펠을 의식했고 그녀의 의지를 따랐다.

“나도 보고 싶어.”

선물을 조르는 아이처럼 엘리온의 녹안이 빛을 품었다.

그는 이제 카일러스를 향한 시선에서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다.

“너만이 그녀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건 불공평해. 나도 그녀의, 아스펠의 그릇을 알고 싶어!”

침묵하는 카일러스를 뒤로한 채 아스펠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엘리온은 부관들을 시켜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나는 아스펠 레이덴트.”

그러나 그 순간, 꿈쩍도 않고 있던 아스펠이 처음으로 손을 내저으며 움직였다.

“로웰 나엘라 칸 비네시스의 딸이자 현 제국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황족이며 다 알라스 루알 칸 비네시스의 뒤를 이을 차기 황제야.”

그리고 세계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충격적인 아스펠의 고백에 좌중이 모두 침묵에 잠겼다.
입을 다문 건 엘리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들을 둘러보며 한걸음앞으로 나선 아스펠이 외쳤다.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그대들, 위대한 비네시스를 이루는 근간인 너희들이 힘이!!”

위대한 비네시스를 이루는 근간이라니.
카일러스는 헛웃음을 흘렸다.
소리가 사라진 세계에서 아스펠은 유일무이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였다.
넋이 나간 엘리온을 보며, 흡입력 있는 그녀의 연설을 들으며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향한 제 판단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째서 그가 그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는가?
왜 그는 화를 내면서도 그녀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들어주었는가?

‘그녀가 특별하니까.’

엘리온의 말이 맞았다.
아스펠은 그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였다.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다.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두 눈을 가득 메우는, 두 귀를 가득 울리는 그 눈부시고 찬연한 존재감에 카일러스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 함께 싸워줘. 저 높은 곳에 앉은 귀족들이나 신관들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가족의 안녕과 내 옆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의 생을 통틀어 그녀만이 유일했다.
타인을 위해 나설 정도로 상냥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러모을 정도로 강렬한.
그런 존재감을 가진 이는 카일러스가 아는 한 아스펠 뿐이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위해!”

그러니 이런 그녀를 어찌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

“와아아아!!!”

카일러스는 그제서야 엘리온이 말한 그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상 위에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그녀는 그야말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신,
그 자체였다.

* * *

“우리가 모실 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돼서 기뻐.”

“.....”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일러스는 엘리온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아스펠의 연설이 끝난 후 황홀한 표정을 지은 그는 지금도 반쯤 낮이 나가 있었

기 때문이다.

카일러스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역시 연설만으로는 아스펠 님의 위엄을 증명하긴 부족한 거 같은데, 뭐 좋은 장
신구가 없을까?”

“.....”

“아, 젠장. 보석이고 뭐고 제대로 들고 온 게 하나도 없네.”

“.....”

“그나마 쓸 만 한 건 이 검뿐인가? 카일러스, 이 검 좀 봐줘. 어때? 아스펠 님이
좋아하실까? 응?”

가진 짐을 전부 뒤엎은 끝에 엘리온은 겨우 아스펠이 차고 다닐만한 검 하나를
발견했다.

검 손잡이엔 커다란 사파이어가, 그리고 검 집에는 수많은 다이아와 에메랄드가
박힌 화려하기 그지없는 검이었다.

“꿀값 댄다.”

카일러스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 검은 엘리온이 성인식 날 부모님에게 선물로
받은 검이었다.

검도 검집도 일류 장인 수십이 달려들어 만든 물건이라 들었다.

검 날은 바위를 썰고도 날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리했고 세공 또한 아름다워
예술적 가치도 상당한 명검이었다.

그런 훌륭한 물건을 잡아본 칼이라곤 부엌 칼밖에 없던 아스펠에게 준다니.

“차라리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라.”

카일러스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빈정거림을 담아 비꼬았다,

“그게 무슨 불경한 소리야, 카일러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쓰인 건지 그도 아니면 드디어 미쳐버린 건지 엘리온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진주 목걸이가 있다면 아스펠 님에게 바쳐야지!”

“.....”

‘미친 놈.’

악마의 가문이라는 하트하르스 가문의 자손들이 대대로 미쳐있다는 소문은 과연 사실인 듯 했다.

위대한 아스펠님이 어찌고 그분의 광채가 저찌고.

더는 들어줄 수 없어 카일러스는 엘리온을 막사에서 내쫓았다.

“여긴 내 막사인데!”

“가서 아스펠님이나 찾아.”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절부절 못하고 화를 내던 엘리온은 이제는 억울해 하며 울 것 표정을 지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정신없는 감정 기복에 피곤함을 느끼며 카일러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 그 빌어먹을 검을 줄 수 있을 거 아냐.”

“그분이 이 검을 마음에 들어 할까?”

아니.

“물론이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소와 같은 평온한 어조로 카일러스가 말했다.
10년지기 친구인 엘리온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감쪽같은 거짓말이었다.
카일러스는 제 거짓말이 들켰을 때의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서 엘리온을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카일러스는 제 부모라도 팔 수 있었다.

“기빠서 어쩔 줄 몰라 할 걸.”

“아, 그럼 다행이다!”

당황하고 꺼림직한 얼굴로 검을 받아들 아스펠의 얼굴이 눈에 뵈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스펠을 찾아 달려가는 엘리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카일러스는 어째서인지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그 화려함의 극을 달리는 검은 결국 아스펠의 허리에 걸리게 되었다.

카일러스의 생각대로 그녀는 엘리온의 호의를 거부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검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자신이 이런 명검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몹시도 불편해했다.

하지만 카일러스는 이번만큼은 엘리온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다.

값비싼 보석과 우아한 세공으로 장식된 검은 임시지만 아스펠의 지위를 상징해 줄 것이다.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니 오히려 못마땅했지만 기품도 우아함도 없는 지금의 그녀에겐 그러한 물건이라도 필요했다.

“아스펠.”

“응?”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원의 끝을 응시하고 있던 아스펠의 말간 눈이 카일러스를 향했다.

선홍의 붉은 눈과 유리알 같은 자안.

색이 다른 두 눈동자는 밑바닥이 보이는 호수같이 투명하게 의아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카일러스의 얼굴을 비쳤다.

생각하는 것이 훤히 나타나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며 카일러스는 문득 걱정이 솟구쳤다.

‘황성에서도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데.’

아스펠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무서울 정도로 뚜렷하게 피부 위에 덧씌웠다.

사교계의 인사들에게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진한 모습이었다.

정치의 권력싸움이나 물밑 암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작고 여린 여자.

이렇게나 평범한 인간의 어디에서 그런 힘 있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까?

카일러스는 반시간 전 있었던 아스펠의 연설을 떠올렸다.

듣기만 해도 심장을 저릿하게 만들던 아스펠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지축을 흔들던

병사들의 고함소리와 희열에 찬 엘리온의 얼굴이 아직까지도 생생했다.

흥분, 고양, 환희, 희열.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생각이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모든 순간순간이 카일러스의 뇌리에 새겨지듯이 각인되었다.

카일러스는 자신이 그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부탁이니 이제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뭐?”

그런 특별한 순간을 이 평범한 여자가 만들었다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열빠져 보이는 아스펠의 얼굴에 카일러스는 지독한 괴리감을 느꼈다.

눈부신빛으로 수백의 눈동자를 휘어잡았던 여제는 어디 가고 이런 바보 같은 얼굴만이 남은 건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는 아스펠의 표정을 보며 카일러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런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니.’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자니 머리가 다 아파왔다.

어째서인지 엘리온의 빈정거림이 아직까지도 귓가에서 맴돌았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애의 말에 휘말려봤자 손해일 뿐인데.’

어째서일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카일러스는 그녀의 의사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한 발 앞으로 잘 못 디더라도 네 목숨이 날아갈 거야.”

“그야 그렇겠지. 그 무시무시한 마수와 싸우는 거니까.”

“아니, 넌 몰라.”

아스펠은 아무것도 몰랐다.

노련한 귀족들을 상대하는 법도 비네시스 최후의 황족으로서 무엇이 최선인지도, 심지어 그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지도 모르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카일러스의 전망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마수와 의 싸움은 네 고향에서 마법 병사를 상대했던 일이나 콜른에서 귀족들에게 대들었던 것과는 급이 달라.”

아스펠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이었다면 카일러스는 이토록 그녀를 걱정하지 않았을 터였다.

남을 위해 나서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우선시했다면.

그녀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카일러스도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약속해.”

하지만 아스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이 카일러스에게 있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그에게 있어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타적인 인물이자 타인의 시선을 끌어 모을 줄 아는 제왕의 자질까지 갖춘 인물.

순진하고 무지하고 멍청하면서도 얼빠진.

사랑스러운.

아스펠을 향한 갖가지 감정이 카일러스의 안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그 스스로가 이토록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았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몰려오는 건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카일러스는 아스펠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위험한 일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붙잡지 않는다면 아스펠은 금방이라도 그 목숨을 불태워 스러질 것 같았다.
강렬하고 환하게.
제 안의 빛으로 수만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런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에 카일러스의 손이 절로 떨려왔다.

“약속해, 아스펠,”

“그건 어렵겠는데, 카일.”

말뿐이라도 순간의 안심을 바랐건만.
아스펠은 그런 카일러스의 기대를 산산이 깨트렸다.
두려움에 찬 그와는 달리 아스펠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덜덜 떠는 카일러스의 손을 마주잡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부터 마수와 싸우러 갈 건데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니.”

“.....”

“그게 무리라는 건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불만스러운 듯하면서도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문 카일러스를 향해 아스펠은 고삐를 틀었다.

훈련이 잘 된 검은 군마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카일러스의 곁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차라리 네가 날 지키겠다고 약속해.”

“아스펠?”

코앞에서 속삭이는 아스펠을 모습에 카일러스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는 그녀의 긴 검은 속눈썹과 그 아래 빛나는 홍채의 동공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지키겠다고.”

아스펠은 떨리는 카일러스의 손을 좀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마수들이 내게 손톱하나 댈 수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

“경험상 사고치지 않겠다는 내 약속보단 날 지켜주겠다는 네 약속이 더 믿을 만하잖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물론이지. 내가 여기서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건 네가 하루 종일 내 옆에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잖아.”

“.....”

카일러스의 무서운 표정을 흉내 내듯이 아스펠이 미간을 찌푸려보았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섭긴 커녕 하찮아 보이는 그 모습에 카일러스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다.
정말이지, 어째서일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카일러스는 아스펠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걷는 길의 끝을 보고 싶었다.
아니, 할 수 있다면 그 길의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었다.
리가 최선이라 여기는 것과 마음이 향하는 곳은 이토록 달랐다.
카일러스는 긴 한숨을 내뿜었다.
성격도 태도도, 아스펠은 한 달 전 로웰의 무덤에서 만났을 때와 그 무엇 하나 달
라진 게 없었건만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은 어찌 이리 널을 뛰는 건지.
아무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벗어나도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한탄 그리고 아스펠을 향한 기대와 동경을 담아 카일러스는
맹세를 입에 담았다.

“좋아, 약속할게.”

달싹이는 그의 숨소리가 금방이라도 바람결에 흩날릴 것처럼 작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죽는 건 내 죽음 이후야.”

하지만 가까이 있던 아스펠에겐 그의 말 한 마디에 담긴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크게 다가왔다.

“부탁이니 날 죽게 하지 말아줘.”

되도록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카일러스의 손은 더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더는 불안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 속의 모든 명검과 명마에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마수의 무리가 가깝다는 정찰병의 신호에 병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렬하고 있던 때였다.

팽팽한 긴장감과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말고삐를 짊 쥐고 있던 아스펠을 향해 옆에 있던 엘리온이 말을 걸었다.

“뛰어난 황제나 장수에게 이름이 붙듯이 무기나 말에도 이름이 붙습니다.”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그의 목소리는 사방에 내려앉은 공포와 투기 서린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앞으로 마주할 마수가 두렵지도 않은 지 여상스런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붙은 이름은 적들에겐 두려움을, 아군에겐 용기를 북돋아주는 상징이 되죠.”

“그건 그 명검과 명마를 쓰는 사람이 역사에 남을 일화를 남겼을 때의 이야기 아닌가요?”

엘리온의 눈이 그녀의 검과 말에 닿아 있는 것을 깨달은 아스펠이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남을 겁니다.”

그런 아스펠을 향해 엘리온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녹아든 신뢰가 어찌나 곧고 단단하던지 아스펠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그 단어들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부터가 그 시작인 겁니다.”

“그럼 엘리온의 말대로 미리 이름을 지어놔야겠군요.”

그의 견고한 신뢰에 보답하고자 아스펠은 새하얀 검 집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는 동안 그녀가 탄 검은 말은 투레질 한 번 없이 얌전히 자리를 지켰다.

“음, 잘 안 떠오르네요.”

이름 짓는 것엔 영 재능이 없는 아스펠은 금방 골머리를 앓았다.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이름은 눈에 담으셨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런데 정해도 되요?”

“물론이죠. 요정왕의 명마 지크프리트도 선선대 황제의 명검 솔레아즈도 제 아버지의 애마 사랑의 추적자도 전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 합니다.”

“야, 잠깐만. 마지막이 이상하잖아.”

“자, 아스펠 님.”

아스펠의 왼편에 서 있던 카일러스가 그들의 대화에 이상함을 느끼고 끼어들었지만 엘리온은 그런 그를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 검과 말을 보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 음.....”

검은 말과 하얀 검.

형태나 용도는 둘째치고 대조되는 색깔이 가장 먼저 아스펠의 눈에 띄었다.

엘리온의 조언대로 아스펠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하양이랑 까망이?”

“이 이름은 적에겐 두려움을, 아군에겐 용기를 주는 상징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다시 잘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좋은 이름이군요!”

한심하다는 카일러스의 눈빛이 다 쏟아지기도 전에 그의 말을 끊은 엘리온이 눈을 빛내며 아스펠을 칭찬했다.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입니다!”

이름을 말한 아스펠조차 반신반의 했지만 엘리온은 크게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개성 넘치고 훌륭한 이름입니다.”

“.....”

옆에서 카일러스가 엄병을 떠다고 중얼거렸다.

혼잣말이었지만 아스펠과 엘리온, 두 사람에게겐 충분히 들릴만한 소리였다.

“무기를 들어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새긴다!”

어느덧 멀리서부터 먼지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이번에도 카일러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엘리온이 허리에 찬 검을 빼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신앙과 조국, 가족과 명예를 위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을 위해!”

“충고해 줄 때 들어. 그 동네 개한테나 붙일 법한 이름은 최대한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엘리온의 고개가 아스펠을 향하지 않은 사이 카일러스가 쩍싸게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까딱 잘못하다간 까망이를 타고 하양이를 든 황제 아스펠이란 이름이 역사서에 영영 기록되어 버릴 테니까.”

“.....”

참으로 뼈아프면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였다.

그딴 기록은 누구도 읽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아스펠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는 사이 엘리온의 검이 앞을 향했다.

“전군, 돌격!”

전투의 시작이었다.

날카로운 발톱, 예리한 이빨, 뿔뿔한 검은 털, 희번덕거리는 동공 없는 눈을 가진 이형의 생물체가 마수라는 괴물이었다.

재판 이후, 마수 전선으로 끌려 온 죄수들 중 경비병인 잭과 마이크는 유일하게 전방에 배치되었다.

검을 잡아본 적 있는 병사라는 게 그 이유였다.

“나,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마수 한 번 본 적 없는 후방과는 달리 전방의 풍경은 끔찍했다.

땅 속을 기는 마수부터 하늘을 나는 마수, 나무나 바위로 위장해 몸의 색과 질감을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수부터 수십의 병사가 달라붙어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마수까지.

하루 종일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사방이 마수천지였다.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전방에 배치된 그 순간부터 마이크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보다 훨씬 단련된 병사들이 앞에 서 있어도 신성으로 둘러싸인 벽이 마수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는 몸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낮선 환경, 미지의 생물체, 별세계 같은 공기.

하루아침에 뒤바뀐 환경 속에서 마이크는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안엔 대체 뭐가 들은 건지 매 순간 숨이 막혀왔고 마수들의 울음소리나 비명을 들을 때마다 몸이 천근같이 무거웠다.

마이크는 자신이 이 땅에서 저항 한 번 못해 보고 죽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이크! 정신 차려, 마이크!”

매일 밤 악몽 속에서만 나타나던 그의 공포는 이윽고 현실이 되었다.

그를 향해 달려드는 마수를 눈에 담았음에도 마이크는 손에 쥔 검을 휘두를 수도 뒤를 돌아 도망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손발이 나무뿌리가 얽힌 것 마냥 꿈적도 안했다.

정체 모를 찌든한 공기가 그의 피부 위를 짓누르고 불태우고 있었다.

“젠장, 너 이대로라면 죽어!”

“잭!”

멍청하게 입만 벌리고 있던 그를 두고 볼 수 없던 잭이 몸을 날려 그를 제자리에서 밀쳤다.

그 다음 순간 거대한 삼지창 같은 뿔을 가진 마수가 마이크가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 모든 일이 눈 한 번 깜빡일 찰나에 이뤄졌다.

“너 이 자식!”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마이크는 저 공포한 마수의 뿔에 몸이 꿰뚫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정신 못 차려? 죽고 싶은 거야?”

“하, 하지만.....”

“어서 일어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기서 자포자기 하는 건 너 답지 않아!”

“나, 나는.....”

잭은 낮이 나간 그를 다그쳤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손가락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마이크는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책의 말 대로 여기서 포기하는 건 평소 억척스런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에 온 그 순간부터 통제를 벗어난 몸은 공포에 잠식돼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그만이 그러했다.

모두가 멀정히 걸어 다니고 편안하게 숨을 쉴 때 그는 온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나는 무리야.”

“무리긴 뭐가 무리야! 어서.....”

바로 그 때 멀리서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뿔피리 소리는 크고 길게 여러 번 울려 퍼졌다.

제국 병사로서 훈련받은 책과 마이크는 단번에 그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 지 깨달았다.

“지원군이다!”

“뭐? 지원군이라고? 어디서?”

“저기 봐, 아르틀란 변경백의 깃발이야!”

“베르딜런 백작의 깃발도 있어!”

눈이 좋은 서쪽 지방 출신의 병사들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깃발의 문양을 알아보았다.

환호성과 함께 들려온 그들의 말은 병사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들었어?”

책과 마이크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듣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을 한다는 변경백의 정예와 전쟁영웅의 병사가 지원군으로 왔어!”

“지원군이.....!”

두 사람의 얼굴이 단박에 환해졌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마이크의 몸은 여전히 마수와 싸우길 거부했다.
평소 훈련했던 내용들을 전부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그의 팔은 검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역시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제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거대한 마수를 눈앞에 둔 그는 검을 휘두르는 대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야, 마이크! 저 바보가 정말!”

“무슨 일이지?”

그 때 그들을 향해 달려들던 마수를 단칼에 베어 넘긴 남자가 말을 멈춰 세웠다.
자리에서 도망치려던 마이크는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말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기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햇빛에 반사된 눈 때문인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왜 여기서 멈춰 서 있는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물었다.
마이크는 어쩐지 그 목소리가 귀에 낯익다고 생각했다.

“진군에 방해 된다.”

“아, 제 친구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쳤나? 그럼 어서 뒤로 빠져라.”

손끝으로 후방을 가리키는 그의 얼굴이 차츰 빛에 익숙해진 마이크의 눈에 들어왔다.

“종류에 따라선 마수의 이빨이나 손톱에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해.”

“아, 너는!”

타오르는 듯한 붉은 머리와 그보다 짙은 선홍색 눈동자.
예리하게 버려진 칼날을 연상시키는 얼굴과 날카로운 공기를 몸에 두른 남자는
마이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철천지원수.
바로 카일러스였다.
카일러스는 이번에도 한 박자 늦게 마이크의 얼굴을 알아본 듯 했다.
아, 라는 짧은 탄성을 남긴 그는 마이크를 위아래로 한번 훑곤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냐고?”

수도의 경비를 맡을 정도로 잘 나가던 그를 등쳐먹어 강등시킨 것도 모자라 이런 추운 북쪽 전선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뭐가 문제냐고 묻다니!

공포로 물들었던 그의 속내가 분노로 물드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너 때문이잖아, 이 자식아!”

마이크는 카일러스를 향해 소리쳤다.

마수 앞에서는 꿈쩍도 않던 그의 손가락이 카일러스를 향해선 너무나도 쉽게 올라갔다.

“평범하게 잘 지내던 날 마수 앞에 던져놓고 뭐? 뭐가 문제냐고? 무서워 죽겠다! 마수 앞에 서면 숨쉬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주 죽을 맛이라고!”

“.....”

“다들 어떻게 이렇게 타는 듯한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난 금방이라도 죽을 거 같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가졌어! 널 만나고 전부 망가져 버렸다고!”

“야, 마이크.....”

“책임져! 망가진 내 인생 책임지라고!”

“푸핫!”

잭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던 마이크의 분노 사이로 또 다른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밝은 붉은 색과 투명한 자안을 가진 긴 머리의 여자였다.

언제 다가온 건지 검은 말 위에 쓰러지다시피 앉아있는 그녀는 어깨를 떨며 웃음을 삼키고 있었다.

“큘, 아하, 아하하! 내 인생 책임지래! 아하하!”

정정.

웃음을 삼키려 노력했지만 금세 실패해 버렸다.

배를 잡고 깔깔대는 여자를 보며 카일러스의 한쪽 눈썹이 못마땅하단 듯이 치켜 올라갔다.

“그게 그렇게 웃습니까?”

“웃기지. 너한테 버림받은 연인 같은 대사였잖아.”

그녀는 이제 눈물까지 닦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서나 들을 법한 대사였다고. 이걸 현실에서 듣게 되다니,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아, 아, 아스펠 폐하!”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을 마이크도 잭도 단번에 알아보았다.

콜론에서 만나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단상위에 서서 지금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아스펠은 카일러스와는 다른 의미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비네시스의 마지막 황족이자 차기 황제가 될 여자.

황족이라는 건 둘째 치고 비네시스에 남은 후계가 아스펠, 그녀 한 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당연히 마이크는 그녀가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콜론에서 그를 재판장에 밀어 넣게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아스펠이 모두를 향해 그 세치 혀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스펠의 연설에 환호했던 만큼 그녀의 말을 믿었다.

다알레프 3세가 서거 한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다음 황제가 망토 끝자락 한 번 보여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선의 총 사령관인 엘리온은 아스펠을 향해 매 순간 과할 정도로 깽뚫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하트하르스 가문은 비네시스 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귀족이었다.

몇 세대를 지나도 황제를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보여준 가문의 후작이 보여준 태도는 모두에게 아스펠의 신분을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잭이랑 마이크였지? 우리 오랜만이네.”

그런 그녀가 대체 왜 콜론에서 그들과 드잡이질을 하게 된 건지, 마이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황족이라면 황족이라고 처음부터 말을 할 것이지 왜 정체를 감춘 채 그들을, 아니 자신을 이런 상황까지 몰아세운 거란 말인가?

“한 달 만인가? 전방에 있었나봐. 후방에선 모습이 안 보이더라.”

“폐, 폐하.....그 때의 무례는.....”

하지만 이제는 억울하다고 콜론에서처럼 곧이곧대로 그녀를 향해 따질 수 없었다. 상대는 그 하트하르스 후작조차 고개를 숙이는 비네시스의 황족이었다.

차기 황제였다.

감히 넘볼 생각조차 하기 힘든 신분차이가 어느새 그들 사이에 자리했다.

“하지만 변한 건 별로 없네.”

마이크의 안색은 이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난 날 저지른 무례는 물론이고 그녀가 단상에 선 그 순간까지 떠올렸던 무례한 생각들이 그의 발을 저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 일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덜덜 떨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는 마이크를 향해 미소지은 아스펠이 속삭였다.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남 탓만 하는 것도 변함없잖아.”

“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스펠 폐하. 하, 하, 한 번만 용서를.....”

“한 번? 한 번의 용서만으로 되겠어? 너 방금 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진 기억 안나?”

“그, 그건.....”

“그리고 너 애가 누군지는 알아? 나는 황족인데 애는 뭐일 거 같니?”

“.....”

“뭐가 아니더라도 네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진 말아야지. 그런 개 같은 버릇은 대체 누가 가르쳐 준거니? 네 부모님?”

“제발 그만 해, 아스펠.”

“왜 그만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온 아스펠의 말에 마이크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카일러스의 정체를 가늠하듯이 그를 보는 마이크의 눈은 공포를 넘어 패닉에 빠져 있었다.

이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카일러스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스펠을 말렸다.

카일러스가 그의 앞으로 다가오자 아스펠의 눈이 사납게 번뜩였다.

“뭐하러? 너 아직 사과 못 받았어.”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 넌 그런 말을 듣고 화도 안나?”

“그래, 안나. 게다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몸이 굳은 마이크의 옆에 서 있던 잭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카일러스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는 아스펠이 입꼬리만 올린 채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용하게 강렬하게, 아스펠은 분노하고 있던 것이다.

차갑게 굳어진 그녀의 눈은 이 이상 매서울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마이크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선순위를 잊지 마.”

“.....좋아, 알았어. 지금은 넘어갈게.”

그 말은 꼭 나중엔 반드시 이 일을 따져 묻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후배에 신변에 대한 걱정과 황족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이 잭의 피를 바짝바짝 마르게 했다.

“그럼 마이크, 너 말은 탈줄 알아?”

“예? 예. 타, 탈줄 압니다.”

“그럼 이리 올라와.”

“네?”

튼금없는 그녀의 말에 마이크가 바보처럼 눈을 깜빡거렸다.

아스펠은 그런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내 뒤로 올라오라고. 와서 고삐 좀 잡아.”

“.....”

“바라는 대로 네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아스펠.....”

영문 모를 그 말에 잭도 마이크도 어안이 빙빙해졌다.

하지만 아스펠은 두 번 말하지 않았다.

오직 카일러스만이 그녀의 의도를 눈치 챈 듯 길게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눈은 웃고 있지 않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을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21.

벽에 구멍이 뚫린 그 때부터 마이크는 매 순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수의 이빨에 꿰뚫려 죽을까, 손톱에 갈려 죽을까 그도 아니면 과다출혈로 혹은 중독으로 죽게 될까.

공포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는 그 자신의 수많은 죽음을 상상했다.

“뛰어내리신다고요?”

“그래.”

하지만 맹세컨대 그 중 결코 낙사는 없었다.

태연자약한 아스펠의 대답에 마이크는 슬쩍 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금이 절로 저리는 아찔한 높이에 금방이라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여기서요?”

“응.”

허끝까지 올라온 미쳤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건 초인적인 인내심 덕이 아닌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공포심 때문이었다.

발아래에는 뚫린 구멍을 향해 몰려드는 마수들이 수두룩했다.

대다수가 강력한 신성결계에 몸이 녹아내려 제대로 된 형체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벽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누군가 독 안개 속에서 마수들을 조종하고 있는 건지 그도 아니면 인간을 죽이고 자 하는 강력한 종족본능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지.

신성력에 몸이 불타오르면서 벽을 향해 달려드는 마수들은 흡사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들 같았다.

제 목숨 따윈 개의치 않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참으로 징글징글하면서도 역겨운 광경이었다.

마이크는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다.

마수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지 한층 짙어진 공기의 밀도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의 호흡을 더욱 가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수를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가득한 마수들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전선도,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아스펠도.

귀를 가득 메운 마수의 비명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마이크는 어쩌다 제 처지가 이렇게까지 비참해 진 건지 고민했다.

* * *

아르틀란 후작과 베르딜런 백작이 몸소 이끌고 온 병사들 덕에 수세에 몰리고 있던 싸움은 눈 깜짝할 사이 균형을 회복했다.

그들의 가세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 건 물론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병사들은 훌륭한 연계로 사나운 마수들의 기세를 한 풀 꺾어 놓았다.

더불어 늦게나마 달려온 페르온 백작과 루빅 남작의 가세로 그들은 무려 몰려오는 마수의 다섯 배 이상의 병력을 갖게 되었다.

엘리온은 이 틈을 타 발 빠르게 진격했다.

그의 빈틈없는 지휘 하에 병사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마수들을 쓰러트렸다.

협조적인 원군들과 드높게 올라간 사기, 그리고 엘리온의 적절한 작전들이 맞물리며 전투가 벌어진지 고작 나흘 만에 그들은 북벽의 지척까지 전선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마수들의 기세가 잠시 주춤한 그날 밤, 전령과 마도구를 통해서만 작전을 주고받던 지휘관들은 마침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작년 봄 기사 서훈 이래로 처음이군, 엘리온.”

“페르온 백작.”

엘리온의 천막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건 것처럼 젊은 나이에 가주가 된 리올 폰 페르온 백작이었다.

일평생 단련에 힘써왔다는 걸 증명하듯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의 당당한 보무는 보기만 해도 몹시 위협적이었다.

천장에 닿을 듯한 백작의 큰 키와 혈색 좋은 얼굴을 눈에 담은 엘리온은 특유의

생글거리는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다시 보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뭐야 갑자기.”

젯빛 섞인 어두운 금발 사이로 보이는 그의 갈색 눈이 불만과 의아함을 담아 일그러졌다.

“웬 존댓말이야?”

“그러는 당신은 왜 반말입니까?”

“.....너 뭐 화났어?”

“그럴 리가요.”

요상해지는 분위기에 페르온 백작은 그제서야 엘리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온은 여전히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북쪽 귀족들의 희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착취하기만 하려는 저로선 백작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무척 기쁜 걸요.”

“아, 그때 그걸 보낸 게 너였냐.....”

백작은 그제야 몇 주 전, 전선 총 사령관이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빈곤한 전선의 상황을 설명하며 평소보다 많은 보급품과 병사를 요구하는 정체모를 사령관에게 그는 참지 못하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전령을 통해 들려주었다.

매번 자신들에게서 보급품과 병사들을 데려가는데 염치란 게 존재하느냐, 아무 말 없이 주기만하니 우리가 호군 줄 아느냐, 지금이 겨울인데 니들에게 식량을 주면 우린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이 벌레보다 못한 강아지자식들아 어찌고저찌고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길 걸 각오하고 지른 일인데 어째서인지 그 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심지어 욕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온 전령의 목도 멀쩡히 붙어 돌아왔다.

“말을 하지.”

엘리온의 성격을 떠올린 그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던 건지 이제야 이해했다.

성질머리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킨 게 부끄러운 건지 그의 귀 끝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편지처럼 그 때에도 네 이름을 적어줬다면 진즉 원조를 쫓을 거야.”

“마수 전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북쪽 지방 귀족들의 신성한 의무거늘.”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엘리온의 목소리는 천막 밖의 날씨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헤쳐 온 페르온 백작도 드물게 서늘한 엘리온의 눈초리를 마주하곤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사람에 따라 요청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신성한 의무? 웃기는 소릴 하는 군.”

그 때 찬바람과 함께 문을 젖히고 들어온 노인이 코웃음을 치며 엘리온의 말을 비웃었다.

흰 빛 섞인 짙은 회색 머리, 날카로운 검은 눈, 얼굴의 주름과 어울리지 않는 강인한 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중앙의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하지 않나?”

“아르틀란 변경백.”

엘리온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었다.

근 7년 만에 만나는 그는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게 없었다.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강렬한 투기, 반백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장한 몸, 더불어 기지와 욕망으로 빛나는 눈동자까지.

대체 누가 그를 이빨 빠진 사자라 부르기 시작했을까?

눈앞의 노장의 모습을 보면 감히 그런 이명은 입에 담지도 못할 것이라고, 엘리온은 생각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신 거 같아 기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엘리온. 아, 이제는 하트하르스 후작이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자리에 맞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쫓, 그 또한 마음에 없는 소리구나.”

“.....”

“변한 게 없구나, 엘리온. 여전히 말에 진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어. 엠브리오는 대체 왜 벌써 네게 후작 위를 물려준 거지?”

엘리온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가뜩이나 그를 못마땅해 하는 변경백에게 아버지의 추태까지 알릴 순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7년 전에도 엘리온의 아버지, 하트하르스 후작과 아르틀란 변경백의 사이는 썩 좋지 못했다.

아니 아르틀란 변경백이 일방적으로 엠브리오를 싫어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런 그에게 엘리온의 검술 스승이 되어 달라 부탁한 엠브리오는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었다.

어쨌거나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평소 왕래 없는 두 사람의 사이가 나아졌을 것 같진 않았다.

“병이라도 걸린 건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혀두겠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온은 이 사실을 불문에 부쳤다.

이러면 적어도 둘 사이가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아닌가?

“흥, 부인이랑 사랑의 도피라도 떠난 모양이로군.”

“.....”

“그 놈 성격에 안 봐도 뻔하지. 그렇지 않나?”

“.....”

정정.

어쩌면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변경백이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지 엘리온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 관해 고민하기도 잠시 남은 두 사람, 베르딜런 백작과 루빅 남작이 자리에 당도했다.

루빅 남작은 자신이 고위 귀족들과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했다.

반대로 표정변화가 거의 없는 베르딜런 백작은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 다녀 무인인 페르온 백작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문득 참으로 기이한 조합이라고 엘리온은 생각했다.

중앙의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귀족이 둘에 신흥 귀족이 한 명, 그리고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비밀 많은 귀족까지.

차례로 아르틀란 변경백, 페르온 백작, 루빅 남작, 그리고 베르딜런 백작의 면면을

훔쳐 본 엘리온은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뭐가 그렇게 우습지, 후작?”

“실례.”

변경백의 물음에 엘리온은 빠르게 표정을 갈무리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 깃든 웃음기는 도무지 숨길 수 없었다.

“제 요청에 이렇게 발 빠르게 응해주신 게 감격스럽다고 해야 할지.”

엘리온은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유쾌하다는 걸 깨달았다.
다들 주어진 환경도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이곳에 온 목적만큼은 일치했다.

“일전에 요청을 드렸을 때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불어 네 귀족 모두 엘리온의 지원요청을 거절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야, 황족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베르딜런 백작이 특유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알레프 3세 폐하의 서거 이후에도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정보에 어두운 북벽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아이기스 후작과 에트와르트 공작이 병사를 모으고 있단 소문도 포함해서 말이

죠.”

루빅 남작이 신이 난 듯 백작의 말을 받았다.

“이건 틀림없이 수 백 년 간 흔들림 없는 황위 계승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미쳐 비네시스의 성을 받지 못한 황족이라니! 이게 무얼 뜻하는지는 바보라도 알 정도로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이름을 걸었지, 엘리온 후작.”

빈센트 폰 아르틀란 변경백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건 이 나라에서 ‘하트하르스’ 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한 말이겠지?”

“당신은 딱히 제 편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사병들을 이끌고 나왔을 땐 아니었지. 하지만 네 편지도 읽었다. 그리고 너는 가문의 이름을 걸고 보증했지.”

하트하르스 가문은 대대로 비네시스 황족만을 섬긴다.
오래되고도 낡은, 그러나 지난 수백 년간 결코 바래지지 않았던 불변의 명제였다.

“네가 전한 사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야. 가문의 흥망을 건 거래이자 목숨을 건 제안이지. 나는 아직도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무겁고 진득한 그 목소리에 엘리온을 제외한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30년 전, 다알레프 3세의 즉위 전 피비린내 가득한 황위다툼.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당시의 끔찍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
하나 같이 생생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던 일화들을 모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아니, 현재 일어나는 일조차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기에 나는 확실한 걸 바란다.”

“하트하르스 가문의 보증과 또 다른 제자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 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엘리온은 웃었다.

멋진 신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르틀란 변경백은 엠브리오를 속 닭은 엘리온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엘리온은 빈센트를 만난 순간부터 그를 아주 좋아했다.

검술도, 전술도, 성격도, 삶의 자세도.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어른이었다.

엘리온은 어릴 적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럼 어디 한 번 직접 그 눈으로 보시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시끄러웠다.

엘리온은 단번에 그 목소리가 잔소리하는 카일러스와 투덜거리는 아스펠의 것임을 깨달았다.

“보고 판단하고,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개자식을 평생 옆에 두고 조질 거라고! 그 빌어먹을 새끼는.....아.”

거칠게 천막 문을 젖히고 들어온 아스펠은 방 안 가득한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눈을 깜빡였다.

엘리온은 굳어져 꿈쩍도 안하는 아스펠의 얼굴과 창백하게 질린 카일러스의 얼굴

을 번갈아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엔 똑같이 '쫓됐다.' 라고 쓰여 있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버릇이든 성격이든 관념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지고 고정되어 바뀌기 힘들다는 것을 아스펠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건 이 역시 아스펠의 천성이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카일이 거기서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였든가.’

자기가 잘못된 일은 생각도 않고 있는 마이크와 그의 남 탓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카일러스.

사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화가 나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두 경우 모두 아스펠의 신경을 건드리는 건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만 좀 해.”

“뭘?”

“네 화풀이 말이야.”

그래서 아스펠은 두 사람 모두에게 화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카일러스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지난 날 엘리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스펠은 그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했다.

마이크에 대해서는 지난 나흘 간 하루 종일 옆에 두고 굴리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고삐를 잡게 해 까망이를 대신 물게 하거나 방패를 들게 해 방패막이로 쓰고 전령으로서 부려먹으며 마수들 사이를 가로지르게 했다.

아스펠의 명령에 마이크는 온 몸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을 뽐어냈다.

여전히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스펠의 신분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인지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긴 해도 그는 시키는 건 곧잘 해냈다.

기마실력도 나쁘지 않았고 체력도 좋은데다 도망치는 실력은 탁월했다.

조금 과장해서 평하자면 마이크는 마수와 싸우는 것 외엔 뭐든 잘했다.

대도시 아이시스의 경비병이었다더니 과연 성격과는 별개로 실력만큼은 칭찬해줄 만 했다.

“저러다 신경 쇠약으로 죽겠어.”

하지만 너무 부러먹은 모양인지 마수의 공세가 주춤하던 나흘째의 밤, 점점 수척해지는 마이크의 상태를 보다 못한 카일러스가 그녀를 말리기 시작했다.

“대체 언제부터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옆에 두고 굴러먹겠단 뜻이 된 거야?”

“나흘 전부터.”

“이 사기꾼.”

뻔뻔한 아스펠의 대답에 카일러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병사, 마독(魔毒)과민 반응이 있어 보이던데, 이대로라면 죽진 않아도 확실하게 쓰러질 거야.”

“마독과민반응?”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었다.

“그게 뭔데?”

“마수가 신성 결계를 약화시키는 독기를 뿜는 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저 녀석은 그 독기에 민감한 거야.”

고개를 모로 기울인 아스펠이 눈만 깜빡이자 카일러스의 설명이 좀 더 이어졌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기를 독으로 느끼게 돼서 숨을 잘 쉬지 못해.”

“아, 그래서.....”

매번, 특히 마수들 사이를 지나갈 때면 숨을 헐떡이던 마이크의 모습을 떠올린 아스펠이 탄성을 뱉었다.

“보통은 어린 사제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일반인도 타고날 수 있나보네.”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 보는 경우긴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럼 가능한 거겠지.”

그러니 이제 그를 옆에 두는 건 그만두라고 카일러스는 충고했다.

“싸우지도 못하는 호위를 옆에 뒀자 좋을 거 없어.”

심술 반 궁금함 반으로 ‘이것도 되나?’ ‘저것도 할 수 있으려나?’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시켜보긴 했다.

전부 다 척척 해내니 ‘조금 만 더’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지금도 반성치 않는 모습에 화가 나긴 했지만 특수한 체질로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아스펠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다고 마수가 없는 곳으로 피난시킬 수도 없고, 곤란하네.”

“그래, 지금 우리에게 그럴 여력까진 없어.”

아스펠의 중얼거림을 들은 카일러스가 답했다.

“그게 가능했으면 어린아이랑 노인들을 가장 먼저 피난시켰겠지.”

“음, 그럼 어찌지.”

“그냥 후방에 뒤. 적어도 마수와 덜 마주칠 테니 거기선 안전할 거야.”

“그래.”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아스펠은 도무지 떨떠름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마이크의 행복한 얼굴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순 없으니 하는 수 없지.’

“데리고 다니는 건 이 이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훗날을 기약하는 아스펠의 혼잣말을 들은 카일러스의 미간이 크게 일그러졌다.

그는 드물게 '대체 왜?' 라는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냈다.

"네가 개를 왜 데리고 다녀?"

"그야 화가 다 안 풀렸으니까."

뭐 그런 당연한 걸 묻느니 말투로 아스펠이 답했다.

"괜 좀 더 반성해야 해."

"그렇다고 네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어?"

못마땅하다는 감정을 숨길 생각도 않은 카일러스의 목소리엔 절로 날이 서 있었다.

눈살을 찌푸린 그는 불만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별을 주고 싶은 거라면 방법은 다양하잖아. 다른 사람을 시킨다든가....."

"그건 내 기분이 안 풀리는 걸."

게다가 다른 사람을 시켜 별을 줬다간 마이크는 이제 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불행을 한탄할 것이다.

틀림없었다.

아스펠은 그 미래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 수 있었다.

"네 옆에 있어야 할 건 나야."

입을 움직이면서도 착실하게 발은 엘리온의 막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아스펠의 몸이 카일러스의 손에 의해 붙들렸다.

낮고 위협적인, 그러나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스펠을 향해 속삭였다.

"나뿐이라고."

"....."

"네 가치도 모르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나도 알아. 그걸 부정한 적은 없어."

아스펠은 그가 그녀의 호위 기사가 되고 싶다 말한 날을 떠올렸다.

"약속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거래는 아직까지도 종종 아스펠의 경각심을 건드리곤 했다.

"그를 호위로서 옆에 두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떠오르는 호기심과 불안함을 억누르며 아스펠은 말을 이었다.

"난 그저, 조금이라도 마이크가 자기가 한 짓을 반성하게 만들어 주고 싶을 뿐이야."

"반성?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정곡을 찔린 아스펠은 눈을 도록 굴렸다.

“아주 약간은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 한 번 참신하군.”

“내 시간이고 내 기력이야. 어떻게 쓰던 내 마음이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네 처지를 따져보면, 아니 지금 당장 변경백이나 다른 귀족들과 만날 네 상황을 생각해보면 네 시간도 기력도 온전히 네 것이 아니야.”

아스펠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카일러스의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렸다.

“황족으로서의 자각을 가져, 아스펠.”

‘빌어먹을.’

선연한 카일러스의 눈을 마주하며 아스펠은 이를 갈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긴 했지만 그녀는 종종 제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러웠다.

아스펠은 황족이고 싶지 않았다.

황제의 자리는 물론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삶이었다.

사랑하는 로웰과 다정한 마을사람들과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상단의 식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가끔은 힘들지만 결국은 행복한 그런 평범한 삶.

그토록 바라고 원하며 끝내는 소망대로 누려왔기에 한층 더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졌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실에 대해서.

카일러스의 잘못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황족이라는 증오스러운 단어는 아스펠의 가슴 속에서 첨예한

분노를 날 세우게 했다.

“그럼 더더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아스펠!”

“멋대로 굴지 마, 카일러스. 네 말마따나 나는 빌어먹게도 ‘황족’ 이니까!”

“.....”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알았어?”

천으로 된 엘리온의 막사를 거칠게 열어젖히며 아스펠이 소리쳤다.

“그러니까, 나는 그 개자식을 평생 옆에 두고 조질 거라고! 그 빌어먹을 새끼는.....아.”

막사엔 엘리온 외에도 선객이 있었다.

게다가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아스펠의 눈이 재빠르게 그들을 훑었다.

먼지나 말라붙은 피가 더럽긴 했지만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이나 검은 하나같이 상등품이었다.

평범한 신분은 절대 아니란 뜻이다.

슬쩍 눈을 돌려 카일러스를 살펴보니 그의 안색은 어느새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스펠은 새하얗게 변한 카일러스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 끝에는 흰 머리가 드문드문 섞인 회색머리에 딱정벌레 같은 새카만 눈을 가진 노장(老將)이 자리했다.

반백은 훌쩍 넘어 보이건만 기이하게도 그는 무리 중 가장 강한 존재감을 풍겼다.

아스펠은 수차례의 폭풍우와 가뭄을 견뎌낸 거대하고 강인한 고목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 사람이 빈센트 폰 아르틀란 후작이구나.’

이빨 빠진 사자라는 이명이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다.
카일러스의 말마따나 그는 보통 노인이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그의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목격한 아스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예상하긴 했지만 과연 만만치 않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

제법 규모가 큰 가일라프 상단도 검소한 북쪽 지방의 귀족들과 교류를 하는 일은 드물었다.

때문에 아스펠은 이 자리에 있는 귀족들의 면면을 알아보긴 커녕 가문 명조차 추리해내지 못했다.

‘모를 땐 웃는 게 최고지.’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 하지 않는가.

상스러웠던 등장을 어떻게든 기억에서 지워내려 애쓰며 아스펠은 그들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다.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스펠 레이덴트라고 합니다.”

“.....”

“열세였던 전황을 뒤집고 북벽 근처까지 전선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건 전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180도 바뀐 아스펠의 말투에 카일러스는 정신을 차린 듯 눈을 깜빡였다.

카일러스는 지금 그녀가 무얼 하려는 건지 단번에 깨달았다.

“지금 수습해봤자 늦지 않았을까.”

“좀 닦쳐봐.”

“컹!”

속삭이는 카일러스의 명치를 아스펠은 빠르게 팔꿈치의 끝으로 내리 찍었다.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

힘도 체격도 평균 이하이건만 아스펠은 급소를 찌르는 능력만큼은 출중했다.
웬만한 기사들도 감탄할만한 훌륭한 명치 찌르기에 카일러스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는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줘 놓고 대체 모르긴 뭘 모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명치가 너무 아팠다.

결국 그는 아스펠이 바라던 대로 입을 다물게 되었다.

“전선을 완전히 회복시키기까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 도와 힘을 합한다면 금방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

“부족한 점이 많은 몸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며 뺨은 아스펠의 여러 뜻 섞인 말에 엘리온을 제외한 네 귀족들이 보인 반응은 상이했다.

통통한 체격에 멋들어진 콧수염을 가진 중년의 남자는 불을 붙히며 흥분했고 잿

빛 섞인 금발머리를 가진 무인의 표본 같은 젊은 남자는 경악한 듯이 입을 딱 벌렸다.

모두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채 사태를 관망하듯 바라보고 있던 갈색 머리의 남자는 일순 흥미와 호기심 어린 표정을 비쳤으며 가장 중요한 아트를란 후작은

“크, 크크. 크핫!”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 와중에 엘리온은 더없이 감격스럽다는 얼굴로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였다.

입을 헤 벌리고 있던 어두운 금발의 남자는 어째서인지 그런 엘리온을 질색하는 얼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3.

천박한 욕설을 내뱉고 거침없이 폭력을 휘둘렀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 가면을 뒤집어썼다.

우아하진 않았지만 당당한 자세는 묘하게 시선을 사로잡았고 기품은 없었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암,’

귀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어디 하나 위축되거나 움츠러든 구석이 없었다.

더불어 스스로를 낮추고 그들의 행동을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면서도 은근슬쩍 그 앞을 더 원해온다.

‘비네시스의 황족이라면 응당 이래야지.’

보통 범인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카리스마와 노련함이 일순 그녀가 일평생 평민들 사이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잊게 했다.

조금 어설픈 하지만 황족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능력은 타고난 천성이리라.

‘과연 황제가 되기에 적합한 원석이구나.’

세상만물에 터럭의 진심도 보이지 않는 저 엘리온이 진심으로 예를 갖춘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아스펠은 진짜였다.

빈센트가 본 몇 안 되는 자색 눈을 가진 황족 중에서도 그녀는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설 자질을 타고난 인재였다.

‘다시 한 번 ‘진짜’ 황족을 황제로 만들 기회가 올 줄이야.’

가문을 부흥시킨다는 숙원과 더불어 그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찬스였다.
다시없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빈센트는 끓어오르는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미천한 빈센트 폰 아르틀란이 위대한 비네시스의 핏줄을 뵙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성큼, 앞으로 나선 그가 아스펠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제국의 존귀한 존재께서 저를 필요로 여겨주심이 이루 말할 것 없이 기쁩니다.
늙은 몸이지만 이 아르틀란, 당신께서 나아가실 길을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작께서 그리 말씀해주시니 더없이 든든하군요.”

갑작스러웠지만 무릎 꿇은 후작의 모습에 아스펠은 당황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았다.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익숙하다는 듯이 그녀는 의연한 태도로 빈센트의 충성을 받아들였다.

“그럼 그 최선의 첫발로 제 후견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그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혀는 매끄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뱉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 밖에서 스스로의 출신에 대해 모르고 살아왔던 탓에 저는 아직 비네시스의 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추는 것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부족한 점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데 후작께서 그 빈틈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없을.”

감히 시선을 떼기 힘든 그 모습을 올려다보며 빈센트는 마음이 소리 없는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스펠 같은 황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결한 천성과 고귀한 혈통을 타고 난.

누구나 우러러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

선정(善政)을 펼쳤던 세명(世明)황 아이달로프 황제와 그의 측근 클로엘처럼.

빈센트는 다시 한 번 그 태평성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다.

아니,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 갈고 닦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실패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말로, 그의 재력과 군사와 지위가 제국의 정점에 걸맞는 그녀의 천성과 함께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부디 저와 제 가문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미래에 빈센트의 입가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엘리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슴에 손을 올린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트하르스 후작처럼 아스펠을 향한 진심 어린 충성의 표현이라기 보단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미래를 향한 그만의 결의 표명에 가까

왔다.

* * *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인 터라 당황한 것도 잠시.

자리한 귀족들에게 어떻게 그녀를 소개해야하나 고민했던 일이 무색하게 아스펠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훌륭하게 자기소개를 끝마쳤다.

범인(凡人)이라면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압도당해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을 터인데.

매서운 아르틀란 후작의 기백 앞에서도 아스펠의 혀는 두려움이란 걸 모른다는 듯이 부드럽게 굴러갔다.

‘역경에 강하단 말이지, 의외로.’

카일러스는 로웰의 묘비 앞에서 보인 메마른 아스펠의 뒷모습을 기억했다.

연약하고 서글프면서도 처연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와 떨리는 작은 어깨를 보며 그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낀 첫인상이 거짓말같이 아스펠은 날카로운 칼날을 코앞에 두고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뱉어야 했고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카일러스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스펠은 강한 힘에 눌리면 눌릴수록 그에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 가서 지고는 못산다는 뜻이다.

솔직한 성격과 더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정치판에선 도마 위에 오르기 딱 좋은 위험한 성정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카일러스와는 다르게 아르틀란 후작은 그런 아스펠의 천성이 몹시 마음에 든 듯 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밖으로 따로 불러낸 것만 봐도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었다.

숨길 생각도 않고 올라가던 후작의 입꼬리와 환한 면면을 떠올린 카일러스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스펠은 ‘괜찮아, 내게 맡겨.’ 라고 속삭였지만 두 사람의 성정을 어느 정도 파악

하고 있는 그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바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수 있는 아르틀란 후작과 목숨이 경각에 달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스펠.

그가 직접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긴 했지만 위태로운 조합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저건’ 대체 뭐야?”

이런 게 최선이라는 건 그만큼 아스펠이 가진 선택지가 좁고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뜻했다.

“저런 여자가 비네시스의 황족이라고?”

후작과 아스펠이 천막 밖을 떠나자마자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입을 연 페르온 백작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의심하고 가능성을 재보며 못마땅해 하는.

기대 이상의 호감을 가진 아르틀란 후작이 특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리울의 반응은 카일러스의 예상 범위 내였다.

“저렇게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여자가? 아니, 그보다 레이덴트는 대체 어느 귀족의 성이야?”

“말조심하시길, 페르온 백작.”

가장 눈치를 봐야 할 아르틀란 후작이 사라지자마자 거침없이 제 감정을 표현하는 리울에게 엘리온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이 함부로 혀를 놀려도 될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젠 또 왜 저래?’

리올과는 전쟁터에서 몇 번인가 등을 맞대고 싸운 경험이 있었다.
때문에 오래 알고 지냈다가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동료라 말할 정도의 사이는 되었다.

‘웬 존댓말?’

그렇기에 대놓고 벽을 치는 엘리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카일러스는 눈을 깜빡였다.

의문을 담아 엘리온을 바라봤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카일러스의 시선을 무시했다.

아스펠의 존재를 비밀로 했던 그에게 아직까지도 심통이 났음이 틀림없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가는 뒤끝에 카일러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하죠. 아스펠 님의 존재가 불만이라면 병사들을 이끌고 떠나주세요.”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만도 못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엘리온은 리올을 내보내려 했다.

제멋대로인 그의 통보에 카일러스는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선을 회복시키긴 했지만 벽을 뚫고 들어온 마수들은 그 강력한 신성 결계를 통과한 마수들이었다.

욕설이 절로 나올 정도로 강하고 성가신 능력을 가진 마수들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압도적인 수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은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아쉬운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리올이 데려온 병사들이 전선에서 이탈한다면 그 구멍은 안타까운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 터였다.

분명 엘리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신 도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엘리온의 말마따나 아무리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 한 명이 더 아쉬운 상황이라도 의심을 가진 자와 함께 할 순 없었다.

아니, 기반이 없기에 더더욱.

약간의 불신은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아스펠의 입지를 위험케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전선을 다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과연 최선일까?

카일러스는 예고도 없이 승부수를 띄운 엘리온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그보다 왜 그걸 네 멋대로 정하는 거야?”

“저는 분명 전령을 보낼 때 강조했을 터입니다. ‘황실의 마지막 자손’을 도울 마음이 있다면 와달라고. 그녀를 에틸렌의 황성, 블랑 에이블린으로 모시기 위해 그 첫 발로 마수 퇴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이죠.”

“.....”

“저는 그 분의 옆에 설 각오가 될 분을 불렀습니다.”

전령을 보냈다는 사실만 알고 그 자세한 내용까진 몰랐던 카일러스는 엘리온의 말에 작게 신음을 뱉었다.

제 이름을 팔아달라는 아스펠의 말마따나 엘리온은 그녀의 혈통을 화려하게도 포장해서 팔아치웠다.

무엇하나 약속하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면서.

서로의 속내를 교환한 카일러스의 거래보다도 훨씬 위험한 도박이었다.

카일러스는 그런 위험한 도박판에 아스펠을 판돈으로 올린 엘리온의 정신상태를 믿을 수 없었다.

“서로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아스펠 님이 황족인지 아닌지, 그 정당성을 따지고 들 여력 같은 건 이 전시엔 없습니다.”

“그럼 뭐야, 엘리온. 우리가 네 보증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야?”

“네.”

믿을 수 없는 정신상태를 가진 엘리온이 답했다.

“애초에 여러분들은 그것만을 믿고 모인 게 아닙니까? 저의, 하트하르스의 보증만을 믿고 말이죠.”

“.....”

“두 분께서도 아스펠님의 출신이 의심하시거나 그 존재가 못마땅하시다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엘리온은 이제 리올이 아닌 천막 안의 모두를 향해 한 번씩 시선을 주었다.

그들 속에 숨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베르딜런 백작과 딱딱하게 굳어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루빅 남작의 얼굴이 그의 녹빛 보석안에 담겼다 사라졌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린 부탁은 맛만 보고 손을 댈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한 번 올라타면 도중에 내릴 수 없는 마차이고 출구의 존재를 의심해서 안 되는 미로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가늠해 보듯이.

“지금 가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떠나시려면 지금 가주세요.”

혹은 그들이 그를 가늠해 보도록 하듯이.
엘리온의 속삭임은 천막 안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 내렸다.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했죠.”

고요한 사위 속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어둠 속에서 한 발 앞으로 나온 베르딜런 백작이었다.

마침내 빛이 그를 내리비쳤지만 여전히 표정 없는 그의 얼굴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분이 황족임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로웰님을 닮은 얼굴과 그 자안.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죠.”

‘.....닮았나?’

카일러스는 아스펠의 고양이 같은 새침한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나 선이 가늘고 날카로운 얼굴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로웰의 생김새와는 정 반대였다.

그가 생각할 때 아스펠은 타고난 성정 외엔 외적인 부분으로 로웰과 닮은 점이 전혀 없었다.

“그럼 그 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냐의 선택이 남는데, 저는.....”

"....."

모두의 시선이 베르딜런 백작을 향했다.
그는 마치 의도했다는 듯이 한 템포 늦게 자신의 생각을 뱉었다.

"마차에 타겠습니다."

무기질적인 연한 갈색 눈이 엘리온을 응시했다.

"보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여기에 왔으니까요."

24.

“저도!”

베르딜런 백작에게 질 새라 루빅 남작이 빠르게 외쳤다.

“저도 백작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통통한 그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남작은 보물을 발견한 순진한 아이마냥 환히 웃고 있었지만 카일러스는 그의 작은 눈에서 빛나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의 끝자락을 엿봤다.

흔하디흔한, 그러나 실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아스펠과 함께 하며 거의 잊고 있었던 타인의 일면에 카일러스는 아무도 모르게 조소했다.

“이 자리에 오기로 한 순간부터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차에 올라탄 지 오래입니다. 각오는 진즉 돼 있어요. 함께하게 해 주세요!”

“.....나 역시 각오하지 않은 건 아니야.”

잠자코 그들의 생각을 듣고 있던 리올이 머뭇거리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애초에 엘리온, 네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내가 병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을 거야.”

“이해할 수 없군.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몰입하는 대상에 한해선 한없이 관대한 엘리온은 아스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리올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했다.

“그 분은 모든 것이 완벽한데.”

엘리온은 ‘모든 것’의 정의를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배식 받은 스튜에서 당근을 골라내던 아스펠의 모습을 떠올리던 카일러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까, 페르온 백작?”

수백 년간 황실에 충성한 하트하르스의 비호와 후견인으로는 자국보다 타국에서 더 유명한 전쟁영웅.

정통한 혈통과 황제의 좌에 어울리는 정당성.

타고난 아스펠의 가치를 뒤로하고 살펴봐도 썩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리올의 모습은 카일러스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솔직하게 말하면 실망했어.”

유난히 길었던 장례식, 황제의 서거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후계자, 비밀리에 군사를 모은다는 대귀족들.

황족들이 암살당했다느니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느니 비르마탄 제국에서 침략을 꾀하고 있다니 등 온갖 말이 붙어 들려오는 소문들.

불길하고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누군가는 도망칠 길을 모색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삼아 야심을 펼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갖은 욕망과 목적이 휘몰아치는 혼란스런 삶 속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불안의 해소일 것이다.

“나는 그녀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리올은 아스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작고 여린 여자.

검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자색 눈동자와 낭랑한 목소리가 묘하게 시선을 끌긴 했지만 그것뿐이었다.

강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우아하다거나 고고한 기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것이 리올 폰 페르온이 아스펠을 보고 내린 평가였다.

“오늘날까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모르고 살아왔다고 했었지. 그런 그녀가 이 제국에 대해서, 황족의 의무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얼 얼마나 알고 있지?”

“.....”

“제왕학 같은 교육은 받아 본 적도 없겠지.”

빈정거리는 듯한 리올의 말에 순간 아스펠과의 첫 만남을 떠올린 카일러스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그의 신분을 알고서도 바닥에 무릎 꿇린 그녀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때의 아스펠은 꼭 타인의 위에 서는 법을 아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리올.”

물론 그러한 생각은 아주 잠깐일 뿐이었다.

아스펠이 정말로 타인의 위에 서는 법을 알고 있었다면 카일러스가 보지 못하게 스튜에서 골라낸 당근을 그릇 뒤로 숨기진 않았을 것이다.

“엘리온, 너는 우리에게 그 분의 옆에 설 각오를 원했지만 정작 그녀는 어떨지?”

가늘어진 엘리온의 눈을 응시하며 리올이 입을 열었다.

리올을 바라보는 엘리온의 시선은 얼음조각 마냥 서늘했지만 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옆에 있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아니, 설령 도망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진 거라곤 제국 최후의 황족이라는 명함뿐인 그녀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평소 흥분하는 일이 잦은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도 낮고 차분했다.

그제서야 그가 무얼 말하고 싶은지 깨달은 엘리온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는 그녀가 중앙의 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나? 아니, 그보다 그 오만한 치들이 과연 황성 밖에서 나타난 황족을 인정할까?”

“리올, 너.....”

“나는, 아니 우리는 그녀의 옆에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요는 자격의 문제였다.

황족의 피를 이었다거나 비네시스의 성을 가졌는지의 여부가 아닌 제왕학 한 번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인간이 황제로서의 의무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화를 내는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건지 엘리온이 헛웃음을

터트렸다.

“네가 말하는 그 오만한 치들 중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시끄러워. 지금이 예의 차리면서 점잔 떨고 있을 때야?”

눈살을 찌푸린 리올의 시선이 베르딜런 백작과 루빅 남작에게 닿았다.

“미래의 황제 폐하께 아부할 생각에 입 한 번 벅긔하지 않고 있지만 저 두 사람도 나랑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걸?”

“그렇게 겉과 속이 한결 같으니 매번 고생하는 거야. 일전에도.....”

“아무튼, 미리 말해두는데 여기 온 이상 그녀가 어떤 상태이든 나 역시 이 계획에 올라탈 거야.”

길어지려는 엘리온의 말을 사납게 자른 리올이 한층 더 세계 미간을 일그러트렸다.

“올라탈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나도 의심하는 그녀의 자격을 다른 이들이 의심하고 얹잡아보지 않을 리 없잖아.”

중앙의 그 어떤 귀족도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녀를 황제로 모셔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

리올은 정치판 속에서 흔들릴 아스펠의 상태를, 꼭두각시가 될 지도 모를 그녀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스펠로 인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었다.

카일러스는 그런 리올의 주장에 어떻게든 반박하고 싶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아스펠의 가치를 알면 누구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리 없다고.

그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이 높게 평가하는 가치가 타인에게도 통용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만이었다.

가문이 얻을 이익이나 자신이 얻을 혜택보다 흥미를 우선시하는 괴짜, 엘리온을 제외한다면 과연 누가 그녀를 진짜 황제라고 여겨주겠는가?

이는 아스펠을 찾아낸 카일러스조차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어떻게든 미뤄두려 했던 근심을 기어이 리올이 수면 위로 올려버렸다.

카일러스는 절로 터지는 한숨을 도무지 막을 수 없었다.

* * *

단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아르틀란 후작의 요청에 아스펠은 그를 따라 막사 밖으로 나왔다.

많은 귀족들을 뒤로하고 자리를 떠나도 괜찮은 건지 의아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그녀를 아무도(심지어 카일러스조차) 말리지 않았다.

아스펠은 새삼 눈앞의 노인이 꽤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계에서 밀려 큰 권력도 없을 텐데 그 자리에 있던 귀족들 중 누구도 후작의 요구를 무례라 지적하지 않았다.

은연중에 그를 자신의 위에 선 사람이라 생각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엘리온도 말리지 않을 줄은 몰랐는데.’

아스펠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단 둘이서 대면하길 바라다니.

과연 무슨 이야기를 꺼낼 것인지 긴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리라.

하지만.

“.....다른 귀족들이 절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예.”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뜬금없었다.

혹시 너무 긴장해서 귀가 고장 나버린 건가 싶어 되물었지만 아르틀란 후작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녀의 걱정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이대로 에틸렌으로 가서 자리에 오른다 하셔도 다른 귀족들은 아무도 아스펠님을 황제로 생각지 않을 겁니다.”

아스펠의 청각은 다행스럽게도 무사했다.

“물론 겉으로는 아스펠님을 받들 겁니다. 당신께선 현 제국의 유일무이한 황족이시니까요.”

멍청한 얼굴로 눈을 깜빡이는 아스펠을 응시하며 아르틀란 후작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뒤에서, 아니 앞에서도 분명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은연중에 깔보는, 그런 무례한 말들이 말이죠.”

“왜요? 제가 황성 밖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황족이라서요?”

여전히 카일러스가 봤으면 한심스러워 할 표정을 갈무리하지 못한 채 아스펠이 물었다.

“그도 아니면 저를 지지해 주는 세력이 사교계에서 이빨 빠진 사자라 불려서인가요?”

“.....둘 다입니다.”

지나치게 솔직했기 때문인지 아스펠의 말에 후작은 적잖이 당황했다.

하지만 노련한 귀족인 그는 아스펠과는 다르게 재빠르게 드러난 표정을 거둬들이

며 평정을 가정했다.

“오랜 세월 대대로 황제의 곁을 지키며 황성에서 일해 온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를 겁니다.”

“.....”

“그 오만한 귀족들이 아스펠님의 앞에서 입을 놀리지 않게 하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진중하게 늘어놓는 그를 아스펠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더더욱.
아스펠은 왜 이 말을 굳이 단 둘이서 해야 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후작께서는 제가 영웅이 되길 바라시는군요.”

에틸렌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곳에서 다른 귀족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특별한 것이라면 하나 밖에 없었다.

“황위에 오르기 전, 제게 특별한 일화(逸話)를 원한다고요.”

권력자의 삶에 그 사람의 인물상을 보여주는 남다른 일화가 한 두 가지쯤 구전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건 흔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이자 일종의 정치적 장치였다.

스스로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치 못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일화가 필요하다면 아스펠은 없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지어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정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그럼에도 아르틀란 후작은 이 대화를 단 둘이서만 하길 바랐다.

엘리온이나 카일러스, 그 밖의 다른 이들에게 말해줬다면 얼마든지 도와줬을 이런 이야기였을 텐데.

“이 자리에 없는 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굳이 저희끼리만 알 필요는..... 아.”

“아스펠님께서 특별함을 보여주셔야 하는 건 이 자리에 없는 귀족들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그녀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처럼 환하게 미소 지은 아르틀란 후작이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이 자리에도 존재하는, 더 정확히는 이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번개 같이 내리쬰듯 깨달음에 아스펠은 입을 딱 벌렸다.

은근슬쩍 이 제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 말했지만 아스펠이 그녀의 특별함을 증명해야 하는 주된 대상은 천막 안에 남아있을 귀족들, 즉 그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당신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아스펠님을 선택하지 않은 게, 믿지 않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인지를요.”

천막 안의 사람들 중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

어차피 증명해야 할 자질,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비밀리에 일을 꾸며 그들에게도 보여주도록 하자.

대화는 길었지만 아르틀란 후작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했다.

‘이 너구리가.’

황제를 모신, 에틸렌에 있는 중앙 귀족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이 있던 귀족들이 그 타겟이었다.

돌리고 돌려서 표현하는 그 은근한 방식은 둘째 치고 의아함을 느끼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깜빡 속아 넘어 갔을 지도 모를 상황에 아스펠은 튀어나오려는 욕지거리를 꼭 눌러 삼켰다.

‘지금 나, 시험 당한 거지?’

과연 만만치 않은 성정이라 생각한 후작의 평가가 까다로운 개자식으로 바뀐 순간이었다.